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품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0월 2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47 호

조계종-정부 '합동징수' 합의

입장료 사찰지원 법제화… '폐지' 점진 검토

16일부터 시행

국립공원내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 입장료 분리징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조계종과 정부가 14일 합의를 도출, 산문폐쇄의 고비는 넘겼으나 교계내 진통이 예상된다.

조계종은 15일 "종단과 내무부 문체부 관계자가 14일 오후 회의를 갖고 문화재관람료를 최종조정하고 향후 징수방법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내용은 △국립공원내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조정은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관계기관이 협의한다. 협의된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에 한하여 합동징수한다. △공원입장료 수입에서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따라 사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의한 내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본사주지모임 회장 설조스님은 "이번 합의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13일 주지모임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24일 산흥사 모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산문폐쇄 아직 유효"

본사주지모임 강경입장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회장 설조)이 내무부 임직원등에 대한 부분적 산문폐쇄와 공원입장료 폐지 서명운동의 지속을 결의했다.

본사주지모임은 지난 13일 밤 타워호텔에서 16개 본사 주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 분리징수 문제와 관련된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본사주지모임 회장 설조스님과 법장 법타 지선등은 다음날인 14일 총무원을 방문 결의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본사주지모임 일부 스님은 총무원이 문화재관람료와 입장료 합동징수등 정부와 합

공원입장료 폐지촉구

추미애의원, 내무위국감서

국민회의 추미애의원이 정부를 향해 법적근거가 잘못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열린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환경전문 이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과 관리공단의 환경부 이관, 공원지역의 훼손과 오물처리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부석사 조사당 서까래 붕괴

3층석탑도 낙서수난

부석사 무량수전(국보18호)이 각종 낙서와 흠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면 조사당(국보19호)은 서까래가 썩어 내려 앉았고, 3층석탑(보물249호)도 낙서로 수난을 겪고 있다.

무량수전 좌우벽면과 뒤편 벽면은 온통 뾰족한 돌 등으로 긁은 낙서로 가득하며 손이 닿지 않는 벽면 상단에까지 낙서가 적혀 있다.

조사당은 지난해 서까래 2개가 썩어 문화재관리국에 보고, 관계자 조사까지 마쳤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썩은 서까래 일부가 내려앉았다. 사찰측이 성급히 서까래를 새로 교체했으나 정확한 고증없이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3층석탑도 상층기단에 한자로 된 낙서가 흉하게 새겨져 있다.

문화재관리국은 "빠른 시일내로 원형복원하겠다"며 "23일 문화재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은 벽면에 단청을 주장하는 부석사측과 달리 전통색상인 토황색을 입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경사 탱화2점 도난
전문털이범 소행인듯

포항 보경사(주지 김현) 대웅전 후불탱화와 지장전 삼장탱화가 11일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찰측에 따르면 아침예불을 위해 경내를 둘러보던 중 대웅전 후불탱화와 지장전 삼장탱화가 예리한 칼로 뜯겨져 없어진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웅전과 지장전 문고리를 뜯고 들어가 탱화만을 훔쳐간 것으로 보아 문화재 전문털이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웅전 후불탱화와 지장전 삼장탱화는 조선후기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조선후기 불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지홍스님은 "이번 정부와의 합의는 분리징수등의 과행을 막기 위한 정부와의 협의원칙이 세워졌다. 공원입장료의 일정부분을 사찰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자연공원법에 명문화한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는 국가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한다 등 3개항. 〈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조계종은 15일 국립공원내 19개 합동징수사찰과 해당본사에 정부와의 합의사항과 조정된 요금내역을 통보했다. 조정된 요금의 징수는 16일부터 시행되고

사 설

합동징수 합의 이후

지난 10월14일 내무부의 초청형식으로 조계종과 문체부 등의 관계자들이 만나 3개항에 합의함으로써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정부측의 분리징수에 맞서 '산문폐쇄'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불교계의 갈등과 대립이 당분간 해소된 셈이다. 정부와 불교계가 지혜롭게 부처님의 화합정신을 발휘한 것을 우선 환영한다.

그동안 정부의 종교문화정책이나 긍원정책이 일방통행식의 행정편의적 행태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수많은 불교관계 악법들에 의해 불교종단의 재산관리 심지어 인사관리 에 있어서도 국가권력의 타율적인 간섭이 있어왔던 것이다.

또한 잘못된 문화재정책으로 삼보정재인 불교문화재가 본래의 모습을 잃고,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불상사는 불교문화재의 특수성과 전통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병폐적 탁상행정 · 관료행정 때문이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불교계와 정부당국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있다.

첫째, 합의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번 이와 유사한 합의가 있어왔던 것을 종교편향적인 정부정책이 시행되면 불교계의 강력한 대응으로 심각한 마찰을 보여왔고, 그때마다 '강경대응'이 유보되곤 하였다. 이와함께 정부당국과 불교계의 합의서를 발표했지만, 중요한 사안에서는 그대로 이행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다.

둘째, 합의사항중 두번째 항목인 '공원입장료 수입에 문화재의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자연공원법에 명문화 한다"는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동안 불교계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립공원 안에는 대부분 오래된 전통사찰이 있고 삼보정재인 불교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마음의 양식을 얻고, 세상사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달래기 위하여 전통사찰을 찾고 불교문화재를 감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처럼 불교문화재는 또한 우리나라 경제체제로 볼때는 삼보정재이며 민족유산이지만 사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불교재산권의 포기를 요구한다든지,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한을 가함으로서 종교의 존엄성과 불교의 자주성이 말살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제2항의 합의조항은 꼭 입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국립공원을 운영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는 조계종을 비롯하여 불교계와 협의를 상설화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에 "국립공원내에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조정은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관계기관이 협의한다. 협의된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에 한하여 합동징수한다"고 합의하였다.

이 합의사항도 문구에 구해됨이 없이 합의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이를 문헌적으로만 해석하여 입장료 · 관람료인상의 합의가 안되면 또 분리징수의 편법이 등장해서는 안된다.

넷째, 불교계는 이번 기회에 불교재산관리와 불교문화재 보호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총무원등 중앙부처와 본말사 간에도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산중공의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연변에 북방거점사찰 추진

北돕기불교추진위 50평 연내 개원…北 식량지원등 역할 기대

대북식량지원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통일 후 북방포교를 준비하기 위한 거점지가 중국 연변에 마련될 전망이다.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위원장 지선스님)는 북녘동포돕기운동이 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임을 감안, 통일 이후 북방포교를 준비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국 연길시에 사무실 형식의 포교당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외국 종교단체의 자국내 포교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중국 종교법의 제한으로 어려움이 따르나 약 50평 규모의 아파트를 마련, 연내 개원할 예정이다. 또 스님과 재가자 각 1명씩을 파견한다는 목표아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불교추진위는 북방포교에 대한 의욕과 함께 장기간 상주할 수 있는 포교사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추진위 집행위원장 효림스님(파주 보광사 주지)은 "통일이 실현되기까지 현실적으로 북한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중국 뿐이나 중국 현지사정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관계로 지난 1차 식량지원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단기적으로는 가격조절 등 식량지원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해결에서부터 조선족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북방포교를 준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관음종 주지 연수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3~14일(1박2일) 대전 유성구 유성관광호텔에서 전국사암주지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회에는 종정 대천스님과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비롯한 종단간부, 각 말사 주지 등 모두 50여명이 참석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서의 종단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회는 '종지와 수행자의 자세'(홍파스님) '승려의 생활자세'(혜웅 · 원로원장) '비교종교론'(법륜 · 종회의장) '포교와 사찰 운영론'(성철 · 보명사 주지) '대승불교와 관음신앙'(지하 · 조계종 중앙승가대 총장)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복지타운 부지매입 '승인'

승가원이사회 새이사 · 감사등 선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은 15일 중앙승가대학교 회의실에서 제6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종합복지타운 부지 매입과 98년 신규사업 등을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는 종합복지타운 건립부지로 물망에 오른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일대 19만7백49평을 매입키로 했다. 또 사임을 표명한 이사 법신스님과 10월말로 임기만료되는 감사 선진(도솔암 주지) 혜창(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스님 대신 본각스님(중앙승가대 사회학과 교수)과 원소스님(중앙승가대 비구수행관장) ·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를 새 이사와 감사에 각각 선임했다. 현각스님(성불원 원장), 김복희 이사는 유임됐다.

한편 이사회는 98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요양시설 '성락향', 그룹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소, 주간보호센터 1개소,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등을 채택, 승인했다.

"국립공원관리 정부예산으로"

백양사, 10일 본말사 주지결의대회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지선)는 10일 대웅전에서 '사찰환경수호 및 공원입장료 철폐를 위한 본 · 말사 주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본말사주지스님을 비롯한 3백여명의 사부대중은 공원입장료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내무부가 약속한 관람료 통합 징수 행정 지침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사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며 "공원 관리소는 수익사업에 연연치 말고 설립 본연의 임무인 자연환경의 보호와 문화재 보호에 중점은 둬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3개항 결의사항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사항은 △문화재 보호법 적용받는 사찰과 임야를 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외하여 불교자주권을 보장하라 △공원관리비를 정부예산으로 충당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라 △9월 22일 총무원장스님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등이다.

"경영정상화 길 찾자"

BBS 이사 간담회

불교방송 이사장직무대행 영담스님은 14일 재단이사간담회 직후 "10월말 검찰수사가 종결되면 11월초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사장 선임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하 설정 지하 홍파 설조스님과 서돈각 불교진흥원이사장 등 12명의 이사들이 참석,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원관리 지자체로"

속리산 관광협 주장

조계종과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의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대두됐다.

속리산 관광협의회는 최근 이사회를 갖고 법주사의 산문폐쇄 조치가 시행되는등 속리산 지역의 마찰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원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결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내무부 문체부등 관계부처에 제출키로 했다.

김포학사 신축비 승가대, 24억 지불

중앙승가대는 16일 김포학사 재시공업체로 선정된 풍림산업에 선급금 24억1천만원을 지불, 공사재개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 선급금은 14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당초 중앙승가대와 용마건설과의 계약상 보험금인 28억원에 3억9천만원이 모자란 액수다.

이에 따라 당초 28억원의 보험금을 그대로 풍림산업에 선급금으로 지불키로한 중앙승가대는 추가로 3억9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러나 중앙승가대는 3억9천만원의 차액은 기성고부분(공사진행정도에 따라 지급된 대금)산정에 대한 시각차이에서 비롯된만큼 빠른시일내에 소송을 제기,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3억9천만원을 받아내 풍림산업에 지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사모임 논의

지역불자회 26일 회동

서울 · 경인교사불자회(회장 임완숙)를 비롯해 부산 전주 청주지역 및 직지사본말사 교사불자회 대표자들은 26일 광주 · 전남교사불자회(회장 김진택)가 주최하는 청소년불자 합동수계법회가 열리는 무각사에서 모임을 갖는다.

각 지역교사불자회 대표들은 이날 모임에서 내년초 (가칭)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립을 위한 계획 및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국대 학제개편 검토하자"

보광스님, '21세기 신교육 방향' 제시

동국대가 21세기 불교학 요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학제개편, 응용불교학, 포교사 양성, 불경전산화 등의 분야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동국대에서 '21세기 대학 신교육의 방향: 불교종립대학 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제10회 한 · 일학술교류회의에서 '종립대학에 있어서 불교학의 나아갈 방향'을 발표한 보광스님(동국대 불교학)은 "현재 동국대는 불교종립학교의 형식만이 남아있을 뿐 불교관련 학과나 연구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동국대가 본연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광스님은 "동국대는 '종합불교대학원'(가칭)을 신설해 일반불교학 · 인도철학 · 선학 등의 일반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화엄학 · 범패 · 정토

> "불교관련 연구 위축
> 응용불교학 등 강화
> 전문학위 과정 필요"

학박사 등의 전문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종래 석 · 박사 과정도 박사 전 · 후기로 나누어 지속적인 불학 연구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제포교학전공'과 '선문화전공' 등도 신설해 외국의 언어 · 문화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원천인 선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포교사를 양성할 것도 제안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종립대학인 대정대학의 경우 불교학과를 '인간학부'로 바꾸는 등 불교학 학제개편을 단행한 결과 지난해 '인간학부' 지원 경쟁률이 '5대1'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

보광스님은 "동국대는 세계 각국의 불교학자들이 한국불교를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며 "동국대 역경원이 한문경전 뿐 아니라 경전의 영역에도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역경원의 역할 확대도 주장했다.

오증욱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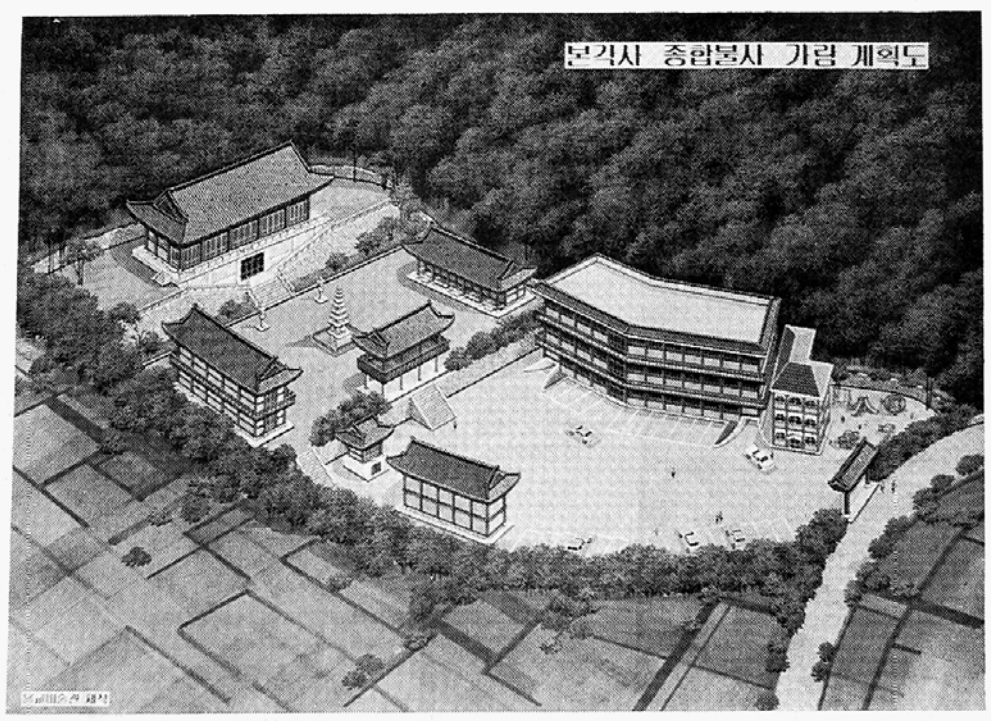
박구원



죽어서도 부처님곁으로

지장기도도량
천 왕 산

본각사 대웅전 예술인 법당 상량식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천왕산 본각사 예술인 법당은 서울의 국제관문인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에는 아름다운 시민공원과 목동신시가지 및 대규모 주택가를 포용하고 있어 포교의 요지임은 물론이요, 불자님들이 수행정진하기에도 천혜의 조건을 갖춘 이름난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이제 본각사 예술인 법당은 그 면모를 더욱 일신하여 만인의 귀의처가 됨은 물론 불자예술인들의 안심입명처로 거듭 태어나고자 대규모 중흥 불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의 대웅보전 예술인법당 대작불사는 물론 훌륭한 불교회관을 건립해 불자님들의 신행활동을 뒷받침하고 예술인들의 포교활동으로 만인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 첫걸음으로 삼존불과 사보살 오십삼존불 칠여래, 과거천불, 현재천불, 미래천불을 봉안할 웅장한 대웅보전 예술인 법당의 상량식을 그동안 법당건립을 위해 애써주신 각 사찰 스님들과 재가불자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봉행코자 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선근 인연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동참하시는 스님들과 여러 불자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불자연예인들의 장기자랑을 비롯한 위안잔치도 함께 할 계획이오니 이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1년 10월 일

-- 다 음 --

■일 시 : 불기 2541년(1997)년 11월 11일(음력 10월 12일) 오전 11시
■장 소 : 천왕산 본각사 예술인 법당
■증 명 : 서암 큰스님
■법 어 : 고불 큰스님
■문 의 처 : ☎(02)649-7357. 647-2649(종무소) (02)655-0533~4(예술인 법당건립추진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산8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천왕산 본 각 사
주지(대붕)벽해 합장

대한불자 예술인법당 건립추진위원회
회장 박 규 채 합장

고비 넘겼으나 '불씨' 남아

조계종 '합동징수' 합의…교계 평가

"종단이 실익을 챙겼다"
"분리징수 가능성이 남아있고 자율권마저 포기한셔사다"

산문폐쇄 시한을 하루앞둔 14일 조계종과 정부의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 관련 합의 내용을 보는 교계의 시각은 양분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는 합의가 됐지만 교계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에서 조계종이 무엇보다 큰 소득으로 꼽는 것은 자연공원법에 공원내 사찰의 기여도에 따른 수리 보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강제조항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공원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자연공원법에 명문화 한다'는 합의사항 제2항은 그간 조계종이 꾸준히 제기해 온 자연공원법 개정 문제의 핵심이 실현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실익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계종이 자연공원법 제33조에 신설할 것을 요구한 개정안의 내용은 '당해년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는 조항. 그러나 내무부측은 '…지원할 수 있다'를 고집했었다. 결국 최근의 분리징수 문제의 협상과정에서 내무부가 '…지원 한다'는 조계종 의견을 전격 받아들인 셈이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자연공원법의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찰의 기여도에 따른 입장료 일부의 지급문제를 정부와 조계종이 얼마나 설득력있게 조정할 것인지는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자연공원법 개정 '개가'

이에반해 합의사항 1항인 '국립공원내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조정은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관계기관이 협의한다. 협의된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에 한하여 합동징수한다'는 대목은 상당부분 반론을 사고 있다.

이미 90년부터 정부 3개부처 장관이 행정지침으로 약속했던 합동징수 원칙이 무너졌던 최근의 사례에 비추어 볼때 이 1항은 '협의가 안되면 다시 분리징수를 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자율화된 인상권한을 일부분 정부에 담보한 꼴'이어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조계종은 "협의라는 의미는 양측 모두가 최선의 결론을 얻어 합동징수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협의된 요금에 한하여 합동징수한다고 못 박은 것은 장차 종단이 관람료 인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사넘쳐 '목어' 쉽니다.

조계종이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공원입장료의 폐지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일단 유보적인 분위기로 남았다. 합의사항 3항인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문제는 국가재정 형편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한다'는 대목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총무원측은 "일단 내무부가 폐지의 의지를 보인 점은 진전이며 향후 종단이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반드시 폐지시킬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입장료 폐지 시한 정해야

그러나 이 3항은 해석하기에 따라 공원입장료 폐지는 소원해 질 수도 있다는 반론이 거세다. 국가재정형편 등을 고려한다는 것의 한계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9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원입장료는 국가 예산에 비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연히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감안, '정부재정 형편의 고려'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언제부터 폐지토록 한다는 시한을 확약 받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협의과정에서 관람료위원회가 지난 7월 1일자로 인상한 문화재 관람료 가운데 일부 사찰의 요금을 인하 조정한 것도 반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총무원은 "화엄사등 5개사찰의 관람료가 1백원 내지 2백원씩 인하 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인상을 시행하지 못했던 백련사등 5개 사찰은 1백원 내지 3백원 인상조정 됐다"며 이 조정안은 당해사찰과 사전에 협의 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자율화에 따라 인상했던 요금이 한 푼이라도 인하조정된 것은 합의문 제1항의 맹점을 벌써부터 보여준 실례가 아니냐"는 반론이다.

총무원의 긍정적 자평과 교계 일각의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가장 높게 반대의사를 외치는 곳은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이다.

이 모임의 회장 설조스님(불국사주지)은 16일 "총무원의 합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주지모임의 13일 결의사항을 추진할 방침을 시사했다. 한 합동징수사찰인 본사주지스님도 "굴욕적인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24일 신흥사에서 열리는 주지모임에서 총무원을 강도 높게 규탄할 것이다"고 말했다.

본사주지스님들의 이같은 반응은 이번 합의를 둘러싼 조계종단의 내홍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내홍의 분위기는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총무원과 본사주지모임 스님들이 정부와의 협의 직전에 만나 나눈 대화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총무원 기획실장 지홍스님은 "본사주지모임 스님들이 14일 오전 총무원을 방문 했을때 정부와 협의할 내용을 설명했고 본사주지모임의 요구에 따라 협의에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했었다"며 "그러나 스님들은 협의안에 대해 '자율권 포기'는 지적했으나 협의불가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 동행의사도 없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종단의 협의 결과가 발표된 후 설조스님은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입장료 폐지는 1년 내지 2년내로 확실히 된다고 확언을 해 협의안들이 입장료 폐지 이전의 경과조치인줄 알았다"며 최종 협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와 최종 합의를 한 총무원과 '산문폐쇄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본사주지모임의 향후 행보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팽배하다.

교계 일각에서는 그간 정부를 상대로 갈등해 오던 종단이 같은 사안인 관람료 문제로 내부갈등을 겪는 것은 대외적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임연태 기자

시찰명	문화재관람료 '96 최종	'97 인상 결정액	'97. 9 현재징수액	협의 조정
19개소	1,500~700	2,000~1,000	1,500~700	1,500~1,000
화엄사	1,200	1,500	1,500	1,400
천은사	700	1,000	1,000	1,000
연곡사	700	1,000	1,000	1,000
쌍계사	1,000	1,200	1,200	1,200
동학사	900	1,200	900	1,000
갑 사	900	1,200	1,200	1,000
신원사	900	1,200	1,200	1,000
신흥사	1,000	1,200	1,000	1,200
법주사	1,300	1,500	1,5000	1,500
내장사	800	1,000	1,000	1,000
백양사	1,000	1,200	1,200	1,200
해인사	1,500	2,000	1,500	1,500
백련사	700	1,000	700	1,000
월정사	1,000	1,200	1,200	1,200
대전사	800	1,200	800	1,000
구룡사	800	1,200,	1,200	1,000
희방사	700	1000	700	1,000
도갑사	800	1,000	1,000	1,000
내소사	800	1,000	1,000	1,000

"실익챙겼다" - "자율권 포기" 시각차 뚜렷

교구본사 주지모임 "합의 인정 못한다"

장의포교에 새바람이 불고있다. 부천 석왕사가 사찰차원에서는 최초로 경내에 장례의례 종합법당을 개원했다. 또 (재)대한불교 보현원(이사장 도각스님)은 99년까지 경기도 양평 15만평에 사찰과 납골당 공원묘원등을 조성하고 있다. 국도이용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장의포교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즈음 불교장의 포교문화를 일구는 두 스님을 만났다. 〈편집자 주〉

장의포교 나 자영

양평공원묘원 추진 도각스님

"타종교인도 죽으면 절로"

지난80년, 납골당등 화장장의에 대해 아무도 생각 못했을때 양평에 15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장의포교를 차곡차곡 추진해온 도각스님(보현원 이사장)은 근사한 서울사무실을 개원한 그날 과로로 병원에 입원, 참석조차 못했다. 스님의 노고를 지켜본 많은 축하객들은 안타까움과 감동으로 더른 발전을 기원했다. 스님은 이 불사를 "죽으면 절로 간다"는 궁극적인 포교를 위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 17년동안 추진해온 일인데, 공사는 어느정도 진행됐습니까.

▲법적으로 정식허가가 난 것은 3년전입니다. 숙원불사지요… 현재 묘지조성이 약 3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선견지명이 있으셨는데 이 불사를 하시게된 직접적인 동기가 궁금합니다.

▲일본은 2차대전 패망후 8천명의 선교사가 들어왔으나 불교나라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기에 그의 1%에 불과한 선교사가 왔음에도 기독교계통의 선교성과가 크게 나타난 현실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살펴보니 바로 절의 납골당이었습니다. 일본인은 죽으면 절로갑니다. 설사 다른 종교를 갖었어도 결국 부처님곁으로 간다말이지요. 사찰의 공원묘원은 포교의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 선구자는 외롭고 힘든위치입니다. 어려움도 크셨을텐데요.

▲물론 불사 규모가 크다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난마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수행자로서 말못할 고통은 숨어서 일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이 불사가 당시만해도 혐오사업의 하나에 속하니 드러내고 설득하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위영란 기자〉

왕생극락전 개관 영담스님

"장례 서비스 새전기 마련"

- 교계 최초로 경내에 장례의례 종합법당 '왕생극락전'을 개관하셨는데 의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에게 생사(生死)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불교계는 이러한 사회 현상적 문제를 소홀히 여겨 왔고, 때문에 임종에 임박해 개종하는 불자들을 지켜보기도 해야 했습니다. 왕생극락전은 장의에 대한 불교계 및 불자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고 건전한 장례문화를 형성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왕생극락전의 규모와 부대시설 궁금합니다.

▲왕생극락전은 70평 단층법당에 임종법당 안락정토, 빈소 도솔천궁 2개소, 납골당 영묘각 4백기, 영안실 왕생당 2개소, 냉동보관소 4개소, 장의용품판매소, 사무실을 갖췄습니다.

- 일반 장의예식장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승종직전 부처님 곁에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꾸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임종전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24시간 응급차가 출동, 이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수의, 관 등 일부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이 무료로, 기존 장례문화에 대한 부조리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수의 관 등이 시중가의 1/3에 불과하죠.

- 향후 장례서비스 계획에 대해 귀띔해 주신다면.

▲우선 열린공간으로서의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108 상조회 자원봉사단' 구성이 그 획을 같이 할 것 입니다. 그리고 99년이후 가족묘지를 마련해 무료로 사용토록 할 뿐만 아니라 2천년경에는 2~3만기 수용 대규모 납골당 건립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장례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필선 기자〉

"참회하는 삶 위한 바람(願) 정진(力)"

현대불교 창간 3주년 철야기도

3천배 대법회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주년을 맞아 불교계와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참회하는 삶'을 위한 3000배 바람(願) 정진(力)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법회는 현대불교신문이 올해 연중으로 벌이고 있는 '참회의 삶을 살자' 캠페인의 실천행사이기도 합니다.

3000배기도는 불자라면 간절한 발원의 성취를 위해 평생 한번쯤은 수행하고 싶어하는 신행의 상징입니다. 평소 3000배 기도원력이 있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기회가 적절치 않았던 분 등 많은 분들이 동참해 3000배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기도포를 드립니다.

행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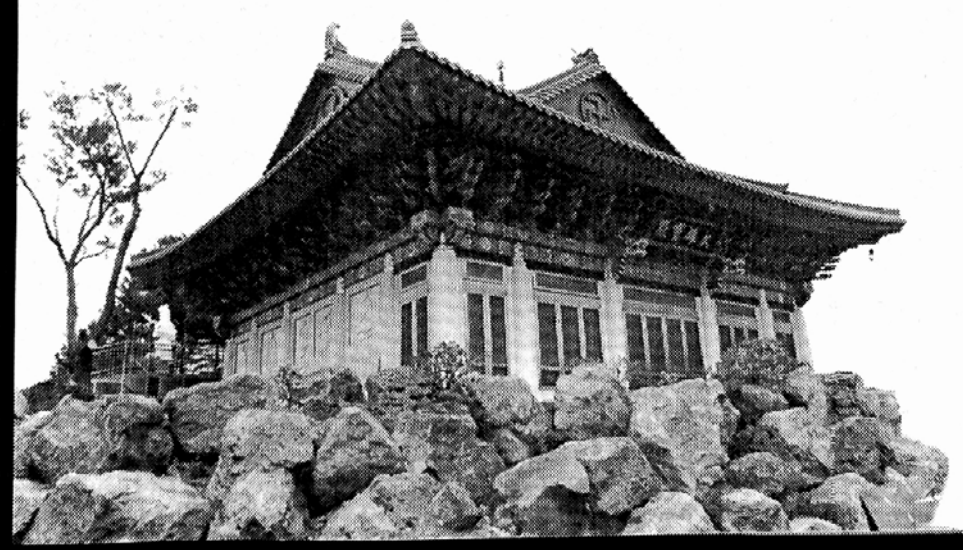
△입 제: 1997년 11월 1일(토) 오후4시
△회 향: 11월2일(일) 오전5시(새벽예불후)
△장 소: 참회도량 삼각산 도선사
△참석인원: 사부대중 1천명(선착순)
△동참비: 5천원
△일 정
입제식→5백배씩 하고 10분씩 휴식→저녁공양 간식공양→새벽예불→회향식
△준비물: 수건, 작은 개인 물통, 따뜻한 겉옷
△접 수: 현대불교신문 (02)737-8881
△은행계좌: 국민은행 023-21-0631-145(예금주 최상철)
(입금후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 지하철 4호선 수유역하차 3번출구로 나와 일반버스 6번, 6-1번을 타고 종점서 하차. 종점 맞은편에 도선사행 절버스 대기.

※ 가족이나 단체단위로 참가하시면 더욱 뜻깊을 것입니다.
※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은 앉아서 동참하는 방편도 공덕이 된다고 故 백선엽스님은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동참원력이 귀하다 하겠습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 · 도선사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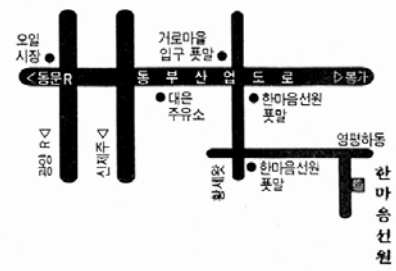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대웅전 낙성식

■ 일시 : 1997년 10월 26일 11시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부처님의 집을 장엄함이
이 땅을 불국토로 가꾸는
첫걸음으로 알고,
대웅전 신축의 원을 세운
저희 한마음선원 제주 지원이,
대행 스님을 모시고
대웅전 낙성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오늘의 이 법열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지 원 장 혜 해
신도회장 문경행
합 장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번지 / 전화:064-21-4662 / 팩스:064-21-0302



부산 대불련 법회서 법문



서암 前 조계종 종정 스님은 26일 오후1시 부산 동아대에서 열리는 대불련 부산지부 창립 32주년 기념 '북녘어린이돕기 큰스님 초청법회'에 참석, 법문한다.

무주에서 방생법회



정락 수원 용주사 스님은 29일 무주 안국사 일대서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전불련 민족불교학당 개강



지선 전국불교운동연합 의장 스님은 14일 제18기 민족불교학당 개강식을 同법당에서 가졌다.

삼화사 적광전 철불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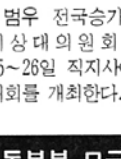
원행 삼화사 주지는 적광전 복원 신축완공 철불봉안 점안 법회를 28일 오전10시 봉행한다. 이날 전안되는 철불(지방문화재 11호 노사나불)은 적광전 복원 과정에서 출토된 7개의 파편을 근거로 원형복원한 것이다.

'생명운동' 환경 워크샵



법륜 한국불교환경교육원장 스님은 11~12일 부산 금강국민호텔에서 '전환시대 생명운동의 새 지평을 위하여'를 주제로 환경워크샵을 가졌다.

복지기금 마련 성지순례



지도 대구불교사회복지회장 스님은 25~26일 법흥사, 상원사, 정암사 등지에서 만성질환 독거노인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경주시내 환경정화 운동

돈관 한국불교사회연구원장 스님은 26일 녹색환경 감시단과 함께 불국사 성지순례 및 경주시내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한다.

제주지원 대웅전 낙성법회

혜해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장 스님은 26일 72평규모의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연등저금통 모금 전달

평중 서울 영화사 주지는 16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교사회복지 재원마련을 위해 배포한 포대화상 및 연등저금통 10개에 모금된 27만6천원을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장산지역 문화재 애호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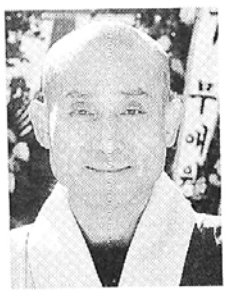
광명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부산지역 밀엄사 분회장 스님은 19일 중·고등학생 50여명 참여한 가운데 장산 성불사 참배 및 인근지역 문화재 애호활동을 펼쳤다.

직지사서 '97 학인대회

범우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비상대의원회의장스님은 25~26일 직지사에서 '97 학인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군인에 우리문화 교육"

강화 전통문화硏 추진 설봉 스님



"강화는 고려때 팔만대장경을 조성했던 유서깊은 불교문화의 고장입니다. 이 역사의 고장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찬란한 불교문화의 향기를 접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강화도 하점면 사직골 무애원에 법당과 함께 전통문화연수원 건립불사를 추진중인 설봉스님(무애원 주지).

지금까지 천막을 치고 어린이, 청소년, 군인들을 대상으로 도예 등 전통문화를 가르치며 전법활동을 펴 온 설봉스님은 "연수원이 완공되면 종교를 초월해 어린이 청소년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기공식을 가진 전통문화연수원은 건평 130평으로 식당 기숙사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오는 99년 완공될 예정이다.

〈숙〉

동대서 '문학과 인생' 특강



서정주 시인은 동국대 사회교육원 초청으로 25일 오후2시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문학과 인생'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21세기와 동양사상' 특강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23일 오후3시 본관 중강당에서 '21세기와 동양사상'을 주제로 공개특강을 연다.

'서울 문화유산' 학술대회

김영상 서울문화사학회장은 1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문화유산의 보존관 현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네팔 직업교육센터 기공



김동흔 이웃을돕는사람들 이사장은 네팔 수도 카투만두에 건립되는 직업교육센터(가칭 '부다헬핑센터') 기공식에 참석하기위해 23일 출국한다.

'98 사진 영상의 해 조직위원장 임응식씨



'98 사진 영상의 해를 이끌어 갈 조직위원장에 원로사진작가 임응식(사진 左)씨가, 집행위원장에 이봉하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사진 右)이 13일 각각 선출됐다. 이제 앞서 송태호 문화체육부 장관은 육명심(한국사진가협회 이사장), 홍순타(신구전문대교수)씨 등 19명을 조직위원으로 의촉했다.



◇이병주씨 ◇박충일씨 ◇장일남씨 ◇서희건씨

제46회 서울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

이병주 동국대명예교수(인문사회과학 부문)와 박충일 대한인쇄문화협회장(출판), 장일남 한국작곡가협회부회장(음악), 서희건 월간조선부장(언론)이 서울시 주최 제46회 '서울시 문화상' 부문별 수상자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시인의 날인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스님되는 수계산림 수강 '열기'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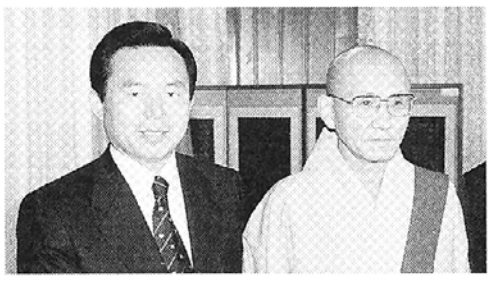
새 스님 배출을 위한 조계종 제18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11일~18일)에서 13일 승가고시를 치르고 고불식을 마친 뒤 예비스님들의 강의시간.

가슴에 단 '묵언' 명패, 대 사문의 길을 발원한 간절한 원력이 담긴 표정이 진지하고 의연하다. 숨소리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경건한 분위기속에서 예비스님들은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율장에 의해 배우는 〈대애도경〉을 낱낱이 익히고 있다.

6년전부터는 비구니스님의 출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도 총 390명(사미213명, 사미니 177명)의 예비스님들이 접수 해 233명(비구 163명, 비구니 170명)이 정식스님이 되었다. 이제 이들은 미래 우리 승가를 이끌어갈 주역이될 것이다.

양산 통도사=김원우 기자

불심잡기 바쁜 대선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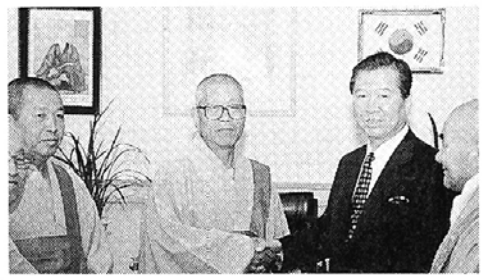
이인제후보 월주스님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5일 이인제 前 경기지사 예방을 받고 공명선거를 당부하며 '대통령후보에게 드리는 글'을 전했다.

장을병 국민신당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예방한 이인제후보는 "정치판이 날로 혼탁해져가고 있어 국민신당의 출범은 필연적이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정치를 펴겠다"고 말했다.

월주스님은 "낡은 정치가 하루속히 청산되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다. 우리 종단에서는 공명선거에 최선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월주스님은 이에앞서 14일 홍사덕 정무제1장관의 예방을 받고 공명선거 실현에 대해 환담했다.

대선을 앞두고 사회와 종교계 원로들을 방문 공명선거를 위한 자문을 받고있는 홍장관은 "불교계의 청정정신이 바른 선거문화를 이루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대중후보 인곡스님 방문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은 13일 총무원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대통령후보의 태고종 총무원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국민회의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인곡스님은 조·태분규에 대해 설명하면서 "태고종은 과거 정치권력의 탄압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태고·조계 분규는 정치적으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애 부총재를 비롯 조성준, 추미애 의원들과 함께 자리한 김대중 후보는 중세 가톨릭과 로마정권을 예로 들며 "권력이 종교와 결탁하면 반드시 부패한다"고 전제하고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김후보는 또 "2천5백년 전 부처님의 '인간평등선언'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것이었다"며 "불교신도는 아니지만 불교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종교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영복여고 516,380원 △성균관대 경북고동문회 50,000원 △최희숙 361,000원 △김남선 135,000원 △최미인 100,000원 △김선우 100,000원 △유한택 65,000원 △신은영 60,000원 △임성희 50,000원 △토마스 호락 50,000원 △차분성 40,000원 △신희섭 40,000원 △정종전 30,000원 △김화지 30,000원 △이동찬 30,000원 △김명순 30,000원 △이연이 30,000원 △김영신 30,000원 △지원명 20,000원 외 △한 끼 굶기운동 1,171,000원 △기타(은행이자) 216,778원 〈15일 현재 총 837,983,552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불자예술인 4명 문화훈장등 수상

제2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및 문화훈장,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에 불자 예술인 4인이 각각 선정됐다.

△보관문화훈장=김응현(서예가) △은관문화훈장=박재삼(시인, 작고), 이은구(이천문화원장) △문화예술상(공연예술부문)=강유정(극단 여인극장대표)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미술부문)=강익중(서양화가)

"스승 은혜에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불교대사전' 불사 5천만원 낸 황상주 관장



"5천만원이 저로서는 적지않은 금액이지만 지관스님께서 추진하시는 〈불교대사전〉 총 15권중 1권을 겨우 출간할 정도일 뿐이지요. 〈불교대사전〉 출간이라는 대불사에 작은 주춧돌 하나 놓은 마음입니다"

지난 1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에서 추진하는 〈불교대사전〉 출간에 써달라며 사재 5천만원을 기부한 황상주 교수(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장). 현역교수로서 불교사전 출판기금을 보시해 화제가 되고있다.

한때 해인사에서 출가, 지관스님의 제자이기도한 황관장은 "불교학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우리말 〈불교대사전〉의 대역사가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며 "이번 기부는 은사스님이 주신 큰 은혜에 보답하는 작은 '보은'일 뿐"이라고 말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사전 편찬은 전문·상임 연구원 25명이 투입되고 연간 4억여원이 소요되는 대불사. 그러나 지속된 경기침체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온 기업의 지원비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황상주관장은 "많은 사람들이 건축불사 못지 않게 〈불교대사전〉 출간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며 대중들의 관심과 지원을 희망했다.

오종욱 기자

쌍계사 승가대학인 모집

쌍계사 승가대학 1997학년도 편입생 및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 모집학과 : 사미과(치문과) …… 00명
  사집과(편입생) …… 00명
- 입학자격 : 사미계 수계자, 사미과 수료자(편입생)
-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 1부
  ② 은사스님 추천서 …… 1부
  ③ 승적사본 …… 1부
  ④ 주민등록등본 …… 1부
  ⑤ 사진(3cm X 4cm) …… 3매
  ⑥사미과 수료증(편입생) …… 1부
- 준 비 물 : 대가사, 오조가사, 장삼, 발우
- 전형방법 : 서류접수후 면접
- 모집기간 : 1997년 10월 10일 ~ 11월 10일
- 문 의 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쌍계사 승가대학 ☎ (0595)83-1906, 종무소 83-1901

불기 2541년 10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13 교구본사 **쌍계사승가대학**

학 장 선 곡

장관 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호국참회기도도량

삼 각 산

도 선 사

주 지 차 동 광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 종무소 : 993-3161~3 ■ 주지실 : 993-5002

■ FAX : 993-3164

탐방 하이텔 칠연회

"사이버 접속 'PC불심' 나눠요"

장애인·봉사자등 회원 5백50명
경조사·수련회 통해 신뢰감 다져

"관세음보살님, 정신적 육체적 장애와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용기와 지혜가 충만하도록 자비의 미소를 보이소서."

11일 밤 신탄진 보현불교대학 수련장.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하이텔불교동회(대표시샵 김주서·이하 하불동) 소속 칠연회(회장 이승덕) 회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불자 박종필(24·ID: CAPBOY77)씨가 직접 쓴 발원문을 낭독하며 '참 불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서원했다.

칠연회는 장애불자 50여명과 자원봉사자 500여명으로 구성된 하불동(전체회원은 3500여명)내 최대의 전국모임. 이날 모임은 칠연회의 제6회 전국모임 및 수련회로서 장애회원 15명을 포함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말이라 교통이 막혀 1시간 늦은 저녁 8시 저녁공양을 시작으로 수련회가 시작되었지만 피곤한 기색도 없이 평소 컴퓨터 '접속'을 통해 익히 사귀어 온 법우들과 정담을 나누기에 여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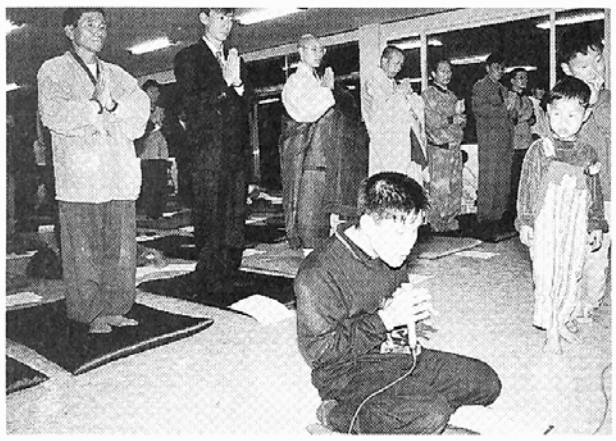
9시부터 시작된 예불에는 몸이 불편한 회원들도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 이어 장애법우들을 돕기 위한 경매코너에는 차(茶) 수석 그림 조각품 찻상 화장품 등 30점의 물품이 나와 81만원에 경매되었다. 이날 모금한 액수는 경매금과 지도법사인 서울 보문사 주지 정진스님과 성우스님(안국사) 등의 보시금을 포함한 238만원. 장애법우들을 위한 통신비 지원과 법회 운영기금 등으로 쓰이게 된다.

10시30분부터는 레크리에이션 시간. 장애법우들을 등에 태우거나 안고 달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는 촛불관음탑돌이. 이날따라 유난히 밝은 달과 별을 보며 관음정근으로 번뇌를 씻어내린 시간이었다.

칠연회(초대방장 강기택)가 결성된 것은 지난 95년 3월. 한 장애불자의 "우리도 절에 가서 법문 듣고 싶다"는 작은 소망으로 시작, 7명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힘을 모아 신행을 펼치자는 원력을 냄으로써 PC통신 내 가장 특색있는 모임으로 성장했다. 평소 통신을 통해 부처님 법을 배우고,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 신뢰를 쌓아온 회원들은 1년에 두 차례 이상 사찰에서 부처님과 회원들의 얼굴을 본다. 모임이 있을 때면 승용차가 있는 법우들이 집에서 행사장까지 데려다 준다. 지난해부터는 칠연회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일반 불자들의 가입이 더욱 늘고 있다.

김성란총무는 "불교동호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80%는 PC통신을 통해 비로소 불교와 인연을 맺는다"면서 "장애법우와 불교동호회 회원들이 서로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한마음이 되는 이 공간은 PC통신 포교의 싸이버 법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탄진=김재경 기자



◇11일 신탄진 보현불교대학 수련장에서 열린 칠연회 수련회에서 장애불자 박종필씨가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백양사서 '청정운동실천' 전국대회

청정운동추진위원회(총재 서돈각)는 12일 백양사에서 청정운동실천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천운 대둔사주지, 지신 백양사주지스님을 비롯 김홍식 장성군수등 사부대중 1천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는 백양사 경내 정화활동, 백암산일대 자연보호표지판 설치, 자연과 인간의 공생원리 강연(박성배 동국대 석좌교수), 국악한마당 등이 펼쳐졌다.



대전·충청지역 포교지단 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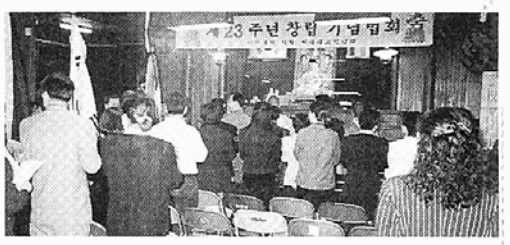
올 하반기 조계종 포교사연수교육이 12일 대전과 전주에서 실시됐다. 대전중앙불교회관에서 실시된 연수교육에서는 대전·충청지역 포교지단 발대식도 갖고 지단장에 철웅스님(마곡사 주지)을 추대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포교원장 성타스님을 비롯 충청지역 포교사 70여명이 참석했다.

포교사교육은 19일 서울 조계사, 대구 동화사에 이어 26일 동래 법륜사에서도 실시된다.



불광사 창립23돌 기념행사 다채

불광사·불광법회(법주 광덕스님) 창립23주년 기념법회가 12일 서울 석촌동 불광사에서 3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1부 법요식은 불광법회 초대회장 한탑스님의 기념사, 조계종중앙종회 의장 설정스님의 격려사, 부법주 지환스님의 법어, 주지 운암스님의 축원, 공로패 수여 및 유공자 표창, 학생글짓기·사생대회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2부 기념행사는 바리밀장터로 꾸며졌다.



서울불청 창립 23돌 기념법회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는 10일 조계종 불교회관 1층에서 제 23주년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도문스님(대각사 주지) 법현스님(천중사 부주지) 덕신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국장) 이상번 불청중앙회장 등 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으며, 이성현 정찬근씨가 각각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불청중앙회장상을 수상했다.

부산불교의 현시점을 살펴보고 미래의 모습을 조명해 보는 세미나가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21세기 부산불교 중흥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22일 국제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불교세미나가 바로 그것. 부산불교신도회 주최, 부산불교교육대학 주관으로 열리게 될 이 세미나에서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바람직한 역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찰의 공간활용' '부산불자들의 신행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각각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1세기 부산불교중흥방안' 세미나

"수행력 갖춰야 부산불교 발전"

기복탈피·가족포교·경전읽기 등 제시

이들 주제발표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장광명(밀엄사 포교당)법사의 '부산불자들의 신행현황과 개선방안'. 부산불자들의 신행형태와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그 통계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기획상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부산불자들의 신행형태를 가늠케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인, 불교청년회 소속회원, 불교지도자,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연령별 불교신행의 차이가 특색있게 나타나고 있다.

불교를 믿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60대 이상의 연령은 복을 받기 위해(48%)와 20~40대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전체응답자의 7%에 불과했다. 부산불교의 미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 이상이 희망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21세기 부산불교 발전의 원동력으로 수행자의 수행력(24%)이라고 응답해 수행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총 22문항의 설문을 통해 장광명법사가 제시하는 부산불교 발전방안으로는 기복불교 탈피, 정기법회 생활화, 가족포교 우선, 불교경전이나 서적읽기 장려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신행이 현대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부산불교를 위해서는 불교회관 건립을 비롯 재적사찰 갖기, 사찰이나 신행단체 법회참석 등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법사의 지적이다.

22일의 이 불교세미나가 부산불교의 현재를 딛고 보다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산불자들의 동참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천미희 기자

청소년불자 3천명 탄생한다

광주전남교사불자회 26일 수계법회

지역불교 11개단체 후원

영남에 비해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호남에 불교중흥의 서광이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교사불자모임(회장 김진택·전남여상고 교사)이 26일 무각사 잔디밭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여는 '광주·전남 청소년 불자 합동 수계법회 및 축제 한마당'을 통해 3천여명의 청소년 불자가 새로 탄생된다. 대둔사 주지 천운스님을 계사로 봉행되는 이번 수계법회에는 초·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 및 사찰 중·고등부 학생회 회원들과 지역 문화답사반, 일반불자들이 대거 참석하게 된다.

지역불교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이번 법회에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불교승보회 광주불교능인회 등 11개 단체가 후원하고 있으며, 다정스님(나주 문성암)이 특수제작한 관음보살목걸이 3천개를, 능인회가 단주 3천개를 보시하고 영조(광주불교교육원) 벽상(천용사)스님이 후원금을, 모 보살이 3천명 분량의 떡을 보시하는 등 지역불교계가 모처럼 한마음이 되어 청소년 포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날 수계제자 중 70명에게는 장학금 700만원을 나눠주고, 광주청년회 밴드부의 공연등 청소년 축제 한마당도 펼쳐질 예정이어서 교육계의 관심도 끌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교육청과 서울·경기지역교사불자회 관계자들이 참관한다.

수계를 원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참가 가능. (062)525-8662

우리 모임에선

경주 정각원 1천명 수계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도업)은 22일 오후 3시30분 교직원·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연다.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을 계사로 열리는 이번 법회에는 학생 600명등 1천여명의 불자가 수계받는다. (0561)770-2016

청주신행회 미평고 위문

청주불교신행회(회장 신호식)는 25일 미평고등학교(舊 청주소년원)를 방문, 불교학생회(지도법사 박종) 회원 80명과 함께 법회를 본후 간식을 나눠먹으며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매월 셋·넷째 토요일 소년원을 방문, 간식을 제공하고, 매주 일요일 불교학생회 법회를 지원하고 있는 同회는 회원 250명을 6개 구역으로 나눠 무의탁 독거노인 집을 방문,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0431)53-3882

대전운불회 복지회관 지원

대전운전기사불자회(회장 박영조) 회원 40명은 15일 한마음복지회관을 방문, 세탁기등 2백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한편 대전운불련은 24일 여수 향일암으로 사찰순례를 떠난다. (042)626-6463

대광맹인회 50명 수계

대구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10일 자체법당인 광명사에서 창립6주년 기념법회 및 제3차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 이날 법회에서는 지도법사인 만권스님과 맹인불자 가족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했으며 50명의 회원이 보살계를 받았다. (053)253-0755

원각사청년회 18돌 행사

광주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김종주)는 24일 오후7시30분 고려시멘트 2층 신명아트홀에서 창립 18주년 기념 원각회의 밤 행사를 갖는다. 이날 법회에는 서울 조계사청년회와 교류법회도 가질 예정이다. (064)223-3168

우리는선우 정기수련

우리는선우(이사장 남지심)는 25, 26일 양일간 김제 금산사로 가을 정기수련회를 떠난다. 이번 수련회는 결사선우 증명식과 도법스님의 법문, 분과별 토론, 익산 미륵사지 참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회비는 4만5천원. (02)278-8672

부산운불회 생활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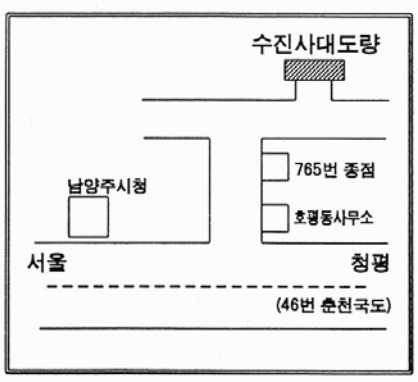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 창립9주년 기념법회가 16일 코모도 호텔 충무홀에서 정관 전 범어사주지, 혜총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4백여 운전불자회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동구의 이용수 할아버지를 비롯한 15명의 노인들과 감천청준복지노인대학 시설비 지원 등 총 3백3십만원을 전달했다.

유료양로원 입주자 佛子5명만 찾습니다.



한 생각이 세계를 창조한다

한생각 진실한 때가 부처의 마음이요.
한생각 자비한 때가 보살의 마음이요.
한생각 깨끗한 때가 성문의 마음이요.
한생각 고요한 때가 연각의 마음이요.
한생각 착한 때가 천상의 마음이요.
한생각 정직한 때가 인간의 마음이요.
한생각 투쟁한 때가 수라의 마음이요.
한생각 어리석은 때가 축생의 마음이요.
한생각 탐욕한 때가 아귀의 마음이요.
한생각 성난 때가 지옥의 마음이다.



귀의 삼보하옵고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천마산 중턱 산자 수명한 곳에 자리잡은 수진사 대도량에 4층으로(건평 620평) 건립중인 관음전 내 3층에 유료양노원을 1급호텔 시설수준으로 만들어 선착순 불자 5명만 입주 시킵니다.

- 준공일은 98년(음)3월3일 예정
- 입주금은 7천만원
- 숙식제공및 지정종합병원 알선
- 사후 사망시 장례및 49재 봉행해 드립니다.

※ 버스노선

서울경동시장-남양주시 호평동종점(765번 좌석)
마을버스 : 도농3거리-수진사까지(100번)

연락처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
☎ (0346)591-7710, 3364

천마산 수진사 주지 전남정 합장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법회안내

천불사 (0523)82-1463
화엄기도 매월말일~다음달 2일(음) 오후1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 오전10시
관음자일법회 매월24일 오전10시


◇주지 도봉스님

춘천 석왕사 (0361)52-5040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강원불교대학강좌 매주 목요일 저녁7~9시


◇주지 백운스님

부산 해월정사 (051)741-7762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고등학생법회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3시

법륜왕사 (02)934-8657
선지식 초청법회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7시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참선법회 매주 월·목요일 오후2시

삼충사 (0441)847-7296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청평사 (0361)54-1092
일반신도법회 매월1·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참선으로 맑은마음 찾자

가속화된 상품주의 문명이 토해내는 수많은 언어와 욕망의 공해를 참선으로 정화해 보자. 수선회(회장 김영대)는 10월24일부터 11월7일까지 6주간 본회 선방에서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김영대회장의 지도로 매주 화·금요일 주2회 개최될 이번 강좌는 △24일 참선의 종류 △28일 선종 발달사 △31일 화두 참구법 △11월4일 화두의 중요성 △7일 선방의 법도 등의 일정으로 진행.

체계적인 이번 교육에 동참해 바른 신심을 갖고 수행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02)732-5960

삼보마다 일배 탑돌이

세걸음 걷고 절 한번하고 또 세걸음에 절 한번…. 이렇게 삼보일배를 하며 탑돌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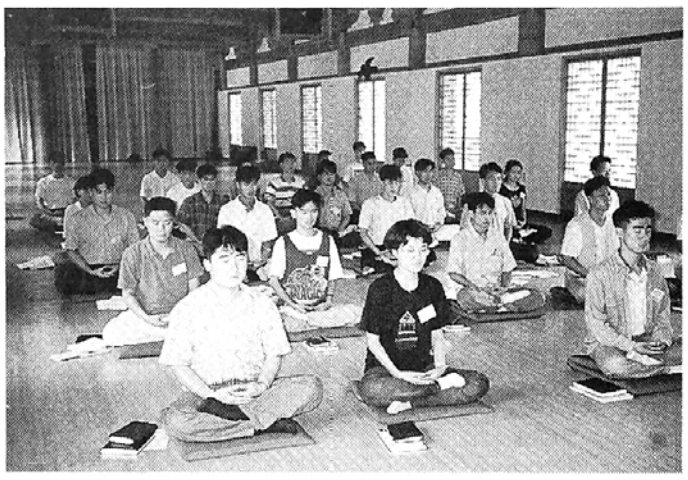
파라미타 경주지회(지회장 성형스님)는 26일 불국사(설조스님)에서 '삼보일배 수계 및 탑돌이 법회'를 연다. 청소년 및 일반불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법회는 3명이 1개조로 불이문에서 청운교, 백운교, 자하문까지 삼보일배를 하는 일정으로 마련된다. 이어 다보탑과 석가탑에서 탑돌이 행사를 갖고 무설전에서 수계법회를 갖는다. 한편 이날 법회는 육법공양, 도량청소활동등도 곁쳐 불심증진과 봉사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561)746-9912

송광사 무박2일 수련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현고)는 고즈넉한 산사에서 철야 용맹정진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한껏 즐길 수 있는 25~26일 무박 2일의 원족(遠足) 수련법회를 연다.

25일 송광사 사자루에서의 철야정진·새벽예불, 26일 천자암·굴목재 산장 순례, 선암사 참배·회향으로 진행될 수련법회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듯하다.

동참금 1만5천원. (0661)755-0107


◇한국불교 전통적인 수행법인 참선. 그러나 재가불자들이 접근하기엔 쉽지 않았다. 최근들어 참선입문자를 위한 강좌가 개발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직지사에서 열린 참선수련법회 모습.

법정스님의 감로법문

텅비어 있을 때만이 새것이 들어찰 수 있다는 텅빈 충만을 강조하신 법정스님(맑고향기롭게모임회주).

길상사(주지 청학)는 11월4일 길상사 법당에서 창건기원 법정스님 법회를 봉행한다.

12월 개원에 앞서 마련되는 이번 법회는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법정스님의 감로법문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법회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불자들에게 감로수 같은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맑고향기롭게모임은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할 차량 이동 봉사도 실시한다. (02)3672-5945

'각설이타령' 생활법문

'각설이타령과 함께하는 부처님 말씀.' 얼핏 서로 연결되지 않을듯한 제목의 법회가 열린다. 부처님 말씀을 쉬운 생활 속의 일화들로 풀어 대중포교에 힘쓰고 있는 밀양 선우사 주지 지연스님을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흥기)가 초청하여 법회를 연다. KBS 일요특강에서 지혜롭게 사는 여성으로 홀을 가득메운 청중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던 지연스님의 살아있는 생활법문을 만나게 되는 법회가 될듯 싶다.

26일 오후 6시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있게 될 이번 법회는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끼던 법회에서 탈피, 신명나는 법회를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051)867-8048

불우이웃 따뜻한 겨울을

바람이 한결 차가워진 가을, 외로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바자회가 열린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에서는 10월31일과 11월1일 양일간 무의탁 독거노인 및 불우아동 겨울준비를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는 먹거리, 생활용품, 의류 등이 판매될 예정이어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전망. (02)985-0161

새도약 꿈꾸는 대불련

대불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자.

불교의 대학생 포교를 위해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있는 대불련 청년불자들은 '대불련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하루잔치'를 준비, 대불련 선후배가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약의 시간을 꿈꾼다.

25일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조계사 부근 패미리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대불련이 참된 청년불자로 거듭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2)723-5850

신행수첩

게 시 판

♣ 알림

△찬불가 경연대회=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회장 정여)는 22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부산경남 불교어린이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12회 찬불가 경연대회 및 연꽃한마당을 펼친다. 찬불가, 독경, 민속놀이 한마당으로 꾸며지며, 접수마감은 22일까지. (051)819-3785

△한정섭법사초청법회=혜광맹인불자회(회장 김무봉)는 맹인학교 출신모임 문수반동문회와 함께 26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한정섭법사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051)462-3292

△동창회=중앙승가대 제3회 동창회(회장 해관)는 22일 오후2시 개운사에서 정기동창회를 개최한다. (02)924-3841

△체육대회=능인선원(원장 지광)은 30일 오전10시 잠실종합운동장과 실내 체육관에서 제2회 능인체육대회를 갖는다. (02)577-5800

△광릉수목원 나들이=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28일 광릉수목원으로 장애인 야외나들이를 떠난다. (02)852-0525

♣ 모집

△학인=영산율원(원장 철우)은 11월5일까지 기초과정을 이수할 학인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3년이며 제출서류는 승려증사본과 은사스님 추천서. (053)984-4550

△성지순례단=반야여행사(대표 현근스님·조계사 주지)는 11월7일까지 중국 성지순례단을 모집한다. 구화산, 황산, 보타산 등지를 7박8일 일정으로 답사. (02)730-0020

△어린이 합창단원=분황사(주지 종수)는 선재어린이합창단을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초등학교 3년에서 6년의 어린이로 25일 불교교육원에서 실기시험 후 선발. (0561)42-9922

△파출원교육생=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제7기 파출원 교육생을 뽑는다. 선착순 40명이며 교육기간은 11월3~7일 오후1시~5시. (042)633-1141

♣ 전시

△도자기 전시=열린가람 학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난승)은 26일까지 무료양로원 건립을 위한 도자기 전시회를 연다. (0562)44-3222

△서화전시회=국립전주박물관(관장 이종철)이 11월9일까지 '묵향과 채색의 마음-石田 황욱·碧川 나상목의 書畵' 특별전을 마련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조명, 예향 전북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지역문화를 보급 활성화시키고자 마련했다. 석전의 서예작품 51점과 벽천의 회화작품 50점 등 1백1점이 선보인다.

♣ 강좌

△기초교리=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만해교육관에서 3개월과정 불교 기초교리 강좌를 갖는다. 수강료는 1만원. (02)730-9108

△법화경 특강=한국승가대학원(원장 공덕)은 24일 광주 안보회관 5층 대강당에서 〈법화삼부경〉 특강을 개최한다. (053)952-8711

♣ 답사·순례

△백양사·내장사=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회장 김용직)는 27일 백양사와 내장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선착순 42명이며 동참금은 3만원. (02)3672-8391

△관룡사·반야용선=국토문화순례 터사랑(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룡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 (02)725-1284

나의 수행일기



최동원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팔공산 동화사 경치좋은 산길을 따라 있는 부도암, 내원암, 양진암, 연불암은 대구산악인이 자주 찾는 암자이며 등산코스이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나는 20대부터 일요일이면 산이 좋아 산에 오르고 사찰을 찾게 되었다. 신심이 있다기보다 부처님전에 맑은 마음으로 바르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고 삶의 지표로 삼았다. 그러기에 1965년 여성산악회(靑山會)를 창립하여 회원들과 전국의 명산 사찰을 찾는 즐거움속에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금년에도 10월중에 매일신문사와 공동으로 제34회 여성등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연보호, 문화재탐방, 건강관리 등 더불어사는 사회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부처님 앞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는 어느날 갑작스런 막내동생 동주의 죽음으로 양진암에서 재를 가지면서부터였다. 인생무상과 삶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머님 아버님의 49재도 차례로 양진암에서 올리게 되었다.

가냘픈 여성의 몸으로 수도에 정진하시는 비구니스님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여성은 약한 것이 아니다. 보람있는 삶으로 무엇인가 행동하는 불자가 되자. 작은 보시에 보람을 찾자"고.

그당시 6·25동란을 겪으면서 가난했던 사회는 여성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 많았다. '보시하자' '봉사하자'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니 행동하는 불자가 되자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한때 한국BBS연맹의 이사가 되어 넝마주이 500명, 구두닦이 300명을 조직화하여 교육과 기술지도로 직업을 갖게하여 자립시킨 후 얻은 '거지엄마'의 별명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80년대 사회생활은 좀 넉넉하였으나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교도소의 출소자를 갱생시키는 일로 출소자 합동결혼식의 혼주가 되었다. 10년동안 140여쌍의 부부를 탄생시켜 이혼없는 가정을 꾸려나가게 도와 주었다.

90년대에 접어들어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미약한 재산을 내놓아 사회복지법인 동원어린이집을 설립했다. 아침 7시무렵이 되면 아장아장 걸어들어오는 130명의 어린이를 즐겁게 맞고 있다. 사회복지에 먼저 눈을 뜬 개신교·천주교에 비하면 우리 불교가 가장 늦다는 생각이 들어 어린이집 설립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7년 전에는 팔공산 동화사와 파계사 중간에 있는 부인사(符仁寺·夫人寺)와 인연이 닿았다. 11년전 성타비구니스님이 주지로 오시며 먼저 선덕여왕숭모전을 건립하고 대웅전 불사를 그 다음으로 준공하셨다. 4년동안 삼월 보름이면 절에서 정성스러운 숭모제를 올렸는데, 사찰경내에서 궁중의식으로 모시기가 어려워 대구여성계에서 이 일을 맡을 사람을 찾던중 20년 전에 스님과 양진암에서 인연이 있던 필자가 숭모회 조직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 꽃피는 삼월 보름이면 많은 불자가 숭모전 앞뜰의 궁중의식을 보러 모인다. 화합의 장이요, 우리 전통문화의 교육장이 되어 이제 외국인 관람자도 늘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제9교구 동화사신도회장직을 권유받았다. 배움도 적고 능력이 모자라며 불자로서 크게 공덕을 쌓은 것도 없어 중임을 맡을 수 없다고 사양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칠순이 넘었으니 여생을 불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라는 큰스님의 말씀을 거절 못해 고민하던 중 주변 불자들의 격려와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21세기에는 자기사찰 갖기운동으로 화합하여 승보의 지도편달과 행동하는 신도들의 협력이 있다면 맑고 향기롭고 자비가 넘치는 사회가 되리라 믿는다. 늦게나마 기도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늘려가려 한다.

"작은 보시에 보람을" 매일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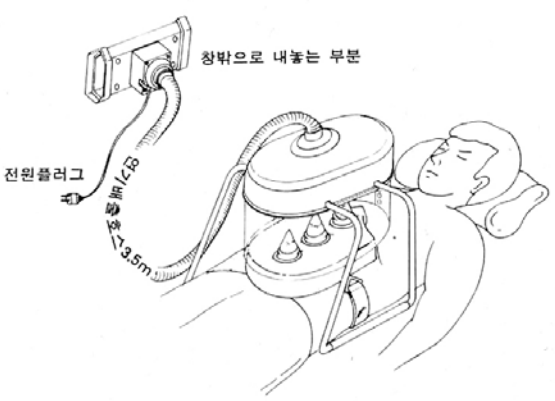
보육·갱생등 이웃위한 일 팔걷고 나서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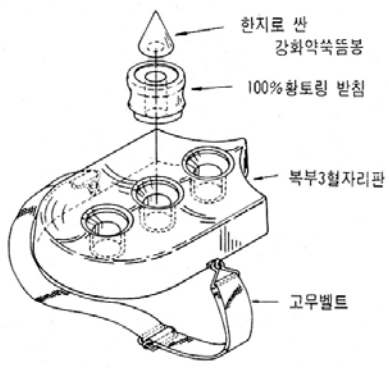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왠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보급가격 : ₩12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종로·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남: 마산 (0551)23-9016 충북: 제천 (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 (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

첫 불화초본전 여는 金魚 우일스님

외길 65년…"정성이 곧 수행"

22~29일 조계사 불교회관서
불화입문자 위한 '초본집'도 발간

세수 88세. 법랍 69세. 전국적으로 불상·탱화조성, 단청, 개금 등을 한 사찰이 2백30여개.

초야에 묻혀 65년동안 불 보살 조성을 외길수행으로 삼고 정진해 온 금어(金魚) 김우일스님이 생애 최초의 개인전을 갖는다. 22일부터 29일까지 조계사내 불교회관 1층에서 갖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스님이 직접 그린 불화초본(草本 불화의 밑그림) 130여점이 선보인다. 스님은 '금어' 호칭을 받고 있는데 금어란 불상을 조성할 뿐 아니라 탱화, 단청 등에 모두 능한 화사를 지칭하는 것.

"불사란 잘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정성을 다 했는냐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 부처님이나 보살님 상들과 부처님이 사시는 집의 단청은 한번 조성하면 세세생생 중생들의 참배를 받게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

우일스님은 19살때인 지난 29년 공주 갑사에서 월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그때부터 불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갑사는 특히 이름있는 불화승 배출로 유명한 사찰인데 우일스님은 조선후기 화사(畵師)의 큰 맥 금호스님→보응스님→일섭스님의 맥을 이었다. 24세때 당시 유명한 금어인 보응스님에게 불화의 기초를 배우다가 스님이 열반하자 보응스님의 제자이며 이미 일가를 이룬 김일섭스님의 맏제자로 들어가 천왕 보살초를 수료해 그 재능을 인정받았다.

29세때 본격적으로 사찰불사에 참여, 65년간 수덕사, 범어사, 내장사 대웅전, 금산사 미륵전, 선암산 대웅전, 관악산 연주암 갑사 등의 단청과 대둔사 화엄사 보문사 성주사 광덕사 등 수많은 사찰의 탱화, 개성 안화사 오백나한과 시왕, 금산사 오여래 육광보살 개금불사 등 많은 불사를 수행해 왔다.

"나야 뭐, 부처님 그리고 단청하는 것을 평생 수행방편으로 삼은 사람이지."

평소 입버릇처럼 이같이 말하는 스님은 노구로 눈 귀가 전같지 못하지만 지금도 붓 잡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스님은 특히 세필에 뛰어나고 인물 표정이 살아 있는듯 생생한 것으로 이름나 있다. 스님이 한창 활동했을 때는 '우일스님에게 불사를 맡기고자 사찰주지들이 우일스님을 만나게 해 달라는 기도까지 올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우일스님

우일스님의 사제로는 고재섭 스님 임석정스님 조정우씨 등 대가들이 있고 제자로는 단청불화 부문에 조기환씨, 조각에 허길용 김광열씨 등이 맥을 잇고 있는데 이번 전시는 제자들인 조기환 허길용 김광열씨가 스님의 미수를 기념해 열어드리는 전시회이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 맞춰 평생해 온 초(草)중 가려뽑은 불화초본집(150쪽)도 발간한다.

이경숙 기자



◇우일스님이 그린 '사천왕상' 초.

불심시심 〈103〉

바다 끝까지 보내는 시선

白浪飜天魚躍躍 흰 물결 하늘 뒤덮자 고기 뛰어 오르고
(백랑번천어약약)
靑山壓海鶴雙雙 푸른 산 바다를 누르니 학은 쌍쌍히 날다
(청산압해학쌍쌍)
憑欄送目滄溟外 난간 기대어 푸른 바다 끝 보내는 시선
(빙란송목창명외)
果日輝輝射客窓 돋는 해 반짝반짝 나그네 창을 비추다
(고일휘휘사객창)

위 시는 용암(龍巖 1713~1779)대사의 시이다. 제목을 '청간정(淸澗亭)'이라 하였다. 용암대사의 법명은 체조(體照)요 당호가 용암이다. 호남의 장성 사람으로 원래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태몽으로 허공을 배회하는 구름을 꾸었고, 대사가 태어나는 날, 문 밖에 스님이 와서 우리의 종풍을 일으킬 사람이 당신 집안에 있으니 기억해 두라 했다 한다. 이것이 대사에 대한 미래의 예정이었던 것이다.

대사는 일암(日庵)법사의 법을 이었으니, 법계로써 청허당의 7세손이 되는 셈이다. 대사의 문집은 〈용암당유고〉로 전해지고 있다. 분량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어서 시 70여수가 전하고 있지만, 유생이 쓴 서문에는 "그의 문집을 보니 시가 맑고 뛰어나서(淸逸) 비록 선비의 문장가에서 찾아보더라도 그리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런 점으로 보더라도 대사의 시는 스님으로서의 신분을 느낄만한 교리나 법리를 담은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청간정에서 바라보는 아침 경치를 담담히 읊고 있다. 바닷가의 정자에 올랐다면 우선 물 밑을 내려다 보는 것이 상리다. 하늘까지 닿는 흰 물결, 거기에 하늘이 낮다 하듯이 뛰어오르는 고기의 발랄함, 아침의 생동한 기상을 이이상 어디에서 감상할 것인가.

시선을 다시 위로 돌리면 산은 바다를 억누르고 있다. 푸른 산 바다를 누르다(靑山壓海)의 이 싯구도 마치 스님의 기개가 세상을 압도하는 느낌이다. 그런가 하면 아래로 누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의 날개짓이 위로 또 비상하고 있다. 이것이 시의 묘미이다.

이 시에서 이 두 구의 구성은 빈틈없는 짜임을 보이고 있으니, 첫 구와 둘째 구가 하늘 바다라는 상하의 구성이면서, 한 구에서는 한 구대로 상하의 대칭을 이루고 있다. 흰 물결 하늘에 닿고 산은 바다를 누르니, 각기 상하의 공간을 잇고 있는 수직선을 그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구성적 안목이다. 이제 시선을 한 곳으로만 멈출 수가 없다. 다시 시선을 놓아 끝가는 곳까지 달려보자. 어디까지 보낼 것인가, 저 바다 밖이다. 여기서는 저 끝으로 보내고 저편에서는 이쪽으로 햇살을 보낸다. 역시 주고 받음의 대칭이다. 이것이 자연의 진리이다. 이것이 바로 스님이 강조하려는 불성일 수도 있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고미술전시관들 "애호가 초대"

다보성 **고미술사료전**
대 호 **소형고도자전**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상설 고미술전시관이 잇따라 기획전을 마련, 고미술 애호가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다보성고미술전시관(대표 김종춘·581-5600)은 11월10일까지 '고미술사료전'을 개최, 통일신라시대의 금동여래입상을 비롯 고려시대의 호지감불, 청동범종 등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 7백여점을 선보인다.

지난 봄 개인으로는 처음 금속공예종합전을 개최한 대호고미술전시관(관장 주기상·212-8777)은 12월31일까지 '소형고도자(小形古陶磁)특별전'을 마련, 산사(山寺)에서 스님들이 쓰시던 공양기, 다기 등 5백여점을 전시·판매한다.

98년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

문화체육부는 13일 '98년도 이달의 문화인물' 12명을 선정 발표했다.

▲1월=신윤복(조선후기 최고 풍속화가) ▲2월=안향(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 ▲3월=이상화(시인) ▲4월=석주명(나비연구로 이름난 세계적인 곤충학자) ▲5월=성호 이익(조선시대 개혁사상가) ▲6월=송흥록(판소리 동편제의 시조) ▲7월=조철호(한국보이스카우트의 전신인 조선소년군 창단) ▲8월=윤봉춘(영화감독겸 배우) ▲9월=한성준(근대춤의 아버지) ▲10월=정태진(국어학자) ▲11월=최제우(동학의 창시자) ▲12월=충무공 이순신(순국 4백주년을 맞음)

문화소식

백양사 고불미술관 28일부터 일반공개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가 경내에 상설 미술관 고불미술관(관장 지선스님)을 개관한다. 백양사는 2천여만원을 들여 우화루 27평 내부를 보수, 조명시설 등 전시를 위한 완벽한 미술관 시설을 갖추고 28일부터 일반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고불미술관은 개관 기념으로 연말까지 상원사 선암사 실상사 금산사 등 전국 고찰의 범종과 탑, 부도의 불보살 상호와 비천상 등을 탁본한 탁본작품 40여점을 전시하는 '불보살의 미소특별展'을 연다. 이번 백양사 고불미술관 개관은 지난 10일 해인사미술관 개관과 더불어 전통고찰과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진 산사에서 일반 관광객들에게 불교미술의 진수를 만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포교의 새로운 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불미술관은 앞으로 '돈황막고굴 보살상그림전' '고불총림방장 서옹스님 휘호전' '북한그림전' '수석(水石)전' 등 다양한 테마전을 기획하고 있다.

석주스님 서예전

11월7~10일, 서귀포학생문화원

조계종 원로 석주스님(칠보사 조실)이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학생문화원 전시관에서 서예전을 갖는다.

서귀포시 월라사(주지 도종) 중창불사기금 마련을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소품에서부터 병풍 가리개 등 대작에 이르기까지 석주스님의 서예작품 1백여점, 일장스님, 소암 현중화 선생 등의 찬조작품 50여점 등 총 150여점의 작품이 선보이게 된다. (064)67-4140

김대원씨 개인전

21~26일 서울갤러리



제3회 월전미술상 수상자인 불자화가 김대원씨〈사진〉가 21~26일 서울갤러리에서 산수화 개인전을 갖는다. 전통적인 수묵의 기법으로 우리의 자연과 삶의 터를 자연스럽게 화폭에 담아온 김대원씨의 '고가' '양수리 강변' 등 30여점이 소개된다. (02)735-7711

문화재소식

흥덕사지 청동금고등 충북문화재 158점

청주 흥덕사지 청동금고, 중원 미륵리사지 금동귀면장식과 건흥5년명광비 등 충북의 문화재들이 해외나들이에 나선다.

일본 야마나기현 고고박물관은 충북과 야마나기현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해 11월24일까지 한일고대지방문화를 비교하는 '한국 충청북도의 고대문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청주박물관이 흥덕사지 청동금고 등 80여점을,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직지 영인본 등 15점을 소개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 광주 공주박물관 등도 소장유물 40여점을 출품, 총 1백58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또 야마나기현이 고고미술자료 2백여점을 함께 전시, 관람객들이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교류 양상을 비교감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 나들이

거돈사지·법천사지 내년부터 일제정비

거돈사지·법천사지 등 원주지역의 폐사지가 내년부터 2002년까지 일제히 정비된다.

원주시는 중원문화권 정비사업의 하나로 거돈사지·법천사지를 조사,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고 훼손된 불교유적을 복원정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2년 발굴조사 및 사지정리를 마친 거돈사지에는 17억 5천만원을, 문화재가 훼손된 채 방치된 법천사지에는 37억 9천6백만원을 투입, 토지매입을 비롯 발굴조사·사지정비·유적관 건립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원주시관계자는 "두 절터를 잇는 도로를 개설, 역사문화의 교육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돈사와 법천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돼 고려시대에 크게 융성한 사찰로, 지광국사와 원공국사가 주석한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 사지에는 두 고승의 탑비가 각각 남아있고, 부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문화재소식

最古금속활자 계미자 일본서 보존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로 추정되는 계미자(癸未字)가 일본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선 태종3년(1403)에 만든 계미자의 존재를 일본 돗파인쇄주식회사 자료실에서 확인한 부산외대 일본어학과 김문길교수는 인쇄물이 아닌 현존하는 활자로는 세계 최초의 것이며,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활자보다도 47년 앞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계미자가 원래 10만자라는 점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조선에서 가져왔다는 일본측 기록으로 볼 때 돗파인쇄주식회사의 활자는 조선 태종때의 계미자로 현존 세계최초의 금속활자임이 분명하다는 것.

세계최초의 금속활자가 조선에서 나왔고,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한성에서 가져온 8만 9천여자의 활자에 1만자를 추가해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 봉건사회의 교양서적 1백25권을 제작했다. 또 세계활자연보에는 이 활자가 만들어질 당시 중국에는 도자기나 목판은 있었지만 금속활자는 없었다고 기록돼 있어 계미자가 현존 세계최초의 활자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약(藥)이 되는 신비한 약초 백화사설초-암퇴치, 예방, 성인병에 효과입증
기적의 약용 백화사설초 우리 땅에서 재배 성공

신비의 약초 백화사설초 **『암』 치료에 탁월**

백화사설초(百花蛇舌草)가 간암·직장암·식도암·방광암·자궁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던 바 불심짙은 우바이가 백화사설초의 효능을 몸소 체험한 후 재배를 확대,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신농산 대표 김나진자 보살은 C형간염·황달·당뇨 등이 겹쳐 사경을 헤매며 각종 양방과 한방을 썼지만 치료가 안돼 소문을 통해 듣던 백화사설초를 구입, 달여 복용한 결과 병이 치료되어 본인이 직접 이 약초를 재배하기에 이르렀으며 보급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불자 운영하는 「영신농산」서 보급, 각종 염증·종기·타박상에도 효과

백화사설초는 중국이 원산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백운산에서 자생되는 것을 처음 발견 「백운풀」이라고도 부른다.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일년생 식물로 30cm정도의 키에 연약한 대궁이 뱀의 혓바닥(蛇舌)처럼 생긴 잎에 흰꽃(百花)이 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백화사설초는 그 풀 전부를 약용으로 하며 암 이외에도 각종 염증이나 종기, 타박상에 특효약초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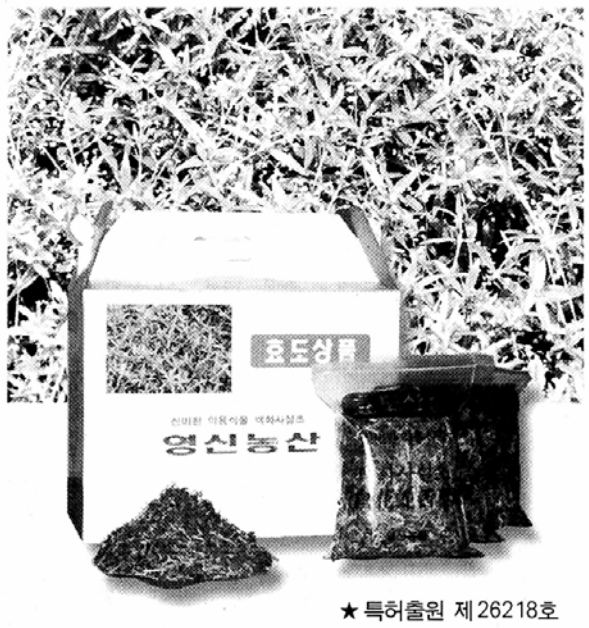
또한 청열해독제(淸熱解毒劑)로도 이용되며 체내의 응어리를 풀어 독을 해소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경남생약연구소의 성환길 소장(약학박사)은 『백화사설초는 옛날부터 전해온 민간약으로 천엽·종기·기관지염 등 각종 염증과 항암제로서 탁월한 효과가 있어 현대 천연약물개발로 주목받고 있다』며 『백화사설초의 엑기스의 동물실험에 악성종양세포에 강한 억제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1997년 7월 16일 대한불교신문 〈환〉

● **95년 한국인 암통계**

한국인은 위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 순으로 암에 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95년도 한국인 암등록 조사결과에 따르면 95년 새로 발견된 암환자는 6만4천7백61명이며 이중 남자가 55.5%인 3만5천9백45명이었다. —1997년 7월 24일 중앙일보 기사中



★ 특허출원 제262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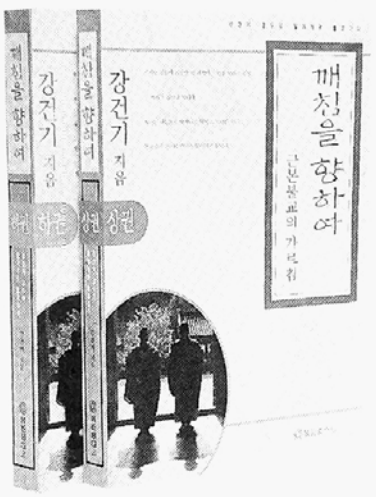
■각종 문헌에 나타난 백화사설초의 효능
◎ **항암본초**(상민의 편저, 김수철 역주)
위암, 식도암, 직장암, 대강막 임파육류, 유선암, 자궁경암 기타 암증
◎ **임상 항암중초약**(성보사 刊)
각종 종양에 광범위하게 사용, 특히 소화기계 및 임파계 종양에 잘 사용됨
임파세망세포육종, 임파육종, 망상세포육종, 위암, 직장암, 유암, 뱅장염, 간염, 비뇨기계 감염증, 기관지염, 편도염, 인두염, 타박증, 외용으로 창절, 용종, 독사교상치료, 급성 백혈병, 급성 과립구성 백혈병, 급성 임파성 백혈병 등
◎ **모악기방**(조규형 저)
위암, 직장암, 간암, 자궁경암, 방광암
◎ **한방의학 대사전**(진종인 저)
간암, 위암, 식도암, 간염, 위염, 식도염, 편도선염, 직장염, 창절증독, 화농성감염증

※ 싱가포르대학 학장 이광선 박사는 "간암으로 홍콩의 권위있는 어느 병원에서 조차 치료약이 없다고하여, 백화사설초를 매일 150g씩 전탕해서 복용하니까 3개월만에 완치되었다."고 한다.
(「녹차와 약차」 동화문화사 刊, 신재용 생활필서 中에서)

■추천의 말
"백화사설초는 한의약의 대표적 항암생약이다." 한국자연생약보호협회장 이학박사 한영채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비한 약용 식물인 백화사설초" 경남생약연구소장 약학박사 성환길

영신농산 백화사설초

상담문의
(051) 465-5100, 467-5200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할까"

강건기교수, '깨침을 향하여' 출간

'깨침이야말로 불교의 처음이자 끝. 깨침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정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알기쉬운 불교강의 〈깨침을 향하여 상, 하〉(불일출판사 刊)이다.

전북대 철학과 교수이자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또 88년부터 전주 전북불교대학에서 지역불교활성화에 진력해 온 강건기교수(57)가 펴낸 이 책은 불교를 처음 대하는 이들에게는 친절한 길잡이, 불자들에게는 보다 체계적인 사상과 믿음을 심어주는 신앙의 지침서로 바쁜 일상에 묻힌 현대인들과 부처님 진리와의 만남을 이끌어 내고 있다.

"아무리 심오하고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용어를 선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고 강교수는 말한다.

이 책은 불교에 대한 개론적 소개로부터 부처님의 생애를 비롯한 불교사의 흐름,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이 불교를 어떻게 믿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자상하게 기술하고 있다.

상권에서는 오직 절대적 신에 의존해야만 구원을 믿을 수 있다는 타종교와 달리 불교에서의 인간은 여여한 부처의 성품을 갖춘 존재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지순례하듯 붓다 가르침 서술
보편적 용어로 불자의 삶 제시

존재라는 설명으로 불교의 성격과 참 모습을 개관했다. 또 성지순례를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상적인 장면과 가르침을 음미 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생애를 소개해 인류의 스승으로서 부처님의 위대한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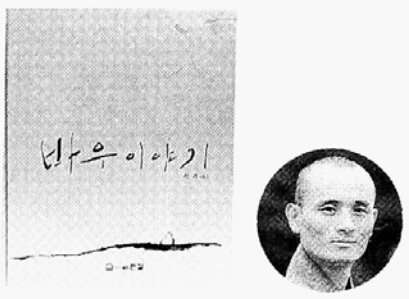
하권에서는 우리나라에 전래된 불교의 모습을 선불교와 한국불교의 전통에 비추어 살펴봄으로써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대승불교권에서 정착되고, 그 사상이 꽃피는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특히 회통불교(會通佛敎)라 일어지는 한국불교의 특징을 원측, 원효, 의상, 의천, 지눌스님들의 사상에서 풀어내고 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의 모습인 자비의 실천도 다름아닌 깨침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물길"이라 말하는 강교수는 불자들에게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사섭법(四攝法)을 현재 생활속에 실천한다면 깨침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제안한다.

강교수는 환경문제 인간성상실의 문제 도덕질서 붕괴의 문제 등 현대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불교가 제공해야 한다면서 서구의 많은 지성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삶의 지혜를 찾고 있는 실례를 들어보이기도 한다.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 모든 생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불교에 주어진 시대적 요청이자 불자의 삶"이라는 강건기교수는 "환상 자신의 자리를 반성하고 소승적인 적정과 안일속에서 깨어나 대승의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외친다.

이은자 기자



'바우'의 집착버리기 여정
"현대인의 행복찾기"

적경스님 불교우화 '바우이야기'

자기 삶의 주체를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색적인 불교우화 〈바우이야기〉(한길 刊)가 나왔다.

'영원한 행복, 최고의 행복'을 찾아 떠난 주인공 바우가 대지와 작은돌, 패랭이꽃, 바람, 등산가, 산, 불, 물, 애벌레 등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의 여러 모양에 대해 집착을 버리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생명의 존재요소인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원리를 바우의 삶에 적용, 우주의 삼라만상은 이 4요소가 인연마다 뭉쳐 이뤄진 까닭에 인연

지수화풍 원리 삶에 적용
한상린씨 이색삽화 '눈길'

이 다 되면 다시 지수화풍의 본래 요소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의 바우는 바로 우리자신이며 구도의 길을 떠난 선재동자다. 바우의 경험을 통해 "행복은 자신이 기쁨을 느낄때의 모습이며 기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와 "자기삶의 주체로 우뚝설 때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깨우침을 준다.

이 책은 한길정진원 주지 적경스님이 글을 쓰고, 스님의 속가 형님인 한상린씨(단이슬 대표)가 삽화를 그렸다. 특히 이 책의 삽화는 붓이나 연필이 아닌,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린 표면에 먹물을 찍어 그린 것으로 거친 듯 하지만 간결한 글과 함께 색다른 감흥을 불러 일으킨다. 〈은〉

"청소년 위한 불서만들기 역점"

'책의 날' 출판인상 받은 무구스님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보다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불서 만들기에 매진하는 계기로 삼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제11회 책의날 기념식에서 출판문화 발전 및 독서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우리출판사 대표 무구스님. 교계출판사로서 특히 비구니스님으로 불교출판발전에 기여해와 스님의 이번 수상은 더욱 뜻깊다.

86년 우리출판사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2백여종의 불서를 펴냈고, 법공양등 불서 읽기에도 큰몫을 했다. 올해도 〈한국사찰음식〉 〈죽비깎는 아침〉 등을 발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만들기에 더욱 관심을 가질 생각"이라는 스님은 "지난해 시작한 〈고승의 발자취〉 시리즈를 계속 출간해 기독교적 사고의 외국 위인전기만을 접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조상인 옛스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역사와 문화속에 숨쉬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은 활자아닌 인류역사다"

'눈으로 보는 책의 역사' 한국판 나와



국내외 고서도판 소개
'직지' '님의 침묵'도 수록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한 책의 역사를 풍부한 사진자료와 해설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눈으로 보는 책의 역사〉가 범우사에서 출간돼 화제다.

이 책은 일본의 저명한 서지학자이자 고서수집가인 쇼지센스이의 저서를 작고한 출판인 안춘근씨가 편역하고 범우사 윤형두 사장이 한국편을 추가해 완성한 것.

국내외 고서의 도판을 책의 3분의2 이상에 걸쳐 소개해 볼거리 자료가 풍부하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도판편에서 최초의 백과사전인 14세기의 〈에티몰로지〉를 비롯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왔던 신라의 소형목판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1377년판 금속활자본 〈불조직지심체요절〉등 책표지 60여장을 생생한 원색으로 다뤘다.

윤사장은 세계책변천사를 정리한 해설편 말미에 '한국 인쇄의 역사와 금속활자의 발달'을 16쪽에 걸쳐 기술하는 한편, '한국의 옛 책'편에서는 11세기 초 고려시대의 목판본 〈보협인다라니경〉 〈유가사지론〉,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월인천강지곡〉 등을 비롯해 〈한성순보〉 〈서유견문〉 〈님의 침묵〉 등 각 박물관이나 단체 및 범우사가 소장하고 있는 옛책의 흑백사진 60여장을 실었다.

이밖에도 외국 고서를 흑백사진으로 다룬 '책 이전의 책' '책의 역사' '주제별 책모음' 등을 통해 모두 2백50여편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서지학은 물론 역사 미술사 언어학 분야에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빨간물고기 수정상자속의 … EQ불교동화 2권 출간



어린이를 위한 EQ동화 〈빨간물고기〉 〈수정상자 속의 생쥐〉(시간과 공간사 刊) 등 2권이 출간됐다.

한국불교문인협회부회장 송운하씨가 글을 쓰고 화가 유광상씨가 삽화를 그린 이 책에는 생명존중사상, 보시사상 등 불교적 가르침을 담은 감성동화 41편이 담겨있다.

나쁜 전염병에 걸린 백성들을 구하기위해 강물에 몸을 던져 수천마리의 빨간물고기로 환생해 백성들을 구한 마카로 임금의 이야기, 버릇없는 왕자를 어진 임금으로 인도해 낸 스님이야기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해 우유를 얻으러 간 아난존자이야기, 모든 물질적 풍요를 물치리고 오로지 수행을 위해 떠난 마카카 이야기등 불교적 가르침을 담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어린이들의 동심에 성큼 다가갈 것이다.

계간 〈오늘의 불교와 문화〉(대한불교진흥원 刊)가 '불연 이기영 박사 1주기 추모특집'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가을호에 담았다. 故 이기영박사의 학문세계와 사회 및 신행활동을 비롯, 타종교인이 본 선생의 사상과 수많은 저서 목록을 정리해 화보로 엮었다.

故이기영박사 추모특집
'오늘의 불교와 문화' 가을호

특집 '현대인과 중독'에서는 혼탁한 현대사회의 갖가지 중독현상을 다루고 이의 치유를 불교적 해법으로 풀어냈으며, 틱낱한 스님이 최근에 펴낸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종교갈등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종교간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한다'를 특별기획으로 다뤘다.

또한 이번호에는 불교학 및 동양철학계 내에 잔존하는 편견들을 분석한 김종명씨(동국대)의 논문 〈한국불교학 연구의 바람직한 미래〉가 눈길을 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불교입문	포 교 원	조계종총판사
3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 타	효 림
4	수행으로 가는 길	이 제 열	대원정사
5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 림	행 원
6	인연(작은책)	서 정 주	민 족 사
7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	윤 청 광	지식산업사
8	조주록탐구	고 목	삼 양
9	여래심지의 요문	박 전 주	능가산방
10	죽비깎는 아침	지 묵	우리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 법어집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큰스님. 일타큰스님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Ⅱ.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Ⅲ. 베풀며 살자 / Ⅳ. 밝은 삶을 여는 계율 / Ⅴ.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Ⅵ. 화두 드는 법 / Ⅶ. 마하반야바라밀

※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고된 삶의 감로수 같은 일타큰스님의 책모음

·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B6 / 3,500원
· 祈禱(기도) 일타스님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스님 주변의 온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5,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5,000원
·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육성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동설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582-6612 팩스 : (02) 586-9078

한·일등 14개국 대장경 전산화

입력부호 통일 논의

세계불전협, 23일~26일 日서 국제회의


◇종림스님


◇혜묵스님


◇본각스님


◇이종철교수

세계전자불전협의회(Electronic Buddhist Text Initiative · 공동회장 루이 랭카스터, 이하 불전협회)가 23일~26일 일본 오타니대학에서 '마크-업과 코딩'(Markup and Coding)을 주제로 제4차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 14개국 80여명이 참여할 이번 회의에서는 대장경을 컴퓨터에 입력할 때 사용될 '마크-업' 통일안에 관한 의견이 조율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한국의 〈고려대장경〉,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 중국의 〈중화대장경〉, 태국의 〈태국불경〉, 미국의 〈산스크리트어 장경〉 등 8개국의 대장경 전산화 작업이 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크업' 통일안은 언어에 상관없이 전자불전의 호환성을 꾀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돼 이번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크업이란 컴퓨터에 문서를 입력 때 공인된 부호인 '테그'(Tag)를 붙이는 것. 컴퓨터에서 문서를 편집-열람하는 것은 일반 도서를 보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논문에는 내용 뿐만 아니라 주(註), 참고문헌, 작자, 대학 등이 부수적으로 첨부된다. 일반 독자가 논문을 읽으며 주(註)를 참조할 때 손으로 책장을 넘기면 되지만 컴퓨터에 입력된 문서는 책장을 넘길 수 없다. 테그를 사용해 문서를 입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본문, 주, 참고문헌, 저자, 연도 등 논문 내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각 구조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테그를 붙여야 한다.

상용되는 '마크업' 방법중 'SGML'(표준 마크업 부호)은 영어 · 산스크리트어 · 티벳어 등의 문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나 한글 · 한문 문서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또 'HTML'(문서이동 마크업 부호)과 'TEI'(문서 암호화 협약)는 'SGML'보다 하위개념의 마크업으로 적용 방법이 까다로워 대장경 전산화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불전협회는 '세계불전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위해 새로운 '마크업' 시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1860년~1960년까지 백여년간의 승단, 경제, 교육, 법령, 사찰 등 불교관련 문헌을 전산화 한 '근세불교사료 문헌전산화'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한다. 또 이종철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가 '새로운 산스크리트어 사전을 위한 산스크리트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발표해 92년도부터 5년간 지속된 〈산스크리트어 전자사전〉 편찬 작업을 소개하며 종림 · 대석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등이 '고려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코드체계'를 발표해 한국의 불교문헌 전산화 현황을 보고한다.

이외에도 우르삽교수(일본 하나조노대)가 '한문경전의 전산화' 버나드교수(영국 옥스포드대)가 'TEI 구조' 아밍투교수(대만국립대)가 '인터넷에서 불교문헌 데이터베이스' 스토라로프교수(모스코바사회과학연구소)가 '러시아에서 불교학:문헌전산화' 랭카스터교수(버클리대)가 〈산스크리트어 장경〉 입력 프로젝트' 등 40여명의 석학들이 대장경 전산화 관련 보고와 논문을 각각 발표한다.

한편 불교문헌자동화연구실(소장 혜묵스님)은 국내 · 외에서 진행되는 대장경 전산화 현황과 불전협회의 활동을 알려줄 〈세계전자불전협의회 소식지〉(Journal of EBTI)의 10월중 발간을 서두르고 있다.

오종욱 기자

본각스님 '근세불교사료 전산화' 발표

이종철교수 '산스크리트어 전자사전' 소개

'무정유성론' 문명병폐 해결책

김희정씨 박사논문 '담연스님 '금강비'에 나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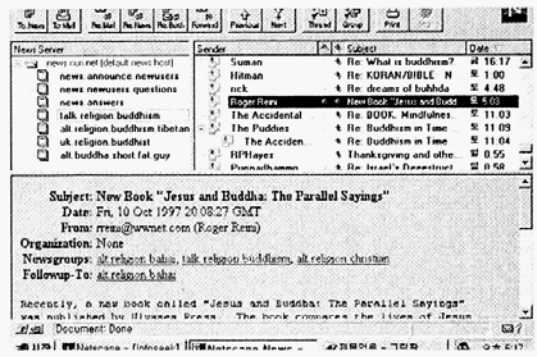
담연(湛然, 711~782) 스님의 〈금강비〉(金剛錍)에 나타난 '무정유성론'(無情有性論)은 현대인의 공허한 심성을 회복시키고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불성론(佛性論)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만의 중국문화대학 철학연구소에서 '당나라 담연스님의 〈금강비〉에 나타난 무정유성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인정 받은 김희정씨(도서출판 동인재 대표)는 "〈금강비〉의 '무정유성론'은 불교의 자비정신과 유가의 '여천지합기덕'(與天地合其德)이라는 대인(大人)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담연스님은 초목 · 돌 등도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자비 · 평등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강비〉는 당(唐) 시대에 불교의 자비사상과 유교의 대인(大人) 정신을 토대로 '무정유성'이라는 중국적인 불성론을 주창하고 천태종을 중흥시킨 담연스님의 논서.

당시 인간의 본성(本性)을 끊임 없이 논제로 삼아왔던 유가와 도가 등 중국 전통철학은 불교의 불성(佛性)에도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때 담연스님은 불교의 자비사상에 유가의 대인(大人) 사상을 접목시킨 중국적 불성론인 '무정유성론'을 통해 중국과 인도의 철학을 회통(會通) 시켰다.

김희정씨는 "무정유성론은 궁극적으로 자비 · 공경 · 사랑이라는 불교적 우주관"이라고 강조했다.



불교관련 20여 뉴스그룹 이용 가능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유즈넷의 뉴스그룹

인터넷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각국의 불자들과 동일한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유즈넷'이라는 가상공간도 있다.

유즈넷(Usenet)은 넷스케이프와 같은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을 이용해 뉴스그룹(Newsgroup)을 방문하고 의견과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인터넷에 개설된 수많은 뉴스그룹 중에는 'talk.religion.buddhism' 'alt.zen' 'alt.meditation' 'soc.religion.eastern' 등 20여개의 불교관련 뉴스그룹이 있다. 뉴스그룹의 성격은 그룹 주소의 맨 끝 단어로 알 수 있다. 이들 뉴스그룹은 주로 명상(meditation) 선(zen) 불교(buddhism) 동양(eastern) 등과 관련된 정보와 의견을 교류한다.

현재 'talk.religion.buddhism' 뉴스그룹에서는 도서출판 율리시즈가 최근 출간한 〈예수와 부처: 가르침의 유사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또 'alt.religion.buddhism.tibetan'에서는 각국의 불자 네티즌들이 티벳불교의 '환생'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따라서 유즈넷을 이용하면 각국 불자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으며,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다.

"唐 현실중시 불교 '십지경' 영향"

이홍만교수 '유심과 일심의 의미' 발표

십지경 · 십지경론 보살의 깨달음 지침서



6세기 중국에서 번역된 세친(世親)의 〈십지경〉(十地經), 〈십지경론〉(十地經論)은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이라는 불교의 원융(圓融) 논리가 당불교에 형성된 '즉사이진'('卽事而眞')이라는 현실중시의 중국적 사유의 패러다임 속에서 융합-발전되면서 당(唐)불교의 정점을 이루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광대에서 24, 25일 양일간 열리는 제10회 한국철학자대회에서 이홍간교수(원광대)는 〈십지경〉과 〈십지경론〉에 나타난 유심(唯心)과 일심(一心)의 의미'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두 경전에 나타난 '유심'과 '일심'은 화엄(華嚴)의 유심설과 연기설을 토대로 일심법계관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두 경전은 생사유전의 중생의 삶에 대한 설명서임과 동시에 보살의 깨달음의 지침서"라며 "중성과 부처는 결코 둘이 아니 근거가 바로 마음이었고, 마음의 작용을 통하여 모든 것이 존재로 인식되고 구성된다는 점을 두 경전은 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십지경〉과 〈십지경론〉은 삼계가 곧 유심이라는 명제를 토대로 허망한 삼계의 원인이 인간의 집착, 분별심, 탐욕심의 마음 작용을 통하여 구성된 허구적 망념의 세계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집착과 분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이에대해 이교수는 "마음은 고정된 실체나 속성이 없는 무아이고 무자성이기 때문"이라며 "마음을 함축적,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심과 일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간의 삶 중심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자성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것은 상대적인 염 · 정(染 · 淨)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진여이고, 부처이며, 법계라고 말했다.

따라서 두 경전에서 편만성과 평등성을 상징하는 허공과 바다의 비유를 통하여 불변성을 상징하는 진리적 화신인 금강장(金剛藏) 보살을 등장시킨 것은 바다는 파도의 근거가 되어 서로 상응해 있지만, 파도를 일으킨 것은 바다가 아니라 바람인 것처럼 인간은 번뇌라는 현상을 통해 진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욱〉

"이구오팔회, 1930년대 불교개혁 주도"

김광식씨 논문 발표

중앙불교전문학교(이하 중앙불전) 제1회 졸업생들이 조선불교의 전위가 될 것을 선언하고 1931년 결성한 이구오팔회(二九五八會)를 체계적으로 조명한 논문이 발표됐다.

〈조동걸교수정년기념논총〉에서 '이구오팔회'를 발표한 김광식연구원(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은 "이구오팔회가 결성돈 시기는 불교계 부흥의 여세가 지속될 것이가 아니면 답보의 상황으로 전락될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사찰령 등 당시 불교계 교정(敎政)의 식민지 체제를 개혁하고 불교계 통일운동을 추진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중앙불전 제1회 졸업생 회원 24명이 1931년2월24일 특별회에서 이구오팔회를 결성한 것은 불교계 교정을 정상화하고 식민지 불교정책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구오팔회의 회원은 '조선불교청년회'와 불교계 비밀결사인 '만(卍)당'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구오팔회는 1935년 이후 재정 부족, 卍당 해체, 중앙불전 폐교 등 당시 불교청년운동의 전반적인 부진과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하에서 사라졌다.

이에대해 김광식연구원은 "일본 유학을 떠났던 이구오팔 회원들이 왜색불교와 타협 · 순응하는 등 30년대 당시 회원들의 주체 의식이 약화됐다"며 "이것은 이구오팔회 조직과 노선 뿐만아니라 전체 불교청년운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소식

中, 티벳 간덴승원 복원공사 마쳐

중국이 문화혁명 당시 파괴한 티벳의 간덴 승원의 복원공사가 최근에 끝났다.

문화혁명 초기에 대포 공격에 의해 파괴된 승원 1만1천㎡를 개축-복원하기 위해 중국은 지난 4년동안 금 41kg을 들이는 등 총 2억7천만원(미화 3백만 달러)을 투자했다.

1409년에 설립된 간덴 승원은 티벳에서 세번째로 규모가 큰 승원으로 라사에서 동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있다. 또 티벳 불교의 분파인 게루그파파의 본원으로도 유명하다.

중국은 이번 복원사업을 티벳 고유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증거라고 선전한 반면 티벳 망명정부는 "이같은 복원 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아누크 "불자 아니라면 벌써 자살"



"나의 말년은 수치와 굴욕과 절망으로 가득차 있다. 내가 만일 불교도가 아니었다면 진작 자살했을 것이다"

노로돔 시아누크 캄보디아 국왕(74)이 최근의 내전과 경제 피폐로 암담한 국가현실과 관련해 지난 11일 각국 통신사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번영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우리만이 전쟁과 불안정 · 가난 · 부패 · 무법사태 · 에이즈 등으로 가득차 있다"며 "앙코르 시대의 영화가 권력을 차지하려는 '파괴분자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나 시아누크의 이번 발언에 대해 시아누크가 국가에 대한 절망의 책임을 '파괴분자들'에게만 돌릴뿐 정작 국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은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 또한 일고 있다.

지묵 스님 글모음집

구름처럼 떠돌고 물처럼 흐르는 운수납자 지묵스님.
멀고 먼 길을 흐르며 엮어 낸 스님의 청정한 죽비소리.
딱 · 딱 · 딱



천봉산 문수봉 아래 풍수 좋은 토굴에 머물며 수도와 글쓰기에 전념하고 계신 지묵 스님의 글 모음집.
지대방 한담, 고승일화, 백팔염주, 한 생각의 시작, 제2의 출가로 구성되어 있다.
연꽃과 같이 아름다운 수행자들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다.

우리출판사 전화:(02)313-5047, 5056 팩스:(02)393-9696

날마다 좋은날



주로 신사에서 공부하면서 수련회와 글쓰기를 통해 생활불교를 이야기해 온 지묵 스님의 글을 정리,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스님이 직접 신사에서 생활하면서 겪어 온 승가생활을 담백하게 서술하였고, 새로 빕의 풍경과 불자들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 딱딱한 교리 문답서 형식을 벗어나 편안하게 서술되어 미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큰들의 모음이다.
지 묵 지음 / 신국판 / 300쪽 / 5,600원

봉주르, 길상입니다



지묵 스님의 유럽견문기로 저자의 다섯 번째 산문집이다. 법정 스님이 창건한 송광사 마리불원인 길상사의 법사로 있으면서 지묵 스님이 접한 서구사회에 대한 인상을 간결하게 표현했다. 모순과 갈등 속에서도 수세기 동안 쌓아 올린 서구사회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빠르게 이룩한 고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지묵 스님은 송웅치로 유럽대륙을 일주하면서 찾고 있다.
지 묵 지음 / 신국판 / 286쪽 / 5,600원

이것이 마음이다.

진심직설(眞心直說) 강의

「禪과 敎를 두루 섭렵하신 無比스님의 강의」

마음, 마음, 마음. 참으로 찾기 어렵구나. 넓히면 온 우주에 가득하고 좁히면 바늘 끝도 용납하지 못한다. 나는 본래 마음을 구할 뿐 부처를 구하지는 않는다.
내 마음이 없으면 온 우주가 텅 비어 아무 것도 없음을 아나니, 누구든 만약 부처가 되고 싶다면 단지 마음만을 구할지니라.

마음, 마음, 마음,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달마대사)

1. 진심직설 강의 테입(90분) 18개 : 4만 5천원
   ※ 아래의 강의 테입도 계속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2. 지장경 강의 테입(90분) 16개 : 4만원
3. 유마경 강의 테입(90분) 38개 : 7만원
4. 임제록 강의 테입(90분) 26개 : 5만원
5. 증도가, 신심명 강의 테입(90분) 16개 : 4만원

■ 연 락 처 : 전화 (051)515-7870
(609-340)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23-10번지
경전연구실 문수원
■ 온라인 번호 : 부산은행 241-02-001356-2 김 지 애
■ 보 급 : 경전연구실 문수원 대중 합장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25

남전의 평상심

*조주가 남전에게 물었다. "도가 무엇입니까." 남전이 말했다. "평상심이 도이다."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가려고 더듬으면 곧 어그러져." "더듬지 않고 어떻게 도를 알 수 있습니까." "도는 알고 모르고에 속해 있지 않아. 안다는 것은 망녕이고 모르는 것은 혼미이지. 진정 더듬지 않은 도에 이르면, 그곳은 태허처럼 툭 트여 있어. 어찌 시비를 붙일 수 있겠나." 이 말에 조주는 단박 깨달았다.

*나 혜개가 말한다. 남전은 조주의 물음을 받고, 다만 기와가 무너지고 얼음이 풀리듯 해 버려서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조주가 이에 깨달았다고 해도 다시금 삼십년을 참구해야 할 것이다.

*송하여 가로되, "봄에는 꽃, 가을에는 달.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눈. 마음에 걸어놓은 일 없다면, 내겐 하루하루가 기쁨의 날이네."

平常是道:

南泉, 因趙州問, 如何是道. 泉云, 平常心是道. 州云, 還可趣向否. 泉云, 擬向則乖. 州云, 不擬, 爭知是道. 泉云, 道不屬知, 不屬不知. 知是妄覺, 不知是無記. 若眞達不擬之道, 猶如太虛, 廓然洞豁. 豈可强是非也. 州於言下頓悟. 無門曰, 南泉被趙州發問, 直得瓦解氷消, 分疎不下. 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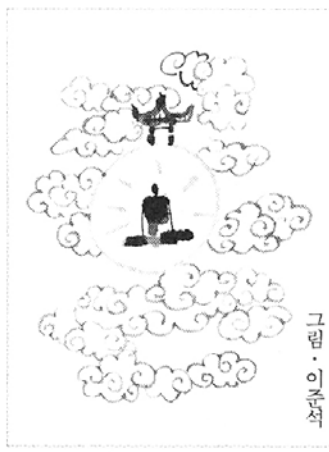


그림 · 이주석

대답에 남전은 자리를 고쳐 앉았다. 서상(瑞像)이란 상서로운 상징이란 뜻이니 법당에 안치한 여래나 나한 등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서상이 어찌 나무나 돌로 깎은 조형물을 가리키겠는가. 조주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영혼, 선의 진수를 구현하고 있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누워있는 남전에게 문명의 기대를 걸었음을 내비쳤다. 말할 것도 없이 누워 있는 여래란 지금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남전을 가리킨다.

남전은 잠시 얼떨떨했던 것이 틀림없다. 과거와 현재를 거리낌없이 드나들며 대응하는 한 기민한 정신을 발견한 것이다. 남전은 다시 한번 확인한다. "네게 스승이 있느냐." 조주는 있다고 대답한다. 누구냐고 묻자 조주는 남전에게 큰 절을 올리며, "겨울 날씨가 춥습니다. 스님께서는 존체를 편히 가지십시오."하고 말했다. 이로써 조주는 남전의 제자가 되었다.

지금의 이야기는 그의 수련이 익어 꼭지를 떼던 날의 기연(機緣)일 것이다. 조주는 가슴 속에 담아둔 한 마디를 던졌다. 남전은 조주의 멱살을 잡거나, 몽둥이를 집거나, 딴전을 피우지 않고 온건하게 타이른다. "진리는 평상심에 있다.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식당에 가서 먹어라." 조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나는 지금 진리와 더불어 하나라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상심이 진리라면 대체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가. 조주의 의혹에 스승은 찾거나 도달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충고한다. 의심을 내거나 의욕을 보이는 순간 진리의 화살은 서역 저편으로 날아가버릴 것이다. 여기서 擬는 "의심한다" "잘 몰라서 생각을 더듬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게 대체 무엇일까 하고 호기심과 의혹에 찬 눈으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 좋겠다.

실제는 나와 더불어 있다. 그것이 전부이다. 생각은 나를 이 생생한 실제로부터 분리시킨다. 나와 실제와의 간극에서 시간이 태어나고, 또한 고통이 잇따른다. 선의 모든 방편은 이렇게 위험한 인간의 무시이래의 사고습관을 치유하고, 나를 실제와 합치시키려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일치된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선은 참 싱거운 것이다. 아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달이 뜬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봄꽃 가을달 마음에 걸지 말라"

먹고 웃고 눕는 일상속에 존재비밀 있다

小縱饒悟去, 更參三十年始得. 頌曰, 春有百花秋有月, 夏有凉風冬有雪. 若無閑事 心頭, 便是人間好時節.

조주는 벌써 네 번째 등장하고 있다. 처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불퉁스레 "없다"고 했고, 진리를 묻는 학인의 절박한 질문에 "그릇이나 씻게"라고 딴청을 부렸으며, 괜히 사람을 시험한답시고 "이리 오너라" 하다가 되레 주먹감자를 먹는 조주의 모습을 살펴 보았다.

지금 살펴볼 이야기는 그의 수련기, 남전을 모시고 가시덤불을 헤치던 고뇌와 방황의 시절이다. 순서대로라면 이것이 맨 앞에 나와야 할 텐데 혜개는 그런 문제에 고의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실 선에 시간은 없다. 시간이 없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역사도 없다. 오직 직접적 대면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안은 그 하나하나가 독자적 가치를 가진다.

조주는 어려서 출가했지만 정식으로 계를 받지 않고 떠돌다가 어느날 남전의 처소에 이르렀다. 남전은 비스듬히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조주를 보고선, "어디서 오느냐"고 물었다. "서상원(瑞像院)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럼 서상은 보았느냐." "서상은 보지 못했고, 다만 누워 계신 여래는 뵈었습니다." 이

法數로 배우는 불교

〈35〉



◇김대열 作 '이웃고'

유식설에서 밝힌 8가지 마음 구조

사랑·미움 말나식 사량심서 일어나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중생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교리가 설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고와 낙의 근원은 다른 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과 악을 발생시키는 곳도 마음이고 복과 죄를 창조하는 것도 마음이며 현세와 내세를 잇는 것도 마음이다. 그러다 보니 불교는 자연히 중생의 마음이란 과연 무엇이냐는 의문하에 그 본질을 규명하려고 수행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부처님이 열반하신 구백년쯤 뒤에 나타난 무착(無着)보살은

팔식(八識) ㊤

〈해심밀경(解深密經)〉에 나타난 심의식(心意識)설에 영향을 받아 마음의 구조와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하였는데 여기에 기초해서 일어난 불교의 학문을 유식학이라고 한다. 유식학에 의하면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은 매우 깊고도 오묘해서 부처님같은 혜안이 아니고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우식학은 대략 세가지로써 중생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는 마음을 망념되고 어리석은 번뇌에 측면을 두고 설명해 나간 것이다. 여기서는 중생의 마음을 여덟 종으로 분류하여 선과 악 그리고 그에 대한 과보와 윤회를 말한다. 둘째는 마음을 중생의 깨끗하고 참된 진여성에 측면을 두고 설명해 나간 것이다. 중생의 마음은 선과 악의 깨끗하지 못한 상대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우며 밝으며 자비로운 진여심 즉 부처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셋째는 위에서 말한 번뇌롭고 어두운 마음을 정화하여 밝고 자비로운 진여심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나간 것이다. 중생이 생사로부터 벗어나 안락한 대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남을 동시에 이익되게 할 수 있는 수도와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여덟 종류의 마음 구조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중생은 눈으로 물질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며 몸으로는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는 대상을 파악한다. 그러면 그곳에는 반드시 식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감각기관인 근(根)과 감각대상인 경(境)이 부딪혀 일어난 마음 중 안식·이식·비식·설식·신식을 전오식(前五識)이라 하고 이 전오식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의식을 6식(六識)이라고 한다. 전오식이 우리의 오관을 통하여 객관계의 대상을 인식하는 각각 독립된 정신영역이라면 육식은 앞의 오식을 종합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판단하게 하는 정신영역이다. 전오식에 의해 순간적으로 포착된 대상계에 대한 인식은 육식에 의해 더욱 명료해지고 분명해 지는 것이다.

육식을 유식학에서 요별경계식이라고 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별경계식인 육식에는 무엇이 따라 붙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헤아리고 탐냄·성냄·어리석음을 지으면서 온갖 번뇌를 야기시키는 마음인 것이다.

이것을 제칠 말나식(末那識)이라고 하는데 말나는 마나스(manas)의 음역으로 사량식이라고 번역하며 항상 그릇되게 인식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중생들이 자기와 남을 나누어 놓고 사랑과 미움을 일으키며 갖가지로 업을 짓는 것은 모두 이 말나식인 사량심에 의해서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⑬③

불교와 수학

28

현실성

김 용 운

고등수학 현실 외면하지 않듯

禪도 생활에서 참모습 찾아야

최근 KBS 프로그램 '수학을 왜 싫어하는가?'(1997년9월25일 방영)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심지어 수학책만 보아도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고등학생의 수학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오늘날 각급 학교의 수학 교육의 전반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다. 초등학교 6년, 중·고 6년 합계 12년간이나 배운 수학을 그처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수학의 본질과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학은 대학 입시를 위한 척도에 불과하며 대학에 입학하면 별로 쓸모가 없고, 또 시험을 위한 수학이며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서울대생들도 수년이 지나면 지금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도 제대로 풀 수 없게 된다. 이 현실은 입시위주의 수학이 대학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고 학부 대학에서조차 별 쓸모가 없는 수학이라면 사회 생활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어떤 지식 분야라도 써먹지 않게되면 지식은 잊혀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수학은 이런 경향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 최주현

수학은 그 내용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차츰 현실성이 적어진다. 산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속의 산소가 적어지면서 답답해지는 것처럼 고도로 추상화된 수학은 비전문가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고교생이 수학을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은 지적 흥미마저 자극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선(禪)은 속세를 떠나 산중에서 모든 번뇌(煩惱)를 잊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 지니는 본질(번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고등 수학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오히려 번뇌는 곧 보리(菩提)임을 긍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지니는 현실(번뇌)로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내가 존재하기에 나의 번뇌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무조건 번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자신을 똑바로 보고 스스로의 참모습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파자소암(婆子燒庵)'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파자'란 노파(老婆)라는 뜻이다. 이 노파는 장차 크게 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수도승이 있어서 오랫동안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 스님은 열심히 참선을 하고 수십 년간 꾸준히 수도를 했다. 노파는 이제는 상당히 수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심경의 깊이를 알아보기 위해 미인인 자기딸을 그 수도승에게 보냈다. 그 여인은 스님을 보듬어 안고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하고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꼼짝도 않고 '바위 위에 선 고목이 3년 지난 것처럼 전혀 따뜻한 기미가 없는 심경'이라고 답했다. 이 말은 전해들은 노파는 그 스님을 당장 내쫓고 수행하고 있던 암자까지 태워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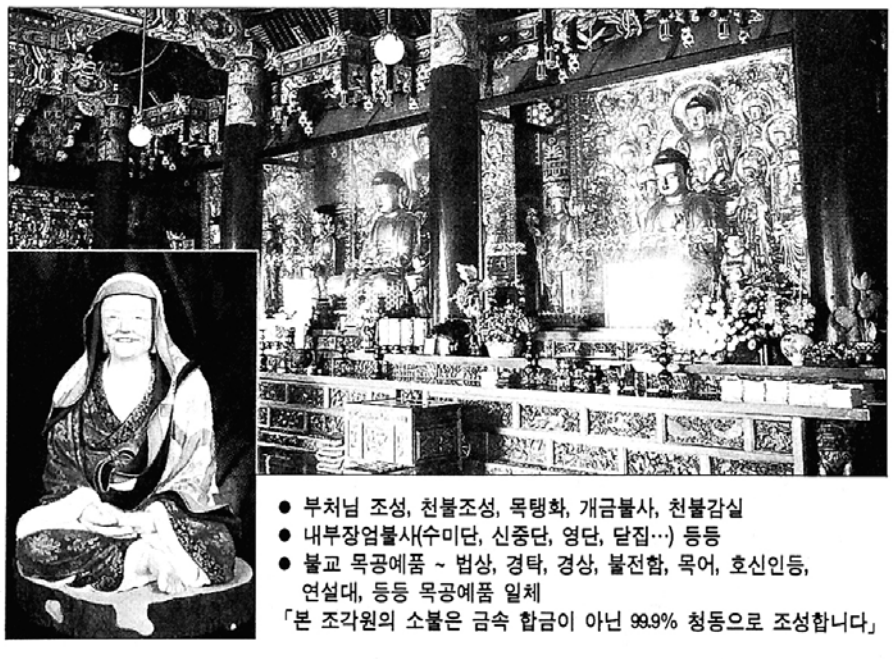
아무리 크게 깨우쳤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 인간의 감각이 완전 없어졌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욕망, 인간으로서의 번뇌를 갖고 있기에 인간이다. 그것이 모두 없어지고 고목처럼 따뜻한 기가 없어졌다면 이미 인간이 아니지 않는가! 진공속에 빠져 혼자 있기만 한다면 여러 중생을 제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 노파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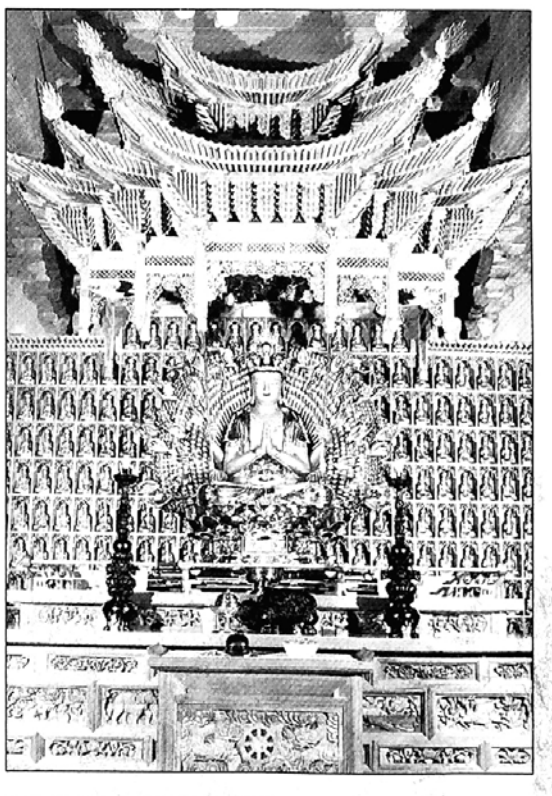
나는 이 선(禪)에 관한 이야기에서 큰 위안을 받는다. 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고 지적 자극을 받아야 의미가 있다. 단순히 수학을 위한 수학, 특히 시험만을 위한 수학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이 노파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처럼 지적 흥미, 곧 인간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 진 형 합장

시방세계

불교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 B/D 3층
전화 : 代 (02) 733-3900

한국문화 줏대 '속속들이 탐구'

'빛깔있는 책들' 2백권 돌파

우리문화의 줏대를 세워가는 책. 보이지 않게 문화의 힘을 높여 주는 책.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책. 한권의 책이 이렇게 다양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빛깔있는 책들〉은 누구에게나 이런 칭찬을 듣는다.

우리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기치로 89년 5월 첫 출간된 대원사(사장 장세우)의 〈빛깔있는 책들〉시리즈가 2백종을 돌파했다. 국민대 민길자 교수(직물학)의 〈전통옷감〉이 바로 2백번째권. 원래 2백권으로 예정된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고려청자〉가 제작상 늦어졌다.

2백권 돌파이후 현재까지 〈월출산〉〈해양생물〉〈무대미술감상법〉〈쪽빛들이기〉까지 출간됐다.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전통문화 관련서적 찾기가 어렵던 시절인 지난 89년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는 불교문화에 깃든 의미와 우리생활과의 연관성을 사진과 함께 쉽고도 명확하게 설명해내 일반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는데 일익을 했다.

날마다 쏟아지는 신간의 홍수 속에서 어떤 책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독자들의 안방까지 찾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책들은 독자들의 손끝조차 스쳐보지 못하고 사라져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출판가 현실이다. 그러나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는 불교문화, 민속, 고미술, 음식일반, 건강식품, 즐거운 생활, 건강생활, 한국의 자연, 미술일반 등 9개분야에 걸쳐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는 대표적인 문고 시리즈로 자리잡았다. 잊혀져가던 우리 전래의 문화적 향기를 일반인들 속으로 깊숙히 끌어 넣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면 컬러판 책을 저렴한 가격(3천5백원)으로 일반대중에게 선보이며 작자를 갑내하는 이유도 문화지식의 대중화라는 당초의 목표를 수행해 내기 위해서다. 이 시리즈

"과거는 현재의 좌표이자 미래예측"
사진비중 '보는 책' … 불교문화 38권
89년 시작 … 5백권 목표 '우리것 알기'
작년 세종문화상 수상 … 스테디셀러 '자리매김'

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사항이면서도 잘모르고 지나치는 최소한의 우리것 알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자부심 하나로 꾸려져 왔다.

지금까지 발간된 불교문화 관련 책만해도 〈석불〉〈요사채〉〈불상〉〈산사의 하루〉 등 38권. 특정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불교목공예, 부도, 사경, 미륵불, 불국사 등 전분야에 걸쳐 그 영역을 확대해 불교문화의 대중화와 한국문화의 원형을 오늘의 빛깔로 복원하는데 일조를 했다. 특히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을 떠나 불교가 우리전통문화의 원류라는 점을 일반독자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고 알리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불교외의 분야에서도 우리문화 전반에 깔려있는 불교의 숨결을 사진과 글을 통해 소개해 왔다. 민속부문에서는 짚문화, 소반, 복식, 솟대, 전통상례, 장승과 벅수 등 우리가 소홀하게 보아넘겨왔던 전통문화를 담아냈으며 한옥의 조형, 문방사우등 우리의 옛미술과 다도, 분재, 집꾸미기등 다양한 취미활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는 기존의 '읽는 책' 개념에서 '보는 책'의 개념을 도입, 원색의 사진과 함께 글도 쉽고 간결하다. 이처럼 누구나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독창적인 기획이 돋보여 대원사는 한글창제5백돌인 지난해 10월 출판계 처음으로 세종문화상을 받는 등 스테디셀러로서 그 입지를 다져오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출판불황 속에서도 상업성에 연연하지 않고 전통문화 확산이라는 전문성을 지켜온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는 2백종 돌파를 계기로 당초 목표로 삼았던 5백권을 향해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고 있다.

2백권동안 전통문화와 민속에서부터 현대문물과 생활문화로 이어졌듯이 앞으로 출간될 책들 또한 보이는 문화유산에서 보이지 않는 정신문화유산에 중점을 두고, 우리 삶 전체를 포용하고 다룰 수 있는 시리즈로 그 영역을 넓혀갈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학 소재의 다양화 세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외국의 현대문물까지도 포괄한 기획출판을 통해 프랑스 '갈리마르 총서'에 버금가는 한국판 문화총서에 도전하고 있다. 사장 장세우씨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꾼다.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는 좋은 책, 꼭 있어야 할 책이라는 인식을 전국민의 뇌리에 심으며 앞으로 세계 유수의 출판물과 어깨를 나란히 할 대표적인 한국서로서 거듭나기위해 번역작업과 CD롬 제작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문화지식의 대중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문화지식의 세계화를 위한 야심찬 계획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이은자 사진=고영배 기자



◇빛깔있는 책들 가운데 불교부문 목록

제목	번호	글	사진
불상	40	진홍섭	안장헌 · 손재식
사원건축	41	신영훈	김대벽
범종	42	이호관	손재식
석불	43	진홍섭	안장헌
옛절터	44	윤덕향	윤덕향
경주남산(하나)	45	윤경렬	김구석 · 윤열수
경주남산(둘)	46	윤경렬	김구석 · 윤열수
석탑	47	정영호	손재식 · 안장헌
사리구	48	김희경	손재식
요사채	49	이응묵	손재식
풍화	50	홍윤식	홍윤식 · 윤열수
괘불	51	윤열수	윤열수
신장상	52	김정희	김정희
보살상	53	박도화	박도화 · 안장헌
사경	54	박상국	박상국
불교목공예	55	박찬수	윤열수
부도	56	정영호	안장헌 · 김종섭
불화그리기	57	박정자	석선암
고승진영	58	김형우	김형우 · 윤열수
미륵불	59	김상용	송봉화
마애불	101	문명대	문명대
통도사	110	이기영	통도사성보박물관
영산재	117	홍윤식	석선암 · 손재식
지옥도	119	이기선	안장헌 · 윤열수
신사의 하루	123	돈연	김대벽 · 안장헌
반가사유상	124	황수영	황수영
불국사	127	김상현	김종섭
금동불	132	진홍섭	진홍섭 · 안장헌
만다라	135	홍윤식	홍윤식 · 윤열수
해인사	145	이재창	김종섭
송광사	150	강건기	김종섭
범어사	154	황운순外	김종섭
대흥사(대둔사)	155	목정배外	이완우 · 이응묵 · 김종섭
법주사	156	최현각外	소재구 · 김종섭
운주사	157	이태호外	황호균 · 유남해
부석사	171	배병선外	유남해
철불	178	최성은	최성은 · 한석홍
불교의식구	180	홍윤식	홍윤식



◇ '빛깔있는 책들'의 오늘을 이끌어온 대원사 편집부 식구들. 책 한권 한권마다 이들의 보이지 않는 정성과 노력이 스며있다.

취재수첩

쉽고 유익한 책 '화두' … 필자선정 역점

1989년 5월말 36종의 〈빛깔있는 책들〉이 세상에 첫선을 보였다. 심질적인 책만들기 3년만의 일이었다. 이후 한 해에 24종 이상이 발간돼 1997년 현재 205종이 발간됐다. 사실 〈빛깔있는 책들〉이 처음 출간됐을 때는 전통문화에 대한 열기도 뜨겁지 않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쉽게 풀어쓴 전통이나 미술에 대한 책이 출판된 일이 없었을 때였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출판을 무모한 일이라 했고, 심지어는 정신나간 것으로 취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고무적이었고 이제 〈빛깔있는 책들〉은 타 출판사에도 영향을 미쳐 유사한 종류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에 이르렀다.

기획에서 출판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벽한 책을 만들고자 하는 대원사의 노력이 〈빛깔있는 책들〉의 '빛깔'을 더욱 짙게 하는 원동력이다.

대원사는 출판할 책이 선정되면 논문이나 저서 등 관계자료를 검토해 독창성있는 필자를 선정한다. 필자선정을 위한 정보수집력도 대원사의 큰 노하우인 셈이다. 보통 1백30여면 분량의 원고집필을 위해 필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1년이지만 7년이 지났어도 아직 책으로 선보이지 못한 것도 있다.

쉬우면서도 유익한 책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출판사로서는 실용적인 정보와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는 이 시리즈만의 성격을 고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화두'로 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필자 섭외에는 신뢰성을, 원고다룸에 있어서는 완벽을 기해왔기에 2백여권의 책이 제목과 사진은 제각각 달라도 빛깔만은 하나로 통일되고 있다.

이제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는 소명의식을 재확인하며 새로운 기획으로 승부해야 하는 기점에 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도장품(刀杖品) ②

歐杖良善 구장양선
妄讒無罪 망참무죄
其殃十倍 기앙십배
災迅無赦 재신무사

어질고 착한 이를 매질하고
죄없는 이를 거짓으로 모함하면
그 재앙은 열배로 불어나리니
그 갚음은 신속하여 용서가 없다

生受酷痛 생수혹통
形體毁折 형체훼절
自然惱病 자연뇌병
失意恍惚 실의황홀

살아서는 지독한 고통을 받고
온몸이 헐어지고 불구가 되며
절로 번뇌하여 병을 앓고
마음은 어지러이 중심을 잃는다

人所誣咎 인소무구
或縣官厄 혹현관액
財產耗盡 재산모진
親戚離別 친척이별

또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亦不求勝 역불구승
人愛天下 인애천하
所遊無怨 소적무원

때리거나 죽이거나 태우지 않고
또한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으며
친하를 네 몸처럼 사랑하면
어딜 가나 원망 받지 않으리라

世黨有人 세당유인
能之慙愧 능지참괴
是名誘進 시명유진
如策良馬 여책양마

세상에 혹 어떤 사람이
제게나 남에게나 부끄러울 줄 알면
이를 일러 잘 이끄는 것이라 하니
좋은 말에 채찍을 더함과 같도다

如策善馬 여책선마
進道能遠 진도능원
人有信戒 인유신계
定意精進 정의정진
受道慧成 수도혜성
便滅衆苦 편멸중고

좋은 말에 채찍을 가하면
능히 먼길을 달려 가듯이

"이기려말고 천하를 사랑하면 누가 그를 원망하려 하겠는가"

관가에 끌려가 액난을 당하며
재산은 모두 흩어져 없어지고
피붙이는 서로 이별하리라

舍宅所有 사택소유
災火焚燒 재화분소
死入地獄 사입지옥
如是爲十 여시위십

저가 지닌 집과 재산은
모두 불 타서 재가되며
죽어서는 지옥에 들어가리니
이와같이 열가지 고통이 있느니라

雖裸剪髮 수나전발
長服草衣 장복초의
沐浴踞石 목욕거석
奈纔結何 나치결하

비록 비단 옷을 벗고 머리깎고
언제나 헐은 옷을 걸치며
목욕하고 돌위에 꿇어 앉아도
어리석은 번뇌는 어찌 하려나

不伐殺燒 불벌살소
사람이 믿음과 계율을 받아지니고
뜻을 다잡아 정진하면
능히 지혜가 성취 되리니
마침내 뭇 괴로움이 사라진다

自厥以修法 자엄이수법
滅損受淨行 멸손수정행
杖不加群生 장불가군생
是沙門道人 시사문도인

스스로 법답게 수행하여서
번뇌를 여의고 청정행을 닦으며
모든 생명체를 매질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문이요 도닦는 이이다

無害於天下 무해어천하
終身不遇害 종신불우해
常慈於一切 상자어일체
熟能與爲怨 숙능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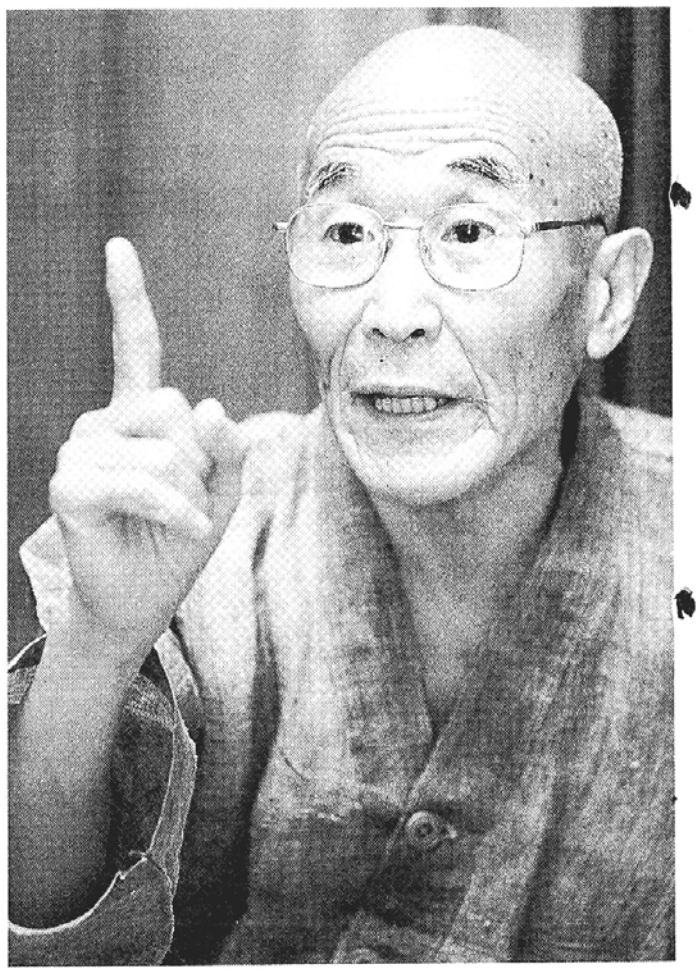
천하에 어느 것도 해치지 않으면
한 평생 해침을 받지 않으리니
언제나 일체 중생을 자비로 대하면
누가 그를 원망하려 하겠는가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거울에 낀 먼지 닦듯

법공스님 〈도안사 조실〉



육신은 영화스크린 같은 것입니다
영사기 비출때 휘황찬란하지만
영사기 멈추면 그냥 흰 천일뿐

복(福)중에서 가장 큰 복은 인연복이고 그 가운데도 스승복은 한량없는 귀한 복입니다. 바른 스승없이는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는 숙세의 인연이 좋아서인지 위대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일제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1935년 봉선사에서 운경스님을 은사로 입산했습니다. 운허스님께 경을 배우고 이어 한국불교 강(講)의 뿌리이신 대 강백 박한영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받고 정식 스님이 됐습니다. 이생에서 사람몸 받고 출가해 좋은 스승복까지 받았으니 그야말로 나는 복이 터진셈입니다. 그리고 평생이다시피한 많은 시간을 강원에서 부처님말씀을 출가학인들에게 전달하면서 나름대로 선방에서 20안거를 마쳤으니까요. 그저 이제 지극정성으로 도를 닦아 성불의 피안에 도달해야 하는 과제만 남았습니다.

내가 불연을 맺게 된것은 종립대학인 혜화전문이 생긴 그 이듬해 입학하면서입니다. 당시만 해도 어려운 시절이라 대학 공부를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찌보면 혜택이지요. 워낙 속가서 살때도 책들여다보는 일을 좋아했으니 나로선 더욱 질된 일입니다. 혜화전문 재학시절 공부에 그래도 물리가 터졌다 싶을 때인데, 그때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에 몰렸던가 봅니다. 날로 극악해지던 일제가 학병을 차출했습니다. 나는 학병으로 끌려가지 않기위해 광능 봉선사로 도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보였던 절 생활이 차츰 관심으로 와닿으면서 절 사무도 보게됐고, 불교가 어떤 가르침인지 알고싶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운허스님께서 내 욕구를 알아채시고는 경학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다가 40년 고창 선운사에서 한영스님에게 건당했던거지요.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대학을 마쳐야겠다는 생각이 납디다. 그래서 동국대로 이름이 바뀐 혜화전문에 다시 복학했고 결국은 49년도에 졸업을 하게된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서울 개운사 대원암에서 한영스님 슬하에서 공부하던 시간이 가장 소중했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당시 개운사 대원암은 최고의 강원이었어요. 청담스님등이 1회졸업생이고 쟁쟁했던 인물들이 배출됐습니다. 이후 봉선사 홍법강원에서 운허스님께 화엄경을 수학했습니다.

아물든 이세상에와 80년을 살면서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은 부처님과 정반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생로병사를 낙으로 알고 삽니다. 또 태어나면 죽는 것인데 마치 안죽을 것처럼 애를 씁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커집니다.

약력
- 1918년 서울생
- 35년 봉선사에서 사미계수계
- 40년 서울 개운사 대원암서 한영스님을 계사로 비구계수계
- 49년 동국대 문리대 졸업
- 49년 중앙종회의원
- 65년 가평 현등사 주지
- 64년~82년 법주사 강원을 시작으로 백양사 불국사 회엄사 청암사 강원서 강사
- 82년~94년 도선사 실달학원 강사
- 95년~현재 도안사 조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말고 '내 안에서' 찾으세요"

다. 또 중생들이 닦고 아끼는 몸뚱이를 부처님은 무상(無常)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은 내가 아니며 그 안의 마음 즉 자성이 '나'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은 마음이고 상락아정(常樂我淨)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끊어진 영원한 그 자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즐겁습니다. 그런줄도 모르고 중생은 마음의 그림자인 육신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육신은 영화 스크린과 같은 것이예요. 영사기가 비출때만 휘황찬란하게 모든 것을 담아내지만 영사기가 멈추면 그냥 흰 천일뿐입니다. 이처럼 헛껍데기인 육신만 좇다보면 쌓이는 것은 번뇌망상이요 업일뿐입니다. 결국 잘살겠다고들 하면서 전혀 잘못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가려운 내 다리를 긁는다면서 실컷 남의 다리 긁고 있는 형국입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도 자칫 배움 따로 행실 따로 살기도 하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부처님 삶과 정반대로 살 수 밖에 없는 것은 업 때문입니다.

불자들이 가장 많이 수지독송하는 〈반야심경〉의 첫구절에는 오온(五蘊)이 모두 공(空)함을 비추어야 일체 고액을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향상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온은 색(色) 수(受) 상(相) 행(行) 식(識)입니다. 색(色)은 물질이고 우리의 몸뚱아리며 나아가 이 우주전체가 물질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등을 통해 볼수 있고 들을수 있고 냄새 맡을수 있고 맛볼수 있고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색인 것입니다. 수(受)는 물질과 물질의 부딪힘곧 색과 색의 부딪힘입니다. 즉 우리의 감각기관에 어떤 반응이 오는 것이 수입니다. 상(相)은 좋다 싫다, 예쁘다 보기 싫다, 맛있다 맛없다 등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行)은 상(相)뒤에 따르는 반응행위입니다.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기피하고 성을 내게 되는 그것이지요. 탐욕과 분노심을 좇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식(識)은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능력이 자리를 잡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오온은 결코 고유한 실체가 없습니다. 서로의 부딪힘 속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고유한 실체없이 흘러가는 이 오온의 현상에 집착하여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체도 없고 흘러가는 것에 집착하면 그 결과는 괴로움뿐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의 번뇌와 망상이 깊어지면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낳게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돕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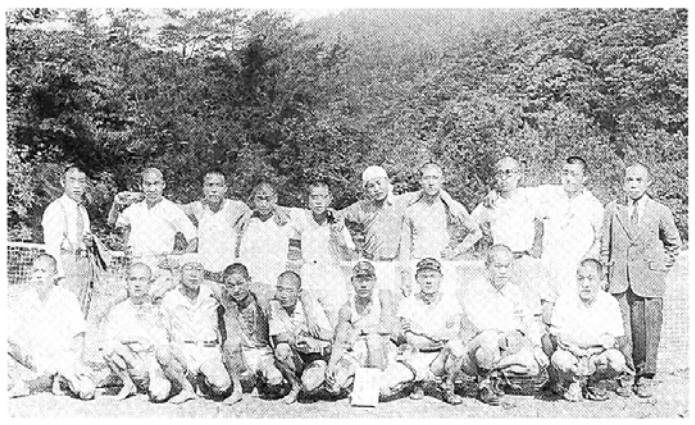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큰스님 수행한담

삼독 녹여야 '불자의 삶'



◇1941년 철원 심원사에서 학인시절 5월단오 체육대회를 갖고 기념촬영 했다. 앉아있는 앞줄 오른쪽부터 월하스님, 네번째가 법공스님,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이 강사스님.

"경전 수지독송하고 읽는 까닭은 禪旨 발견하고 따르기 위함이니 부처님 직접뵙고 가르침 듣듯하세요"

業은 윤회의 씨앗…집착하면 못 벗어나 불자의 목표 '성불'…보살행 실천하세요

됩니다. 물에 뜬 거품과 같은 망상이 금생의 삶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사실, 세상은 업에 따라 존재하고 사람 또한 업에 따라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업에 속박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업이 바로 금생과 내생의 삶을 되풀이하게 하는 윤회의 씨앗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업을 짓는 자이면서 동시에 업을 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라든가 "이게 다 너의 업이니 달게 받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장악하고 있는 업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전생업의 총보요 금생업의 일체종자라고 합니다. 조사님들은 내 마음이 움직이면 바로 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리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시 집착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이게 됩니다. 업장은 어머니 뱃속에 들기 이전부터 지니고 내려왔던 근본무명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마음짓거리입니다. 이 업이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장애물입니다. 그렇다면 업을 녹이는 것이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과 같이 불생불멸의 진리에서 살고자하는 것이 불자의 궁극의 목표이니까요. 우선 가장 확실하게 도달하게하는 것은 보살행을 닦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보세요. 쌓이고 쌓인 업을 녹이고자 3아승지겁을 닦으신분 아닙니까. 단박에 성불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생을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실천하세요. 그리고 경을 착실하게 보십시오. 불경은 중생의 고통을 녹여주고 고정화된 가치를 벗어나게 하며 어리석음과 미망을 깨뜨려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익히는 까닭은 경전 속의 선지(禪旨)를 발견하고 실천하여 그 경전의 큰 뜻을 깨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려면 우선 자신이 독송하는 경전의 내용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을 수지독송하기에 앞서 경전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경전에 대한 바른 이해는 중생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고 불자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중에 마음에서 산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큰 기쁨과 자유,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경전을 볼때는 속마음이 이미 고요하고 바깥 경계를 버려야 바야흐로 경전의 깊은 뜻과 하나가 되어 진리를 규명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물이 맑으면 빛이 어리고 구름이 흩어지면 달이 밝게 빛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럴때 경전의 바다와 같은 뜻이 가슴에 용솟음치고 산과 같은 지혜가 열리는 것이지요. 경전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삼학인 계 정 혜 3학을 닦는 일입니다. 경전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을 듣는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합니다. 읽을 때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음미하고 이해하면서 또박또박 일어내려가는 거지요. 경전은 삼보 가운데 법보에 해당하는 귀중하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경전마다 교화의 대상으로 문수보살을 비롯한 제자등 수많은 대중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부처님께서 수보리 아난다등 제자에게 설하고 계신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하고 읽어야 한다는 뜻이요. 이렇게 경전을 읽을때 몸과 눈과 입과 귀와 코로 숨을 쉬면서 읽어야 하니 뜻과 법문이 일체가 되어 비로소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경자 혜안통투(看經者 慧眼通透)라 하지않습니까. 경전을 보는 사람은 지혜의 눈이 크게 열린다는 뜻이지요.

경을 바른 마음으로 보면 참선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스스로 비추어보고 마음을 항상 반조해 보며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불자들은 부처님이 신장님들이 조사님들이 깨닫게 해주고 복도주고 바른길로 이끌어 주는 줄 아는데 그것은 삿된 생각입니다. 깨치기를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마음이 업(業)이 되어서 절대로 깨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은 불교가 아니구요. 항상 자신을 되돌아 보고 어리석게 살아왔으면 지혜롭게 살려고 정진하고 티가 묻었으면 닦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밝고 깨끗한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울에 먼지가 덮여 있으면 나를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지를 쓸어내면 내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거울의 먼지를 닦아 냈다고 해서 거울의 반사력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이미 본래부터 거울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드러내게 했을 뿐입니다. 불자의 수행도 삶도 이와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거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즉 본성은 완성된 부처님의 성품 즉 자성(自性)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두 훌륭한 불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울에 때가 끼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성(自性)이 탐 진 치의 삼독심으로 잔뜩 때를 입혀놓고 말았습니다.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듯 우리 자성을 가리고 있는 삼독심을 열심히 녹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때의 마음은 오직 간절함 뿐이어야 성과를 봅니다.

그리고 수행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허망한 물질에 불과한 상대적인 가치체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울고 웃는 행위 뒤에는 상대성이 있더란 말입니다. 좋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보다 비교적 좋다는 뜻이나 우수한 것은 저열한 것에 비해서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밖에서 찾으면 먼 우회로를 도느라 무척 힘이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금생에서는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곱아볼 수 있는 것이 살아있다는것 건강하다는 것 자유롭다는것이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실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을 찾는다면서 남보다 더 권력을 잡으려고 또 돈을 많이 가지려고 연연합니다. 돈이 많다해도 하루 네끼를 먹는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순금과 같은 우리 불성을 돌아볼줄 모릅니다. 결국 죽을때 가서는 잘못살았다는 것을 깨닫지만 어디 사람몸받기가 쉬운가요.

많은 사람들은 내 이력에 비추어 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말들합니다. 사실 법주사 백양사 등 숱한 강원에서 학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가르쳤다는 것은 내가 경을 통해 보고 배운 부처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내가 가르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다 부처님 가르치심인 것이지요.

정리=위영란 기자

나와 경전 26

여래장경



조 수 동
경산대교수 · 동양철학

일체중생 구제하는 자비정신 강조

"번뇌에 덮인 중생도 해탈할 수 있다"

불교의 궁극 목표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데 있다. 우리들이 모두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면 그러한 원리는 무엇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연기설을 가르치셨고, 그것은 무상 무아 또는 공의 이론으로 표현되지 않는가? 일체의 존재와 현상이 모두 무상 무아이고 공이라면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해탈의 주체는 과연 무엇인가?

나 또한 이러한 의문 속에 영남대 재학시절 불교학생회를 처음으로 만들어 본격적인 불교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내가 법우들과 함께 공부했던 경전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래장경〉이었다. 해탈의 주체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최초의 경전인 〈여래장경〉은 이후 내 학업에 까지 영향을 미쳐 여래장 사상을 주제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여래장경〉의 원전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경록(經錄)에 따르면 이 경은 기원후 291년에서 771년사이에 네차례 한역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당 불공 역의 〈대방광여래장경〉과 동진의 불타발타라 역의 〈대방등여래장경〉이 있고, 불타발타라의 〈대방등여래장경〉을 많이 읽고 있다. 여래장이라는 말은 인도어 tathagatagarbha로 '그 안에 여래를 감추고 있는 것' 또는 '여래의 태아를 갖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여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또한 그것은 불성(佛性)과 동의어이다.

〈여래장경〉의 근본취지는 "내가 부처의 눈으로 일체 중생을 관찰하니 탐 진치의 여러 번뇌중에 여래의 지혜와 여래의 눈과 여래의 몸이 있어 결가부좌하여 엄연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은 비록 여러 가지 윤회의 세계에 있지만, 번뇌의 몸 중에는 여래장이 있어 항상 오염됨이 없이 덕상(德相)을 갖추어서 나와 다름이 없다"라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일체중생이 여러 번뇌에 덮혀 있지만 중생에게는 여래와 같은 지혜, 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중생은 본래 여래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여래와 동일한 지혜, 마음, 눈이 있다는 관념은 바로 여래장 사상의 근거가 된다. 또한 경에서는 이러한 여래장은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든 하지않든 일체 중생의 마음중에 항상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 일체중생은 번뇌에 덮혀있으므로 이 번뇌를 제거하고 여래장을 나타내게 하기위해서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여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의 일체중생에 대한 자비심의 발로이다.

경에서는 이어서 여래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위해서 9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 9가지 비유는 첫째 시들은 연꽃속에 있는 여래 화신의 비유, 둘째 많은 벌들에 둘러싸여있는 청정한 꿀, 셋째 곡식의 껍질에 둘러싸여있는 곡물의 씨앗, 넷째 부정한 곳에 떨어져 있는 진금, 다섯째 가난한 집의 땅속에 묻혀있는 진보장, 여섯째 암라 열매 속의 씨앗, 일곱째 더러운 물건속에 감추어진 금상, 여덟째 빈천한 여인이 회임한 고귀한 아들, 아홉째 주형 속의 진금상이다. 이들 아홉가지 비유가 나타내는 것은 외형은 비록 쓸모없고 더럽게 오염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고귀하고 진실한 것이 있음과 같이 중생의 마음도 여러 가지 번뇌속에 덮혀있지만 오염됨이 없는 진실하고 부동한 여래의 마음과 같은 심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여래장경〉은 적은 분량의 경전으로 단지 성불의 가능성을 중생의 마음속에서 찾을뿐, 더 나아가 여래장 그 자체의 성질과 여래장과 번뇌와의 관계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이 미친 사상적 영향은 매우 크다. 이 경을 출발점으로 하여 여래장 사상은 〈부증불감경〉 〈승만경〉 〈보성론〉 〈대반열반경〉 〈대승기신론〉 등으로 발전하여 여래장 사상의 체계화를 이루게 된다. 〈여래장경〉은 우리들 중생심안에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해탈의 심성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극대화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붓다의 자비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경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불교해동종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 자비원

종정 석봉
원로원장 인현
종회의장 성타
사정 원장 선기
포교원장 대원
복지봉사원장 성용
연수원장 백당
문화예술원장 원표
총무원장 송산
부 원 장 법성
총무부장 경신
교무부장 진응
사회부장 혜월
사정부장 상오
사서실장 보성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393-1
전화: 0331)262-1577 · 263-1353
FAX : 0331)262-1577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머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 × 45Cm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몰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고은 불교대하소설

인다라망



33천이었다. 도리천이었다. 욕계 6천 가운데 제2천이었다.

수미산 정상이었다. 수미산은 우주 속의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묘고산(妙高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이 산이 바로 이 세상이 허공법계로 이어지는 우주 입문(入門)의 산인 것이다.

이제 천인이 된 우녀가 먼저 와 있던 인담을 알아 보았을 때의 기쁨은 여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도 깊이 맺어진 수행의 첫이었던 그들은 이성을 넘어선 이상이었고 동성을 넘어선 동성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천상세계는 무엇하나 고체로 경직된 것이 없다. 아주 헤아릴 수 없는 과거세의 한 시대를 주재하던 가섭불이 그 세상을 떠나자 그 가섭불을 한없이 그리워한 여인이 마음을 내어 탑을 세우자 그 뜻에 동참한 32인의 여인이 있었다.

그 가섭불을 위한 왕의 공덕으로 먼 훗날 수미산의 한 세계인 33천을 맡아 제석천과 그밖의 33천이 되었다.

중앙 선견성 사방에 각각 8천으로 위요되어 중앙과 변방이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 그 천신들은 높이 1백유순, 가지가 50유순씩 되는 원생수(圓生樹) 아래에 이르러 천상의 욕락을 받는 것이다.

또한 선법당에서는 33천이 8일 13일 15일에 함께 모여 진리에 대한 분별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음식시장이 있고 곡식시장 의복시장과 향시장과 공장과 여인시장 등이 있다. 이곳에서 성행위를 할 경우 천인으로부터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다가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천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곳의 1주일은 인간의 1백년에 해당하며 키는 1유순이고 처음 태어났을 때는 여섯살 정도가 되는데 우녀는 어쩐 일인지 젊은 시절로 되었던 것이다.

수명은 1천세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태어난 우녀 역시 최소한 1천년은 지나야 다른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허공법계의 가없는 우주 가운데서 4천년이나 만년이란 찰나와 다를 바가 있겠는가.

우녀는 인담 말고 무욕도에서 살았던 다른 사람들도 이 천상의 선법당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가 선법당에서 그들의 세상인 이곳 33천이 텅 비어버릴 날이 언제인가 라는 과제로 토론하는데 바로 우녀의 등에 손을 얹는 뒷자리의 천인이 있었다.

"빈 도리천이 가득찬 도리천보다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라는 말의 주인공이었다.



> 눈부신 빛의 화엄 도리천에서 만난
> 지난 생의 무욕도 도반들은
>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나누었다

우녀는 인담과 합두를 청해 서로 사랑할 것을 권유하고…

기억이란 그들의 지난 생과 지금의 생을 다른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동시(同時)로 받아들이는 천상의 황홀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어찌 오늘이 오늘만이고 어제가 어제만인가. 어찌 오늘이 내일없이 오늘만이 겠는가.

하늘 속의 행복은 그런 시간 속의 경계들을 때로는 하나이게 하고 때로는 여럿이게 하면서 시간이야말로 극락임을 보여주었다.

"오랜만입니다."

하도 벅찬 나머지 옛 인삿말이 나왔다. 인담의 목소리였다.

"오랜만입니다."

마치 인담의 말을 그대로 복창하는 것처럼 우녀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인간세상 그대로 우녀의 그 그윽한 목소리가 아니면 안 되었다.

33천은 32천과 제석천을 합친 것이다.

하늘 속으로 솟아난 수미산 정상에 그런 찬란한 세상이 있는 줄을 누가 알겠는가.

그 세상은 4면이 각각 8만유순이다.

그 위의 으리으리한 32개의 성이 있고 그 성을 주재하는 천신이 있다.

그 복판에 제석천이 머무는 선견성(善見城)과 수승전이 있다. 그 수승전은 수많은 종류의 보주(寶珠)로 둘러쌌는데 그 규모는 다른 천궁이나 성들을 다 가릴만 하였다.

7만7백의 방에는 각 방마다 정비 7천녀(七天女)와 그 천녀에 속한 7채녀(七綵女)가 있으므로 49만4천9백의 정비와 46만4천3백의 채녀가 있는 것이다.

아무튼 그 수승전은 보주가 달린 그물이 드리워졌는데 그 그물코마다 달린 보주가 빛을 내어 그 보주그림자가 빛을 받아 빛나는 것이다.

이런 빛은 빛의 그림자가 다시 빛을 낳고 또 그 빛이 빛을 낳으면서 서로 빛이 되는 그 일체 광명의 교향(交響)이 끝없이 펼쳐짐으로써 거듭거듭 다함없는 상즉(相卽)의 세계를 이루게 된다.

과연 눈부신 빛의 화엄이다.

그러므로 우녀의 눈인들 어찌 지그시 감지 않겠는가. 그는 인담과 만난 한동안도 결코 뜸거나 깊거나의 분별없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충분하였다.

이곳에서는 만날 생각만 내면 바로 만나게 되어 있다. 두 천인이 저마다의 일을 위해서 헤어진다 해도 그것이 아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천궁의 바깥에는 중거원(衆車苑)이 있어서 모든 천인들이 노닐때 타는 거마들을 대령하고 있다. 추악원(麤惡苑)은 다른 하늘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무기가 있다.

잡림원(雜林苑)은 천인들이 즐겁게 노는 곳이고 희림원(喜林苑)은 지극히 좋은 즐거움이 다함없는 곳이기도 하다.

본디 이 33천의 천상세계는 한갓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다. 그래서 선견성의 순금으로 된 천상은 그 부드러움이 솜뭉치와 같아서 그것을 사뿐사뿐 밟을 때는 발자욱이 나는데 그런 발자욱을 따라 오르내릴 수 있다.

그가 바로 우녀 뒤에 앉아 있는 합두였던 것이다.

그 목소리는 전생 지족의 사바세계 그대로의 젖은 듯한 목소리였다. 몇종류의 새소리를 조금씩 섞어서 그것을 흐르는 물에 적신 그런 느낌이 드는 합두의 그 영롱한 목소리였다.

우녀가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몇백년이 지난 뒤인지, 아니면 방금 그 말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녀는 이곳에 와서 차츰 이곳의 천상락(天上樂)을 누리면서 그 자신의 공부를 깜박 잊을 뻔 하였다. 너무나 즐거운 나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선법당의 동쪽 탑원(塔園)에 가서 탑을 구경하다가 선덕탑을 보게 되었다.

정확히는 선덕과 지귀를 함께 기리는 탑이었다. 선덕이라? 그것은 사바세계 고대의 신라 선덕여왕이 아니던가. 지귀라? 그것은 선덕여왕을 감히 사랑한 미친 사내가 아니던가.

신라 선덕여왕은 원효를 마음속으로 흠모하였다. 그러나 여왕은 나라의 위엄 때문에 몸시 자유롭지 못하였다.

여왕이었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넘보는 일이 많아 9층탑을 세워 그것으로 위엄을 장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느날 그가 한적한 산기슭에 납시었다.

그때 한 미친 사내가 방광한 나머지 땅바닥에 널부러져 자고 있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배행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 사내의 곡절을 알아보라 하였다. 알아본즉, 사내는 여왕을 사모하다가 미쳤다 하였다.

여왕은 그 사연을 듣고 한동안 명상에 잠겼다가 말없이 자신의 금팔찌를 끌러 그 잠든 미친 사내 가슴위에 놓아주고 떠났다.

미친 사내는 잠 깨어나 금팔찌가 바로 여왕이 놓은 것임을 알자 그 사랑의 기쁨 때문에 몸속에서 불이나 그 불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다.

여왕은 임종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은 곳은 욕계 제2천 도리천이라 하였다. 바로 33천이었다.

그는 죽은 뒤 33천에 태어났다. 그곳에 조금 먼저 태어난 지귀와 만나서 광등한 천녀와 천남으로 신적(神的)인 사람을 나눌 수 있었다.

몇번이고 인간세상의 몸으로 돌아가 성의 기쁨을 누리고 법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천상의 나날이기도 하였다.

그들이 다른 세상 - 그 세상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 으로 떠난 뒤 제석천은 여의지천(如意地天)의 주청을 들어 그들 선덕과 지귀의 탑을 세웠던 것이다.

우녀는 인담을 생각하였다. 그 자신도 인담과 천상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 저 무욕도의 수행시대는 그런 생각마저 깊이 삼가해야 할 노릇이었으나 이곳은 무엇하나 구애되는 바 없다.

아니 그런 생각 자체가 아무런 죄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고개를 몰안게 한 자락으로 저어버렸다. "아니로다"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합두가 떠올랐다. 우녀는 그 자신보다 합두가 인담과의 합신(合身)에 어울린다고 여겼다. 그런데리 인담과 합두는 전생의 어느 시절인 돈황 천불동에서 남녀로 지낸 적이 있는지 모른다.

우녀는 인담을 청한 다음 합두를 청하였다. 우녀의 거처는 선견성 바로 옆의 상행천(上行天) 한 누각이었다.

그는 두 천인에게 진지하게 사랑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권유의 말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방안의 향기조차 뚝 멈췄고 은은한 음악조차 멈춰서 과괴하였다.

합두가 눈물을 글썽였다. 우녀의 배려와 인담에의 오랜 소원이 합쳐진 감격인지도 몰랐다. 우녀가 그의 누각에서 나갔다.

그곳에 남겨진 인담과 합두는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것은 두 사람의 천상 애욕이 우녀의 법에 의해서 승화되었으므로 더이상 성행위와 같은 욕락은 바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무욕도 도반들과 함께 모입시다"라고 인담이 말하였다.

"아 무욕도!"

합두가 눈물을 새로 글썽였다.

그림 · 조향숙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97 문화유산의 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보급

· 청동 100%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40.5cm

조각기능 지정문화재 이진형 선생이 재현한
국보 제 83호 축소모형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737-8881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8-8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청주 (0415))63-3873
진주 (0591)747-0106 예산 (0458)33-5097 포항 (0562)252-7749 마산 · 창원 (0551)84-0735

평소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전하는 분의 품위가 기억됩니다.

■ 불교문화의 정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개인소장용으로 간직하실 수 있는 더없는 기회입니다. ■

"'간판' 보다 잠재능력·흥미 살펴라"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3〉

진로지도와 선세의 업

교육을 보는 관점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의 본질관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의 수단관이다. 교육의 수단관은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수단'이라고 보고 있으며, 교육의 본질관은 '교육은 인간존엄성의 신념아래 최대한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양대 관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 왔으나 산업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교육의 수단관이 득세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각 나라들은 정치, 경제, 사회발전을 크게 이룩하였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관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발전이 과연 인간 개개인의 행복에 얼마나 기여해 왔느냐에 대한 의구심이며 이로 인하여 교육의 본질관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런데 교육의 이상적인 상태는 두 관점을 통합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 능력의 최대한의 실현이 곧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에 직결되는 교육이 우리가 모색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모습을 바로 진로 지도에서 찾을 수 있다. 진로 지도의 원리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그림 · 이준석

전생과 현세 합친 '先世 業' 거슬리면 힘은 힘대로 들면서 좌절·갈등 나타난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능력의 최대한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할 때 그 개인은 학습에 몰입하게 되고 만족감과 희열감이 샘솟을 것이다. 동시에 직업사회의 현황, 변천에 관한 자세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하여 자기 적성에 알맞은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잠재적 능력의 신장을 근간으로 하여 진로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기 있는 직업, 사회적 평판이 좋은 직업을 정해 놓고 그 직업을 향한 교육을 한다면 자칫 갈등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개인의 불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대학 진학의 목적에 비추어 살펴 보기로 하자.

대학 진학의 목적에는 귀속적 목적(歸屬的 目的), 실용적 목적, 내재적 목적이 있다.

귀속적 목적은 대학이라고 하는 배경에 개인을 귀속시킴으로써 성취되는 이득을 말한다. 귀속적 목적만을 추구하여 대학에 진학한다면 세칭 일류대학의 일류학과를 나와야 하며 이 배경은 평생에 걸친 개인의 간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의한 대학 진학의 시기는 지났다. 왜냐하면 간판보다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실용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실용적 목적에서는 대학을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를 획득하는 수단이나 통로로 생각한다. 즉, 대학은 인기도 높은 직업을 얻는 통로로 여겨지며 그 대학 그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를 문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도 또한 지나고 있다. 왜냐하면 직종의 변화와 직종의 분화가 너무나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오늘의 인기직업 내일 사양직종 될수도 부모의견보다 개인행복·사회공헌 고려

오늘의 인기 직업은 내일의 사양 직업이 되며, 있었던 직종이 없어지고 없었던 직종이 새로이 나타나는 현 사회에서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대학의 학과를 선택할 수는 없게 되었다.

내재적 목적관이라 함은 최대한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대학에 진학함을 말한다. 그 학문이 좋아서 그 학과의 공부가 재미있어서 그 방면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대학에 진학할 때 비로소 잠재적인 능력의 최대한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만 개인적으로 행복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공헌할 수 있다.

얼마전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한 바 있는데 이 세미나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고 어른들이 듣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 때 고등학교 일학년 학생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하였다.

진로문제를 예로 들면, 부모님과 의견이 일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물론 우리들의 적성이나 성격을 고려하신 후 의견을 주장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부모님께선 미래에 유망한 직업 쪽이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진로를 권하신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다. 아직은 외관상 높은 위치에 있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흥미가 있으면 그쪽으로도 나가 보고 싶고 또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떤 정신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얻고 싶어한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부모님께 알리려면 대화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부모님 쪽에서 마음과 귀를 닫으신 채 부모님 의견만을 고집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직종이 다양한 사회에서는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공헌의 정도는 개인의 잠재적 능력의 실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과거는 직종의 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성적이 사회적 출세의 예언요인(豫言要因)이었지만 그러한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운동, 음악, 연극, 정치, 기업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눈부시게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가 학교 성적이 우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잠재적인 능력의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불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다. 그것은 업(業)의 소산이라고 본다. 유식불교(唯識佛敎)에서 말하는 업을 단순화하여서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무리가 따른다. 업중에는 공업(共業)과 별업(別業)이 있으며 이러한 업들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달라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 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잠재적 능력의 차이는 업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만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화엄경 토솔궁중 게찬품(華嚴經 兜率宮中 偈讚品)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여러 중생들은 선세에서 지은 업에 따라 이와 같이 각양각색이며 서로 같지 않음을 나타낸다.(隨諸衆類 先世所集業 如是種種 示現各不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선세소집업(先世所集業)'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소집업'이라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선세소집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크게 주목해야 한다. 흔히 '전세'와 '선세'를 동일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양자를 구분한다. 전생은 이 세상에 출생하기 이전의 삶이고 선세는 전생과 현재까지의 삶을 합친 것으로 본다.

잠재적인 능력을 '선척적으로 타고난 소질'로 풀이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오늘의 잠재적인 능력에는 선천적인 소질도 있겠지만 금세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룩된 소질도 함께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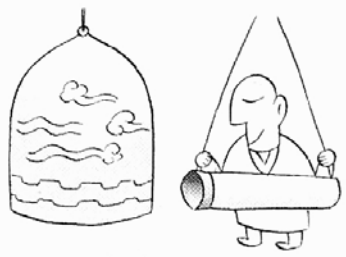
음악에 잠재적 능력이 있는 자는 전생의 음악적 업과 현세의 음악적 업이 통합된 상태로 되어서 이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업을 전생의 업-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으로만 규정짓는다면 숙명관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릴 때 음악적 환경에서 자랐으며 음악적 경험을 많이 함은 금생의 업을 짓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할 때 부처님의 선세라는 말씀은 전생과 현세의 지금까지의 시간의 통합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금생에 깨닫는 사람은 전생에 불도를 많이 닦은 업을 지니고 금생에 태어나 더욱 용맹 정진한 사람일 것이다. 논리를 이와 같이 전개하면 진로지도는 선세소집업(先世所集業)에 따라 해야 한다. 만일 이에 거슬리는 진로지도를 하면 힘은 힘대로 들이면서도 갈등과 좌절을 느낄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는 진로지도야말로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공헌을 이룩하는 길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도구(道具)'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할때 쓰이는 연장 연모 등을 말한다. 필기도구 건축도구 가재도구 등으로 사용된다.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용구이자 물품이다. 그러나 도구가 나쁘게 이용되면 "그 사람이 나를 자기 출세의 도구로 삼았다" "우정을 도구로 삼아 세속영달에 급급하지 말라"는 등으로 번진다.

도구의 어원은 철저히 불교용어에서 시작된다. 원래 도구의 진의는 수행하는 스님이 불도를 닦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잘 알려진 불교 도구는 목탁 운판 법고 범종의 4물(四物)과 염주 발우 죽비 등이 있다.

대표적인 도구로 대중들에게 익숙한 목탁은 법회의식이나 사찰경내에서의 생활에서 대중에게 무엇인가 알리는 신호로 쓰인다. 독경이나 염불할때 두들겨서 박자를 맞추고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 사용하며, 아침저녁에 예불할 때 절을 할 때를 알리기 위한 신호르 쓰기도 한다. 목탁이 도구로 사용된것은 고기가 밤에 잠을 잘 때에도 눈을 뜨고 있음을 본뜨기 위함이라고 한다. 수행자들에게는 잠이 큰 마군이다.

도구(道具)

목탁등 불도 닦기위한 보조물 수행용구처럼 꼭 필요한 물건

불사차원에서 조성되는 도구로는 범종이 대표적이다. 불법(佛法)의 종소리는 지하의 모든 지옥 중생에게까지 고통을 벗게하고 위로하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준다. 결국 부처를 이루어 중생을 모두 건지기를 염원하는 소리이다.

출가 재가자를 포함해 불자들이 가장 많이 수지하는 도구는 역시 염주. 염불하거나 절을 할때 돌리면서 수를 세는 도구이다. 백팔번뇌의 녹여버리도록 하는 108염주, 27단주 등 다양하다. 그밖에 스님들이 쓰는 도구로 불자(拂子)가 있다. 큰스님들이 법회의식에서 가사 장삼을 수하시고 불자를 들고 계시는데 이 불자는 번뇌의 티끌을 털어버린다는 상징으로 쓰인다.

도구는 수행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체의 용기다. 이런 진의를 지닌 도구가 많이 개발되어야 세상이 태평해질 것이다.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T) (0591)747-0106

btn 불교TV 32
신심으로 가는 깨침의 길
중국불교성지순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중국불교성지순례
불교TV와 함께 다녀오십시오

민족의 정기 서린 백두산
순례지
심양-연길-백두산-용정-도문-북경-대동-오대산-북경-청도
백두산성지순례 8일 ₩1,150,000





순례지
상해-보타산-영파-항주-황산-구화산-남경-상해
구화산 · 보타산 성지순례 8일 ₩1,150,000

중국불교성지순례 일정안내
• 출발일
구화산 · 보타산코스 : 10월 21일, 11월 18일
• 동참금 : 1,150,000원
• 20명 이상 신청시 출발일 조정 가능

불교TV만이 드리는 모방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
• 획기적인 가격
• 여유있는 순례코스
• 국내 최초 크루즈급 여객선의 최고 서비스
• 중국현지 최대 여행사의 넉넉하고 편리한 일정

예약문의 불교텔레비전 사업부 ☎(02)3270-3471~3 위동마린투어 ☎(02)711-0111

생활속의 모든 정보!
불·교·정·보 에서 만나세요.

함께 나누는

불·자·정·보

불자정보 광고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광고문의 전화 (02)732-1522(直)
FAX (02)737-0697

관 건 강 관

◆한 방 암 정 보◆
02)700-6366

◆당 뇨 가 이 드◆
02)700-6131

◆그린파워녹즙기◆
길동 02)470-3102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맞 외전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P. : 011-559-8128 보은암
경남 혼안군 군북면 해림리 우계동

◆대 보 생 식 ◆
잠실 183-10 02)427-9162~3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직갈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시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 원 합장
0415)63-0749 / 011)453-8611

전문시술원 張 三 洙
목·허리 디스크 **중풍 좌골신경통** 오십견·비만
퇴행성 · 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야)711-4370

관 강 좌 관

◆태극권 · 대안기공 · 참선◆
- 심신수련, 질병퇴치, 체질개선,
- 학생성적향상, 호신술, 집중력

◆氣 치료(팔괘상수요법)◆
- 모든 병 고침 (스님 환영)

◆ 생활역학 개인지도 ◆
- 초보자 쉽게 지도(3개월)
- 철학원 하실 분 꼭 상담바람

※감정비법 있음
02)242-6188
금 륜 정 사
덕 치 합장

철학의 길잡이

● 90분 녹음(166회) ●
교재 4권 1117쪽 녹음
기초부터 격국 · 용신까지
이석영 선생님의 제자 단원 선생님 강의
대구 단원문화생. 단국철학
053)475-2746
012)753-2746 · 011)535-2746
※ 맥문이 트입니다.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불교신문
강 룡 지 사
0391)653-1518

PIANO 전문 LESSON

⊙ 찬불가 (찬불가곡 · 찬불가요 · 찬불동요)
⊙ Jass Piano
⊙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자 3개월 완성(가요 · 팝송 · 가곡)

강남피아노 교습소
02)554-1512
(강남교육구청 신고 제9657호)
강남역 8호출구 앞 3층건물의 2층

신 생 아 작 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월 4회 실시·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관 구인·구직 관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위치 : 부산광역시 연산동

비구사찰에서 도반과 같이 함께 수행정진하실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051)758-6022
대한불교조계종 정수사

공양주 구합니다

경남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 산 3번지
보 림 사
0593)854-0262~3

사찰(포교원)에서 불교대학 다니며 수행할 젊은이 구함

※학자금 및 생활비 지급
032)503-4883/4886
017)321-4883
부름정사 주지스님

사찰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0443-45-7604

◆ 기도객 받습니다 ◆
심신이 피곤하신 분들· 조용한 산사에서 수양하실 분들 연락바랍니다.
다솔사 부근 0593)854-0262~3

◆수양·공부·기도 모집◆
청 학 사
0595)83-2933

관 불교용품 관

◆ 宇井아트企劃 ◆
광섬유 연꽃 제작
종로구 인사동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보련각서점◆
견지동 02)733-9537

◆예 진 솔 ◆
견지동 02)736-5160

◆견지불교사◆
불교서적 · 어린이용품 전문점
견지동 02)739-3032

◆大 福 田◆
佛 敎 用 品
견지동 02)737-0969

◆녹 야 원◆
견지동 02)739-0957

◆ 아전전통칠기공방◆
목발우 · 제기 · 다기잔
· 소반 · 주방생활용품
옻칠공예 지정문화재 수리 기능인 작품
▶전화 : 494-0520
※ 24시간 전화주문 가능

◆여 래 사◆
견지동 02)730-6939

◆성불사(구 승복센타)◆
견지동 02)636-1128

◆太成佛敎社◆
불교 · 단청 · 개금
견지동 02)732-7375

관 불교 미술 관

佛 心 여래미술원
* 탱화 * 개금
정 우 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92-1 (봉선사 입구)
사무실
0346)571-5537
0346)575-5133
011-324-5133

大圓佛敎美術院
金魚 李 鍾 春
* 불화 조성 전문
13, 15, 16회 불미전 입상
0346)571-6581 (화실)
011-737-6581

탁자, 달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요불사업적 ◇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달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웅각 목전함
- 음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 대웅전 문짝 달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달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달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 貴 玉 합장

관 승 복 관

◆ 대 성 승 복 ◆
대표 임 현 호
(단체주문 우대)
견지동 02)739-6287

◆ 가 람 승 복 ◆
견지동 02)739-0080

관 사 찰 안 내 관

포교당 안내

◇ 위 치 : 경기도 군포
◇ 평 수 : 40평
(법당 20평, 방2칸 · 거실 · 주방)
◇ 가 격 : 보증금 (시설비포함) 6,000만원 · 월20만원
◆ 역전에서 5분거리, 교통의 요지
0343)53-8967
012)1106-1651

포교당 안내

◇ 위 치 : 서울 중랑구 면목동
◇ 평 수 : 약 30평(법당 약 15평, 방 두칸, 주방 한칸)
◇ 가 격 : 보증금(시설비 포함) 3,000만원, 월 70만원
02)438-2973

◆ 사 찰 안 내 ◆
◇ 위 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 평 수 : 대지 400평, 건평 40평
◇ 가 격 : 보증금 500만원
053)981-8167

포교당 안내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 평 수 : 3층 건물 2층-20평
◇ 가 격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02)447-8487
0342)757-8991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의성
◇ 평 수 : 1,400평
◇ 건 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미륵민 · 요사채 2동
◇ 가 격 : 1억 2천(가격 절충)
◆ 무속인이나 보살은 거절
0576)862-0674
천 은 사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여주
◇ 평 수 : 1,500평 (등기평수 1,330평)
◇ 건 물 : 법당 18평(목조), 요사채 56평, 법회당 40평(목조한옥),
◇ 일주문 · 요한각 · 석등 2개, 산신각 4평
◇ 가 격 : 상담후 절충
◆ 서울에서 1시간거리, 여주에서 10분
0337)82-7339

사 찰 안 내

◇ 위 치 : 인천시내
◇ 평 수 : 대지 56평, 건평 30평 (인법당 · 방 2개)
◇ 가 격 : 1억 3천만원
032)581-3689

사찰및 사찰부지

◇ 강원지역 태백시 : 1억
◇ 원주시 : 5천~1억
◇ 평창읍 : 1억 5천
◇ 제천 · 제천시 : 2억
◇ 사찰부지 : 5백~5만평
◆ 물건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십시요.
전 화 0371)762-1800
휴대폰 011)466-1802
삐 삐 012)397-6003
담당 : 한 상 철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김천(계곡좋은 휴양지)
◇ 대 지 : 580평
◇ 건 물 : 법당겸 요사 28평, 삼성각 10평, 기타 10평
◇ 가 격 : 1억 5천(더이상 조정안됨!)
◆ 벌장이나 가든으로서도 아주 좋음
0547)437-4135~6

포교당 안내

◇ 위 치 : 대구시 효목동
◇ 평 수 : 법당 60평
◇ 가 격 :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053)944-0778
0599)32-8216

암 자 토 굴 터

▷ 위 치 : 경남 의령
▷ 평 수 : 1,400평
▷ 가 격 : 1억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게 짜였고,
앞의 저수지 옆에
계곡을 낀 최적의 암자터

※평탄 작업을 해놓았고 차량진입가능
답사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전 화 : 0595)82-4715
핸드폰 : 011)553-8898
호 출 : 015)528-4477

포교당 안내

◇ 위 치 : 대전광역시
◇ 평 수 : 40평
◇ 건 물 : 법당 30평, 요사채 2칸 욕실완비
◇ 가 격 : 전세(시설비포함) 3,800만원
042)527-0559
02)372-0037

사 찰 안 내

●위치: 서울관악구 신림본동 (신림역 6분거리)
●대지: 53평
●건평: 2층 36평, 지하 3평
※ 경전 · 불단 · 엠프시설 · 에어콘 · 지하수
● 가격 : 상담 절충
02)857-0074

포교당 안 내

◇ 위 치 : 평택 대로변
- 서울에서 1시간이내
- 시장 · 터미널 · 주요관공서와 10분이내
◇ 평 수 : 3층 57평
◇ 가 격 : 전세 5,000만원
0333)665-6686
0522)87-2276

토 굴(암자)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 대 지 : 40평 (건 물 20평)
◇ 가 격 : 600만원
◆ 스님들께 양도바람.
0397)73-7190
012)1085-2159

◆위 치 : 충북지역 시내 교통중심지
◆부 지 : 743평 목조
◆법 당 : 20평 단청 및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요 사 : 50평 접견실 및 주지실 공양칸 기타 대중방
◆가 격 : 1억 6천만원/차량 2대 운행중
◆ 특 징 : 시내 중심지에 소재하면서 독립된 산속에 위치한 기도 및 포교도량의 본산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 드리고 양도의 사찰 법통,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 상담이나 대리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전국지역 사찰 건축, 단청 전문기업
동 국 불 사
상담전화:015)124-6334
(24시간 호출중)
서 울 본 사 :02)3705-4447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사찰 · 사회복지 민간시설 · 어린이집

◇위 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평 수 : 75평
◇보증금 : 8,000만원(월 120만원)
02)956-7191

전국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하실 분이나
운영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 진 불 사

관 여 행 사 관

◆ 불교성지순례 ◆
(주)성문관광
종로구 청진동
02)722-2233(代)

◆ 스마트여행사 ◆
당산동 02)631-9412

관 장 의 관

- 불교장례대행 -
◆ 대한불교연화회 ◆
불교식 장례를 불자들 손으로~
02)732-9618~9

관 탈 종 공 고 관

연대 탈종 공고

아래 각 사암은 당 종단에 모든것이 뜻에 맞지 않아 탈종공고합니다.

사찰명	주 지
나전사	이 영 기
관음사	이 점 두
광대사	이 덕 암
백연사	최 청 호
청명사	김 연 자
월명암	윤 금 중
정법사	김 순 자
약사암	라 소 희
용수암	엄 복 기
봉불사	최 갑 순
선인암	박 상 여

대한불교 조동종 귀하
1997. 10. .

관 필 방 관

◆大興堂筆房◆
대표 권 대 일
견지동 02)732-7326

◆大新堂筆房◆
견지동 02)732-2830

◆安國筆房/書籍◆
● 서예서적,
● 미술서적,
● 붓 · 먹 · 벼루 · 화선지
견지동 02)732-4846

◆丹 陽 筆 房◆
대표 신 태 식
서예도구 일체
공평동
02)720-9991

◆ 文 寶 堂 ◆
韓紙/筆房
대표 전 인 주
● 붓 · 먹 · 벼루 · 화선지
견지동 02)735-3270

관 표 구 관

◆성 신 표 구◆
인사동 02)734-2344

◆낙 원 표 구◆
인사동 02)734-2972

◆명 륜 표 구◆
인사동 02)736-1712

◆박 당 표 구◆
인사동 02)735-5696

◆고미당 표 구◆
인사동 02)735-2037

◆신신표구사◆
인사동 02)735-2710

◆서 광 표 구◆
인사동 02)720-7442

◆은실화랑표구◆
광명시 02)682-7536

관 화 랑 관

◆용정 콜렉션◆
중국미술품
02)735-2700

◆동 성 방 화 랑◆
고서화.한국화
02)723-6577

◆금 성 화 랑◆
인사동 02)733-2462

◆가 람 화 랑◆
인사동 02)732-6170

◆경인미술관◆
인사동 02)733-4448

◆대호고미술전시관◆
답십리 02)212-8777

◆대 림 화 랑◆
인사동 02)733-3788

◆예 림 화 랑◆
인사동 02)732-3318

◆대 림 화 랑◆
고서화. 한국화
인사동 02)733-3738

◆ 갤러리 대아 ◆
서 양 화
02)517-2558

◆동 원 화 랑◆
인사동 02)736-3852

관 학 원 관

◆시사일본어사◆
● 1집 초, 중급편
● 2집 고급편
● 3집 LIVE편
NHK 일본어
국내독점 라이센스 시사일본어사
02)720-3690

한국역학대학
(97년 제 2기 신입생 모집)

1. 교육기간 및 과목
- 교육기간 : 6개월
- 교육과목 : 오행역학, 주역

2. 모집인원 및 제출서류
- 모집인원 : 3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 1통
· 주민등록등본 : 1통
· 반명함판 사진 : 1매

02)423-6446

관 기 타 관

◆ 불사 어려우신 스님들 ◆
※ 상 담 바 람
02)924-8047

굶주리는 북녘 동포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따뜻한공기 나누기
02)3672-5373
계좌번호:국민은행818-21-0197-670
예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국가공인활법사(척추교정)◆
◇ 중국국가침구의사 자격증
◇ 다년간 일선군부대 및 해외포교 의료봉사
불사 어려운 사찰교인 및 스님들 연락주시면 기꺼이 동참
0342)718-0420
011)245-5467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고정됨 없이 돌아가기에 묘법"

경전을 대하는 바른자세

문 불교에는 유달리 경전이 많고 해설서나 법어집, 강의록 등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려보기 어렵습니다. 마음공부하는 과정에서 경전이나 법어집 등의 중요성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지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자세로 대해야 하고 어느만큼 참고해야 하는지요? 〈오승운〉

답 부처님께서 평생 설하신 것을 경전으로 편집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 "마음은 체가 없어 아비도 되고 아이도 되고 소도 말도 될 수 있으니 참 편리한 공부지요"

나로서는 경전을 봐야 옳다, 안 봐야 옳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오장육부 속에도 천차만별로 모습들이 다르고 행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듯이, 사람마다 마음 내는게 천차만별로 제 그릇따라 다른 데 누가 봐야 옳다 안 봐야 옳다고 단정적으로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많은 경전을 풀이해 놓은 책 중에는 기복의 관점에서 써 놓은 게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마음을 계발하고 지혜롭게 발전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아쉬운 대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요.

우리가 보고 들지 못한 것은 이름을 몰라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먹어보지 못한 것은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참고적으로, 길잡이로써 경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복으로 풀어놓은 것은 이치에도 합당치 않고 그 자체로는 죽은 글이니 길잡이가 될 수 없죠. 그러니 살아있는 책이어야 합니다.

어떤 돌부처가 말입니다. 있던 자리에서 옮겨놓고 나니까 꿈에 '나는 가기 싫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있던 자리로 옮겨 놨다는데 그와같이 돌에도 생명이 없는게 없는데 하물며 진리를 바로 밝혀놓은 책이겠습니까? 일체제불의 마음이 거기에 함께 하고 있으니 마음공부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마음으로 읽어보는 것도 좋지요.

문자를 외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기복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읽다보면 문득문득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마음을 활용하는 방법

문 법문을 듣다보면 가끔 한생각 일으키는 마음의 작용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또는 마음의 광대무변한 작용 즉 묘용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

주위에선 무슨 일에 부딪쳤을 때 마음을 낸다는 말도 합니다. 짐작하기에 그런 게 다 마음의 활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 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는 게 그대로 참선이요 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일과 마음의 활용은 어떻게 다른지요?

마음을 낸다, 활용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경지, 또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희선〉

답 활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그것은 어느 것 하나를 세우는게 아니고 저 그릇으로 말하면 완전하게 빈 그릇, 그러니까 언어조차 세울 게 없는 차원입니다. 너다, 나다를 세울 게 없는 자리에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니까 너 자신을 발견하라고 했고 발견하면 그냥 그대로 묘용인 것입니다.

다시말해 내게 고정관념이 없고 일체가 비었다는 사실을 알면 무슨 활용이 다 주인공이다를 떠나서 그냥 한생각 일어날 때에 전체가 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대로 묘법이 활용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칫 활용법이 따로 있거나 새삼스러운 능력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견성성불할 수 있음을 믿고 얼마나 그릇을 비웠느냐에 따라 바로 응신을 하는 것이지 뭘 해달라 하는게 아니지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맛을 볼 양으로 '이렇게 됐으면' 하겠지만 그게 활용법인 줄 알면 그건 가르치는 사람의 뜻을 망각하고 자기도 함정에 빠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함정에 빠뜨리는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 맛을 보고 콧김이 더워지니까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착을 두면 그냥 뭉턱 잘라 버립니다. 들고가던 등불을 훅 불어 끄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이구 전에는 밝았는데 캄캄해졌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럼 그것도 놓아라 이거지요.

활용법이란 말부터가 그렇지, 전부 공해서 돌아가는데 무엇을 세워서 활용한다고 말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제가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자고 싶으면 자고…, 무엇 하나 세워서 나라고 할 것이 없이 그릇이 빈 채로 돌아가면 그대로 활용이고 그대로 참선이지요. 활용이다 참선이다 하는 언어도 붙질 않지만요.

사람들은 신묘한 작용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본래 숨 들이쉬고 내쉬는게 활용이고 눈 깜짝거리는 것도 활용이고….

누군가가 내게 와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천도 좀 시켜주십시오'했다고 합시다. 그가 말했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함도 들음도 없기에 듣는 순간 곧바로 내가 지장이 된다 이겁니다. 무슨 천도를 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조차 붙질 않지요, 그 순간에. 그러니 그냥 둘 아니게 응했다 이거지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니 그냥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니 그냥 아버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이라고 한다면 그릇을 비운 자리에선 벌써 전체가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몰록 놓아라, 왜 못 믿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도 '그러다가 안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해요. 찰나인데 그런 생각할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십만 팔천리지요.

그러니까 사량이 붙을 자리가 없어요.

한생각 낸다고 하는 것은 머무름이 없는 자리에서, 일체가 공해서 돌아가는 줄을 믿고 둘 아니게 응하는 데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활용법입니다.

'주인공' 공부와 '이뭣고' 차이점

문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오랫동안 산 속에서 고행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따로 스승이 없으셨는데 불현듯 의정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리고 스님께서 공부하신 방법과 저희가 참선공부에서 많이 듣는 방법, 앉으나 누우나 항상 '이뭣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요? 〈김일두〉

답 내가 산으로 다닐 때는 따로 공부를 한다 안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무엇이 되겠다느니 깨우치겠다느니 하는 생각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다만 내 주장자 하나 쥐고 그걸 스승삼아 살게 되면 살고 죽게 되면 죽을 뿐 아랑곳하지 않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불쑥 의정이 나면 그것이 풀릴 때까지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게 공부였는지….

어느 날 밤길을 가다가 법당 앞에 이르게 됐어요. 하룻밤 보낼 요량으로 옆문으로 몰래 들어갔는데 거기에 삼불을 모셔놓은 걸 보자 '왜 삼불을 모셔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의정이 나는 거였지요.

그런데 해답이 뚝 떨어져 나와야 말이지요. 그래서 꼬박 밤을 새웠지요.

그러다가 '아하, 저분들은 모두 삼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니까 한마음 속에서 이 부처도 나오고 저 부처도 나오니 다 삼촌이지 뭔가 한거지요.

오른 팔 왼 팔이 다 한 몸에 붙어 있듯이 '그래 마음내고 움직이는게 다 보현이고 문수지 뭐겠느냐'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엔 그럼 칠성각은 뭐고 삼신각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누가 옆에서 땡겨주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도무지 아무 말도 들어본 일 조차 없었으니 어쩝니까? 또 꼼짝하지 못할 밖에요. 그러다가 '그래, 그게 검사고 판사지 뭐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한마음 자리에선 검사도 생기고 판사도 생기지 뭐 따로이겠느냐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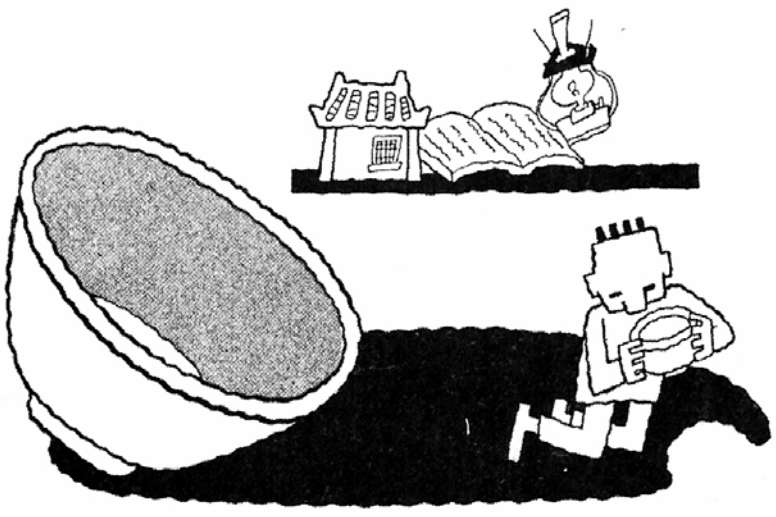
내가 내 생각을 해보아도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참 당돌했어요. 죽는다는 걸 겁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참 편리한 공부지요, 이 공부가.

안그런가요?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애비도 되고 아들도 되고 어른이 되었다가 아이도 되고, 저 소도 되고 말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이라는 게 앉았어도

☞ 18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무엇하나 세워서 '나'라고 할 것 없이 그릇이 비어 둘 아니게 응하는게 활용"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⑫

씨앗이 약하면 열매가 적다

"흔히들 한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한생각 던져 놓으면 언젠가는 되돌아 나오게 된다.

또한 아무 집착없이 한생각 일으키면 온 우주의 마음이 함께 한다.

마음은 자력 · 광력 · 전기력 · 통신력을 다 갖추고 있다. 무한의 능력을 가졌기에 자력으로 끌어 당기기도 하고 통신력으로 주고 받으며 자재로이 통할 수도 있다. 고로 나를 내세움이 없는 가운데 아주 역력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근본에서 빛보다 더 빠른 에너지가 나와서 법계에 두루 통할 수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한다."

나무는 뿌리의 힘으로 산다. 뿌리가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 이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잎새도 가지도 자랄 수 없다. 꽃을 피울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고로 뿌리는 생명의 원천, 성장과 활동의 근본적인 기반이 된다.

사람의 경우는 어떠한가. 무엇이 그 뿌리에 해당하는가. 비록 정체를 확연히 알지 못한다해도 무언가 생명의 근원은 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이름하여 불성, 진여 또는 한마음이라고 하는데 사람뿐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은 영원불변의 생명력을 뿌리로 하여 모습을 이루고 활동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 영원한 생명력은 우주 존재의 근본이자 나의 뿌리인 것이다.

영원한 생명력은 다만 힘의 원천이 되어줄 뿐 경계에 관여하지도 간섭하지도 않는다. 뿌리가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잎새와 가지에 공급해 줄 뿐 그 이상의 다른 작용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존재의 뿌리를 흔히 저 바퀴의 축, 심봉과 같다고 말한다. 심봉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힘의 원천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소와 몰이꾼과 달구지로 비유할 수 있다. 달구지는 육신이고 몰이꾼은 마음이며 소는 생명력의 원천(불성)에 해당된다.

따라서 몰이꾼인 마음은 소와 달구지를 연결해서 제 기능을 발휘케 하는 중계자가 되는 셈이다.

달구지를 움직이게 하려면 몰이꾼이 고삐를 잡고 소를 몰아야 한다. 이때에 몰이꾼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구지에 짐을 더 싣거나 덜 실을수도 있고, 소를 빨리 가게하거나 천천히 가게할 수도 있다. 소는 몰이꾼이 마음먹은 대로 거기에 맞춰 힘을 써줄 뿐 먼길이든 가까운 길이든, 짐을 잔뜩 싣든 반만 싣든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달구지가 움직이는 상태는 몰이꾼의 한생각에 달려 있다.



마음은 이 몰이꾼처럼 중계자의 역할을 한다. 내 육신 살림살이와 영원한 생명의 원천(존재의 근본 · 나의 뿌리)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고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무한량의 힘을 이끌어 쓸 수도 있고 조금만 취해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법은 묘법인 것이다.

자신의 살림살이는 전적으로 몰이꾼의 한생각 차이에 좌우된다. 한생각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일의 성취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다. 행복과 불행, 질병이나 고통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내 뿌리의 무한한 힘을 어느만큼 확고히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믿음이 강하면 끌어쓰는 힘도 강하고 그럼으로써 나의 행동, 나의 육신, 나의 삶은 강하고 밝고 건강해 질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혹은 믿음 그 자체가 없다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힘이 약해져 나의 삶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한생각의 힘이 가장 강해질려면 첫째는 믿음이지만 필수적으로 순수한 긍정이 뒤따라야 한다. 욕심, 이기심에 근거한 집념은 비록 힘이 있는 경우라도 주위에 나쁜 영향을 주게되고 그것은 반드시 나를 치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온다.

고로 그것은 오히려 삶의 질을 좀먹고 병들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성공적인 삶, 건강한 삶에 역행한다. 그렇기때문에 바른 생각, 나의 이기적인 계산이 배제된 생각이라야 진정으로 힘 있는 한생각이 된다 법계가 들석거리는 한생각이 되는 것이다. 건강한 마음의 씨앗에는 많은 열매가 있다.

협찬 : 김 정 혁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형상 차별두면 부처님 법 못 꿰"

☞ 17면에서 계속

앉은게 아니고 서도 선게 아니고,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이 우주 자체가 그렇지요. 그러니 어디 문 열 자리가 있고 문 닫을 자리가 있으며 동서 남북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깨우쳤다 못깨우쳤다라는 언어도 이름일 뿐이지요.

그래서 건질 수 있는 거지요. 한 생각 일어날 때 그냥 한 생각으로 다 건지시고 나온 게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그러기에 말인데 '이뭣고' 하는 공부와는 일치가 되면서도 일치가 안 되지요.

지금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번연히 내가 이렇게 나온 줄을 알면서 이뭣고하고 있으면 될까요? 돌과 돌이 부딪쳐야 불이 번쩍 나지요? 그런데 양손에 돌을 들고 이게 뭘까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남이 준 걸 들고서 말입니다.

예전에 세존께서 화두 주는 걸 보았습니까? 그러기에 무조건하고, 내가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나오는 데가 있으면 나오는 것이라 사방이 툭 터진 것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고 말기고 관하라 이겁니다. 요즘처럼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세상에 이뭣고 하기 이전에 내가 던져보고 내가 지켜보고 내가 실험하고 체험해야 하겠지요.

이뭣고 화두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예전 세상하고 지금 세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비구 · 비구니 차별 있는데…

문 부처님 법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다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깨우치기만 하면 부처님과 한 자리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율법에 따르면 80세 비구니라도 어린 사미에게 예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대부분의 비구니 스님들은 금생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 남자의 몸을 받아서 성불하기를 발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재세시에 여성의 출가를 꺼리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도 비구·비구니를 차별하는 종단의 분위기를 느끼고 계실텐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요. 〈이제영〉

답 항상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람끼리의 만남도 그렇고…, 연방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나요? 여자를 만났을 땐 여자의 하나되고 남자를 만났을 땐 남자하고 하나되는 법인데 구태여 남자 여자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현실의 법에서도 찰나찰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부처님 법에서는 그냥 역량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차원이 낮으면 낮은대로, 높으면 높은대로 거기에 맞춰서 응하고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억겁을 돌고 돌면서 전생에 뭐는 안 되었겠습니까? 어머니도 됐고 아버지도 됐고 비구도 됐고 비구니도 되었을 텐데…. 그래서 비구 노릇도 비구니 노릇도 둘 아니게 할 수 있으련만 그 뜻을 모르니까, 지금 짊어지고 나온 자기 전생을 모르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저 파리를 보세요. 구더기가 파리가 되었는데 그 파리가 구더기 적의 생을 안 가지고 나온게 아니지요. 즉 파리이자 구더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리르만 득세를 하고 구더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를 맛볼 수 있으며 자기의 생산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산처에서는 비구도 비구니도 다 요리해 낼 수 있는, 말하자면 한군데에서 비구 비구니가 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군데서 나는 법인데 어째서 비구 비구니가 다르냐는 겁니다. 모습이야 다를지언정 어떻게 생명이 다를 수 있고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까? 마음 내는 것도 둘이 아니거든 어째서 달라요?

부처님 법에서 비구 비구니가 나는 것은 비구를 알아야 비구니를 알고 비구니를 알아야 비구를 알겠기에 한군데서 다 낳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김치를 담그는데 파 마늘도 있어야 하고 배추 무우도 있어야 하는데…, 그릇도 있어야 하고 물도 있어야 하는데 파는 파요, 마늘은 마늘이다 한다면 어떻게 김치라 하겠습니까? 설사 김치를 담갔다 해도 또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그릇은 아니다고 한다면 그걸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금강경〉을 달달 외었다 하더라도 유위법만 알아서 이 물건이 어떻다, 저 물건이 어떻다고 한다면 정작 무위법의 뜻은 몰라서 부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법을 해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지 진짜 설법은 못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데에 떨어져서는 안되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하늘이 제일이라 한들 땅이 없다면 하늘이란 소리를 못 듣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서 만물을 길러내기에 모두를 합쳐서 '원통'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뭘 추려낸다면 어떻게 원통이 될 수 있겠나요? 진리라고 어떻게 말하고 사람사는 이 세상이 부처님 법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고 그 가르친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여자는 애정이 많고 착이 많아서 그것을 떼려면 남자보다 어려울 것이라 하셨는데 재세시의 전통때문에 그리하셨을 뿐이지 여자는 성불하지 못하리라는 법을 설하셨던가요?

시대가 바뀌어서 여자도 대통령 하는 세상이고 살림으로 말하면 옛날 속담에 과부 허리 춤엔 은전이 서말이고 홀아비 허리 춤엔 이가 서말이라고 했듯이 살림도 잘하고….

여자는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고, 그렇듯이 어머니 바탕을 지니고 나왔거늘 그 어머니 바탕이 싫다, 못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개공이 됩니까?

여기 물담긴 그릇이 있는데 그릇과 물이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지·수·화·풍 사대 중에 한가지라도 빼놓아서는 안되고 다 갖춰서 생명들이 생겼고 모습을 바꿔가며 예까지, 인간까지 진화되어서 누구나 부처될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지 한 장 사이라고, 마음 한번 돌리는데 달렸거늘….

애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찍 죽든 늙어죽든 다 죽어지면 다 늙었건만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살던 차원, 애로 살던 차원을 다 놨다 하면 무슨 차별이 있느냐, 모습만이 여자이지 마음이야 남·여를 구별할 수 있느냐이 말이죠. 비구가 집을 비워놓은 빈 집이라면 비구니가 비구가 되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비구지 뭐가 다른가요? 천녀가 사리불이 되고 사리불이 천녀가 되고…, 자연스럽게 무위법을 쓰는데, 이 물건 이게 공해서 사방을 왕래하는데 그게 어째서 비구 비구니 모습을 가지고 한 얘기냐 이거죠.

그냥 흙은 흙대로 쓰고 물은 물대로 쓰고 불은 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용도껏 다양하게 쓸 뿐이죠, 이걸 다 버린다면요. 다 버렸는데 남자 여자를 따져요? 분별부터 놓아라, 너부터 버려라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수없는 나날들을 거듭거듭 살아 왔고, 그걸 한번 쳐다보았을 때는 하도 기가 막혀서 웃고,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 틈에 비구 비구니 찾을 겨를이 어디 있답디까? 여자 남자가 따로 없다는 말을 하는 것도 참 대수롭지 않죠. 너무나 당연하기에 '에이 그까짓 건 말해서 무얼해' 할 뿐이죠.

또 다음 생을 기약한다지만 다음 생에 뭐가 될지…, 그리고 그걸 기약을 해요? 다음에 내가 구더기가 된다, 남자가 된다, 무슨 성불을 해서 보살이 된다, 이런 마음 갖는다면 그건 절대 금물이죠. 뭐가 된들 어떤가요. 삼세가 공한 줄 알아야 지금 앉은 자리에서 끝간데 없이 수천수만가지로 마음도 내고 다 해낼 수 있죠.

그리고 그 율장에 있다는 얘기는 난 깨달은 사람의 얘기라고 보는데 계율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 여자의 입장, 그러니까 자식을 위하서, 남편을 위해서 다 내주고는 빈 껍질만 남는 그 끈끈한 애정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라고 봅니다. 미물까지도 제 속을 파 먹이고 껍질만 남는 모성애를 가졌는데, 그래서 그걸 떼어 버리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 모성애를 오히려 하대를 해서 그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어렵다는 얘기이지 하대하는 말은 아니지요.

날보고 비구니가 어쩌고 한다는데 그야 비구닌 비구니지요. 모습이 비구니니까. 하지만 그 비구니라는 모습 속에 있는 나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저를 꿰뚫어 본 이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볼 수 있다면 나도 볼 수 있을 게다 이겁니다. 그러면 둘이 아니라는 걸 알 게다 이거죠.

잠자면서도 참선하고 싶어요

문 저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잠을 자면서도 늘 참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아, 잠을 자면서도 내가 자는게 아니고 주인공이 잔다고 생각하고 자면 그게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그 점이 매우 궁금했는데 이게 바른 깨달음인가요?

〈박시현〉

답 깨달음인가 믈으시는데 깨달음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지요.

이 몸은 내 마음의 수레입니다. 내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이지요. 그러니 주인이 차를 끌고 다니든 세워놓든 제 마음대로 이지요. 끌고 다니며 일을 보든 세워놓고 나가다니며 이 일 저 일을 보든 말입니다.

꿈에 안그러든가요? 이 몸뚱이는 재워놓고 자기는 나가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꿈이 생시고 생시가 꿈이라 마음이 몸을 끌고 다니든 놓고 다니든 그것은 마음이 하는 일이지 육신이 하는게 아니지요. 몸뚱이는 마음을 따라다니다가 때가 되면 쉽니다. 그러나 혼백은 자질 않지요. 그러기에 잔다 안 잔다 할게 없지요. 가만히 쉬고 있으면 부처이고 마음을 냈다 하면 법이요 활용입니다.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나라에선 항상 불이 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불을 켠다 끈다는 말이 없어요. 켰으면 좋겠다, 혹은 불을 껐으면 좋겠다 해도 그런 언어를 모릅니다. 그렇듯이 자기의 근본은 켜졌다 꺼졌다가 없습니다. 쓰고 안 쓰는 것은 각자에게 달린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가 육신을 재워놓고 밤에 다니든 육신을 끌고 낮에 다니든,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놓고 쉴 사이 없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그대로 진리요 참선이다, 자고 깨고 이게 다 참선이다 이겁니다.

다만 자기 생각에 끊어졌다고 하니까 끊어졌다고 하는 것이지 실은 끊어진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다가 끊어졌다가 합니까?

그걸 모르니까 탑 돌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순간도 쉬지않고 탑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앉았다 일어섰다…. 그게 다 탑돌이가 아니고 뭡니까? 아, 죽었다고 했는데 또 돌아서 나오니 어디 한군데 끊어진 데가 있어야지요. 그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이해만 해도 안되고 이론적으로 알기만 해도 안됩니다. 맛을 보아야 하지요. 요맛조맛 천차만별로 맛이 나는데 그 맛이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는 맛입니다.

법문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문 매번 법문을 열심히 경청합니다만 특별히 의심나는 것도 없고 스스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모자란 탓인지요?〈서은경〉

답 내 말을 그냥 들어 넘기고 한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볼 생각도 못했다면 그냥 귀만 남았겠군요.

선정과 지혜란 말 아시죠? 선정을 이 본마음 자리라고 말한다면 지혜는 활용을 뜻합니다. 둘이 아니지만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라고 말하기 이전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쯤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또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이렇게 묘한 법이 나와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내 몸 하나 어떻게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처님 법은 그대로, 우리가 아픈 것도 법 안 아픈 것도 법, 죽는 것도 법 사는 것도 법이라 해서 이것이 바로 진리다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지혜롭게 사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노라면 남한테 짓밟히기도 하고 가정이 화목치 못한 일도 있고 이웃과 싸움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의 원인이 바로 자기인 줄 알면, 자기 탓인줄 알면 지혜롭게 되짚어 생각할 줄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몸이 아픈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그대로 법이라는 것을 중생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스스로 아픈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는데 그게 방편이지만 방편을 통해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하겠지요. 물론 이 육신은 바로 내 주인의 것, 주인의 시자로서 주인에 의해 형성되었으니까 주인에 의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변질되고 부서집니다. 그러나 몇 년씩 아프다가 옷을 벗기보다 생동력있게, 나도 고통받지 않고 주변도 고생시키지 않으면서 가는 도리도 있다, 그나 억겁 전부터 자기의 습을, 일종의 종문서나 다름없는데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음의 그 경지는 이런 종문서가 닿기만 하면 타버리는 그런 이치가 있지만 그것을 모르니까 따로 높은 경지가 있는 줄 알고 자꾸 묻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알면 그 경지가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고 바로 나한테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뚜렷이 알게 될건데 말입니다. 그렇게 나 한테 있는 걸 알면 바로 남과 내가 둘이 아니고 또 나와 더불어 같이 나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런다면 뭣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말로 해서, 물어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학식이 많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내가 화통하게 설명했다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습을 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습이 있기에 인간이 아니냐 할 수도 있고, 망상이, 습이 실은 망상이 아니오 습이 아니다 하겠지만 그 습이 있기에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고 문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문이 본래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일심에서 나오는거 일심에다 놓아라, 놓으면 홀연히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때는 점검만 하면서 돌아가면 될 것을…, 그러니 말이 무슨 필요이겠습니까?

불교 · 기독교 가르침 같나요

문 제 주변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기독교를 믿는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이 다른 지는 몰라도 가르침은 같다고 말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같다고 하면 절에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도 같은지요? 〈홍순경〉

답 바닷물이나 호수의 물이나 물은 다 같은 물입니다. 크기는 엄연히 다르지만요.

또 무우 배추를 버무려서 김치를 담근다고 할 때 재료는 같아도 솜씨에 따라 김치 맛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같다 아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리를 잘해서 맛있게, 유익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행을 해야하지요.

같더라도 어느 그릇에 담겼느냐에 따라 쓰는 도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취지가 아마도 일부 타종교인들의 훼불사건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 하나도 걱정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자기가 뿌린 것은 자기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두게 됩니다.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것을 거둬들일 것이고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것을 거둬들이겠지요.

우리는 그걸 아니까 모두들 참착하게, 지혜롭게 마음공부를 해 나갑시다. 그런 일을 가지고 속을 끓일 사람같으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눈하나 깜짝 안하고 지긋이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이 한 주먹 펴면 깊은 데서, 한 주먹 쥐면 얕은 데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권을 갖게 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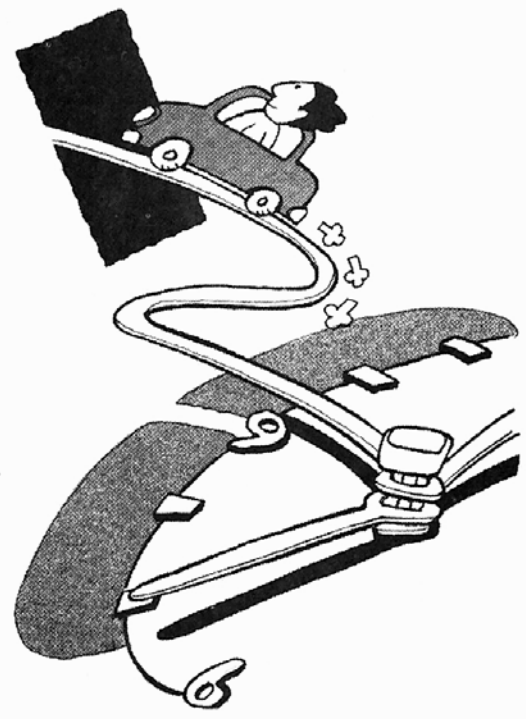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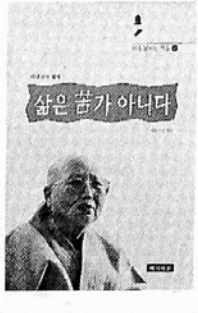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 · 생명을 남녀로 구별할 수 있나요"
"모든게 '일심'에서 나오니 거기 놓고 관해야"



삶은 결코 꿈가 아니라는 이 통쾌한 역설 !

삶의 모든 고통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발판임을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大行 스님의 육성 법어집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종로구 견지동 110-33
737-8881(편집), 737-0695(영업), 팩스:(02)737-0696

협찬 김 재 영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우성아파트 8동 1106호

현대불교 창간3돌 3천배 정진

3천배 공덕

"자기속의 '참나' 만난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주년을 맞아 참회도량 서울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와 공동으로 11월1일 도선사에서 '3천배 바람(願) 정진(力) 대법회'를 봉행한다. '참회의 삶을 살자'라는 본사 연중 캠페인의 실천행사이기도 한 이 법회는 가족과 함께 3천배 기도원력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3천배의 공덕과 기도에 임하는 자세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3천배 정진에 힘쓰는 동안 교만심과 몸속의 거친 기운이 소멸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상' 죽이며 예배·참회·발원성취
교만심 사라져…전신운동 효과도

'3천배' 하면 성철스님을 떠올리게 된다. 성철스님은 생전에 "저 법당에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가. 나를 애써 만나기보다는 삼계(三界)의 대도사이신 부처님께 경배하고 깊은 불연을 맺는 것이 더욱 훌륭한 일이다"라고 말하며, 3천배하기를 권했는데 그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스님이 이끌어준 3천배는 ▲부처님과의 인연맺기 ▲참회 ▲청정한 마음으로 원력을 세우라는 이유에서였다. 즉 내가 옳다는 것까지도 놓아 버리고, 삼보에 귀의해 삼독심(貪·瞋·癡)을 끊고 삼학(戒·定·慧)을 닦는 수행방법을 제시했던 것이다.

사찰은 절을 하는 곳이라해서 '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선문촬요〉 달마관심론에 따르면 절은 '예배'라는 말에서 비롯됐다. '예'는 공경한다는 뜻이며 '배'는 굴복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참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켜야 비로소 '예배'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절이란 공경의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인 동시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동안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스스로 겸손해지도록 하는 수행법이다.

따라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찾는 것은 맑은 물을 붓는 것이고, 절하며 엎드리는 것은 구정물통을 흔들면서 찌꺼기를 쏟아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옛 스님들은 몇 번의 절로써는 속의 묵은 찌꺼기를 다 비워버릴 수 없기 때문에 거듭거듭 절할 것을 강조했다.

불교의 절하는 숫자에 대한 근거는 뚜렷하다. 3배를 드리는 것은 삼보에 귀의해 삼학을 닦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53배는 참회 53불에 대한 경배이며, 108배는 108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 1천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겁의 1천 부처님께 1배씩 절을 올리는 것이며, 3천배는 과거·현재·미래의 3대겁에 출현하는 3천 부처님께 1배씩의 절을 올리는 예법이다.

한편, 절은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건강유지를 위한 방편으로서도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국대학교 경주 한방병원 의료팀(팀장 강윤호원장)이 1996년 1월 108배를 생활화하고 있는 박종부씨(44)를 대상으로 임상실험한 결과 절을 하면 발, 무릎, 엉치뼈, 허리, 어깨부위의 대관절과 배꼽아래의 근육이 강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디스크 예방과 오장육부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60호 참조〉

특히, 절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단전호흡이 이루어져 몸의 거친 기운이 소멸됐다. 이러한 육체적 변화는 몸의 불필요한 노폐물까지 배출시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3천배 기도는 불자라면 한번쯤 도전해 볼만한 수행법으로, 일년으로 정진하는 13시간(108배를 30분만에 할 경우)은 발원을 성취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도필선 기자



인터뷰 / 28년간 매일 3천배 강능인행 보살

"이젠 이웃의 행복위해 기도"

28년동안 매일 3천배 기도정진에 힘써온 강능인행 보살(본명: 강진자·67). 강보살은 오전 8시면 도선사 석불전에 도착해 3천배 정진으로 구슬땀을 흘린다. 쇠붙이로 대신한 무릎과 칠순에 가까운 나이 탓에 3천배 모두를 일어났다 엎드리는 오체투지의 절을 할 순 없지만 앉아서라도 3천배를 마치는 투혼이 주위 사람들로 부터 감동을 불러일으킬 정도.

"처음에는 27살부터 앓게 된 위궤양을 낫게 해달라는 참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 부질없음을 깨닫고 지금은 30여년 번뇌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세계평화와 모든 이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오늘도 도선사 석불전을 찾은 강보살은 "절을 하게하는 마음을 닦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처님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건강 365일 〈3〉 칡뿌리



이 만 성 〈영재한의원 원장〉

칡뿌리를 약명으로는 '갈근'이라고 한다. 이는 옛날 중국 갈씨집안의 어느 소년의 일화에서 비롯된다.

산골에서 화전을 일구며 사는 노인에게 어느날 갑자기 웬 소년이 턱에 숨이 차 헐떡이며 살려달라고 외쳤다.

"도대체 넌 누구냐?"

"산아래 고을에 사는 갈씨 집안의 자식입니다. 아버님께서 간신배들의 모함을 받아 집안 식구가 몰살당했고 저만 간신히 뒷문으로 도망쳐 오는 길이니 도와주십시오."

노인은 갈씨 집안을 아는터라 그 소년을 가까운 동굴로 피신시켜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후 소년은 노인과 함께 살면서 약초 사용하는 법을 어깨너머로 배웠다. 노인이 죽은 후에는 소년이 고을 사람들의 병을 돌봤는데 이름모를 한 약초로 인해 많은 효험을 보게 되었다.

환자들이 약초의 이름을 묻기 시작했고, 소년은 약이름이 없었을 때라 고심을 하다가 홀로 남은 갈씨집안의 명맥을 이어야겠다는 생각에 '갈근'이라고 했다고 한다.

갈근 즉 칡뿌리는 주독으로 인한 위장장애나 간장피로를 풀어주는데 그만이다. 또 설사나 변비, 부종, 허리와 무릎 관절통에 많이 쓰이는 식품이며 약제이다.

술독·간장 피로에 특효
태음인 고혈압·위염에 성약

체질적으로 '열을 잘 받는' 간장을 가진 사람이 있다. 간이 실한 태음인 체질로 외형상으로는 얼굴이 검은 편이며 잡티가 있다. 또 세수를 해도 안 한 듯 깨끗하질 않고, 노한 표정을 짓고 장군같은 인상을 풍긴다. 과묵하고 욕심이 많아 보이며 통이 크고 심통스럽고, 응큼해 보인다.

이렇게 간이 실한 태음인에게는 칡뿌리가 성약이다. 간이 열을 받으면 지방간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이 유발된다. 이차적으로는 위장에 열이 전달돼 위염과 위산과다증을 초래한다. 대장에 열이 옮겨가면 변비, 어깨결림, 오십견, 무릎관절, 허리가 아프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축농증, 부인에게는 자궁염증이 생긴다.

복용법 칡뿌리 20g과 황금 10g를 함께 달여 커피한잔 정도의 양으로 1일 2회 마신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그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옅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教史料!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 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60호(1996년. 1 . 3)-제 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불자 세상보기

거제 백로·왜가리 5백마리 '떼죽음'

"자연파괴 멈추라" 경고

을숙도등 전국 철새도래지 훼손 극심

삶을 누렸던 모든 죽음은 처참하다. 하물며 비명(非命)의 죽음이야 오죽하셨는가. 수백마리의 새떼들이 숨진 채 하얗게 물위를 덮었다.

경남 거제시 사곡리 일대 소류지와 인근 섬지역에 11, 12일 이틀새 백로와 왜가리 5백여 마리가 무더기로 숨진채 발견됐다. 인근 도서지방에 생존해 있는 3백여 마리도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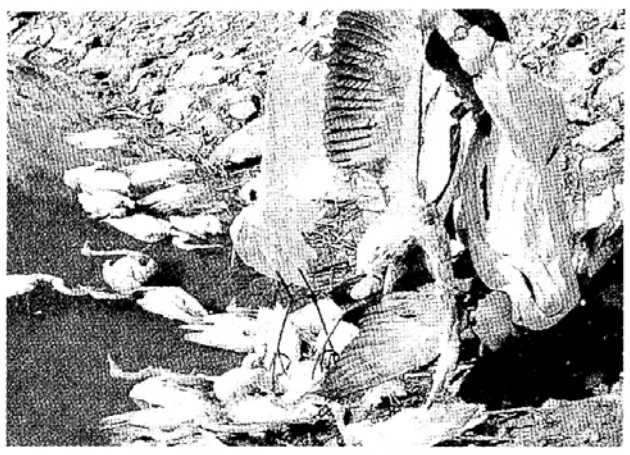
아직 새떼들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독극물로 인한 집단폐사의 가능성이 높다. 경남지역 환경단체인 초록빛깔사람들과 거제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백로와 왜가리 20여 마리가 죽기 시작했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백로들의 먹이와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밀렵꾼들의 독극물 살포와 인근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해 겨울에도 강원도 경기도 민통선 일대에서 천연기념물인 독수리와 두루미가 떼죽음을 당했다. 원인은 맹독성 산림해충제인 포스파미돈으로 드러났다.

우리가 새떼들의 죽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새들이 살 수 없는 곳이라면 사람들도 온전히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새들이 먹은 물은 농작물의 영양원이다. 우리가 그 농작물을 먹는다. 농약에 오염된 농작물을 먹었다면 그 농작물을 먹는 사람도 온전치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니 새들의 죽음은 우리들의 생명이 파괴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생명파괴는 멈추지 않고 있다. 부산시가 화훼단지로 조성키 위해 을숙도 갈대밭 일부를 말어버렸다.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벌은 공단과 농지로 변하고 있다. 돈벌이가 자연환경이 주는 대가보다 큰 것인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물어야 한다.

백로가 어떤 새인가.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고 겨울나기를 위해 남쪽으로 떠나는 철새인 백로를 우리 조상들은 결백의 상징으로 여겼다. 새 수령이 부임해오면 백성들이 백로의 깃털로 만든 부채를 선사했다 한다. 마음을 비운 깨끗한 다스림을 바라는 마음에서 였다. 이런 백로의 죽음이니 새떼들의 죽음 이상으로 읽힌다. 자연파괴를 멈추라는, 땅과 물과 나무와 풀과 공기를 온전히 두라는 경고이다. 인간은 결코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다.

정성운 기자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나는 백로와 왜가리 5백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농약 등 독극물에 오염된 먹이를 먹고 집단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국제신문 제공〉

불교의 눈

자연-인간 서로 의지해야

모든 것은 인(因)과 연(緣)이 서로 의존하고 관계하여 결과를 이룬다. 새떼들의 죽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여기 두 묶음의 갈대단은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는 서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두 개의 갈대단 중에서 어느 하나를 치워버린다면 다른 갈대단도 쓰러지고 만다." 〈상응부경전〉

"우리 조상들은 지렁이가 죽고 풀이 죽고 땅이 죽는다 해서 땅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도 큰 죄악으로 여겼다. 부러진 제비 다리도 치료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자연과 생명을 경외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의 말이다.

이렇게 들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소속 농민 13명은 13일 황소까지 동원, 'O-157수입쇠고기 전량수거와 부당한 슈퍼301조 발동 철회'를 주장하는 항의서를 美대사관측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O-157균이 발견된데 이어 미국이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슈퍼301조를 발동하는 대국의 이기적인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양국간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경전에서 알아본다. 〈편집자 주〉

선린(善隣) 좋은 벗은 이익을 분배하고…

▩좋은 벗이란 고락을 함께 하고 이익을 분배하고 상대방에게 직업을 갖게 하고 늘 어진 생각을 함이다. 나쁜 벗에도 네 가지가 있으니 상대의 물질을 빼앗음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체면만을 좋아하는 것이요, 삿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니라. 〈선생자경〉

▩훌륭한 벗에 일곱 가지가 있으니 고난을 만나서 버리지 않고, 가난하다고 버리지 않고, 자신의 어려운 일을 상의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기 어려운 일을 해 주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니라. 〈사분율〉

▩법에 따라 얻어진 재물로 부모를 모셔라. 바른 상도의로 장사를 하라. 힘써 노력하여 늦도록 일하는 재가자가 죽은 후에 '입으로부터 빛을 발하는 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들속에 태어난다. 〈아함경〉

▩남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서도 그 사람이 자기의 손님으로 왔을 때 예의로서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숫타니파타〉

▩세간에 이로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왕래하면서 변함없이 일깨워주는 것을 친구라 한다. 만약 어려움 당한 것을 보고서 서로 버리고 떠나지 않고 뜻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을 친구라 한다. 부귀할 때는 누구인들 친구나 벗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불본행집경〉

▩비구들이여, 어진 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인욕을 닦아 지키며, 시로 다투고 송사하는 것을 삼가야 하느니라. 사람들을 책망하여 예경(禮敬)하게 하지 말고, 남을 위하여 법을 설하되 은혜와 덕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불반니왕경〉

▩어떤 친구가 착한 친구로서 남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가? 게으름을 피울 때 깨우쳐 주고, 일을 방해하거나 의심하지 않으며, 허물을 보아도 꼬투리를 잡으려 애쓰지 않는다. 〈별역잡아함경〉

▩계율을 잘 지키면 명예를 얻고 남에게 베풀면 큰 재물을 얻으며 거짓없이 진실하면 덕망이 높아지고 은혜로우면 착한 벗을 얻게 되느니라. 〈잡아함경〉

▩항상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아첨하면서도 벗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숫타니파타〉

생활정보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금지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나는 차량은 반드시 일단정지 후 서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또 앞지르기 후 끼어들기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5만원 벌금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는 2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상향안을 11월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체국 민원 '국번없이 1300'

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우체국 민원안내용 특수전화번호'를 개설한다. 이에따라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00'번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이사가기 전 주소로 보내진 우편물을 이사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부모님 전화료 자동납부

부모님께 효도하고 전화요금 할인혜택도 받는 '효도전화 자동납부' 이용자가 늘고 있다. 한국통신이 시행, 1백20만명이 가입한 이 제도는 부모님의 전화료를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1%의 전화요금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문의 및 신청은 한국통신 고객상담센터(각 국번+0000번).

대미 자동차 수출 '적신호'

협상 결렬…수퍼 301조에 WTO제소

미국이 한국과의 자동차협상이 결렬되자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발동,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렇게되면 미국이 100% 수입관세를 부과, 한국의 대미 자동차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의 한국수출관세를 현행 10%에서 2.5% 수준으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국제무역관행을 무시한 처사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겠다며 맞받아쳤다. 시민단체들도 미국의 행위에 분개하며 미국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통상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주력수출품인 농·축산물 통신기기 등의 불매운동을 벌이면 미국내 수출업자들이 정부를 압박해 결국 슈퍼 301조 발동을 철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통상전문기구의 인력보강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북녘동포 옷보내기 성황

'북한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옷보내기 운동본부'가 1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연 사랑의 옷 보내기 1차 캠페인에 10만여점의 옷가지가 모아지는 성황을 이뤘다. 운동본부는 이날 모은 옷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2차 캠페인은 25일 오후2시부터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열린다.

괌참사 부친이 의술이어

지난 8월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로 숨진 한 의사의 인술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던 김주배씨의 부친이 13일 아들이 운영하던 병원의 각종 시술기구 등을 광주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기증, 장애인 치과진료소를 개원했다. 숨진 김씨는 94년부터 광주 동구치과의사회장을 맡으면서 매주 낙도어린이와 장애인 무료진료를 활동을 펼쳐왔다.

음식물쓰레기 퇴비 재활용

음식물쓰레기가 비료와 냉난방연료로 재활용된다. 경기 의왕시는 10일 국내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준공, 가동에 들어갔다. 의왕시는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30톤중 절반인 15톤을 재활용, 생산된 비료를 화훼단지와 과수원 등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인근 지역의 냉난방연료로 쓰인다.

퇴폐영업 묵인 공무원 뇌물

조직폭력배의 새로운 자금원인 관광호텔 증기탕의 퇴폐영업을 묵인해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과 시·구청의 단속담당 공무원 16명 등 2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13일 부산지검 강력부에 따르면 부산시 위생과, 부산경찰청 방범과, 부산동구청 위생과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95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관내 관광호텔 증기탕의 윤락행위 등 퇴폐영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다.

여론조사 보도 잇단 징계

여론조사 방송보도의 역기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방송위원회 선거방송특별위원회는 11일 선거관련 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송사에 징계를 내린 23건 가운데 여론조사 관련보도가 14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SBS라디오 '뉴스라인'(3일 오후2시)는 특정정당(신한국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거르지 않고 내보내 주의조치를 받았다. MBC라디오 '뉴스'(9월 23일 오후5시)는 대표성을 지니지 못한 서울시내 대학생 대상의 여론조사를 보도했다.

깻잎 상추 인삼에 잔류농약

시중에 유통되는 채소와 인삼에 허용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발견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시내 재래시장 15곳에서 판매되는 채소류 1백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5개 시장의 깻잎 상추 등 2개 품목 6건에서 허용치를 최고 4백44배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13일 충남 금산국제시장과 서울 경동시장, 영주 풍기읍에서 유통되는 건삼과 미삼에서 잔류농약인 켄토젠이 검출돼 진상파악에 나섰다. 켄토젠은 87년부터 국내 생산이 금지돼 밀수인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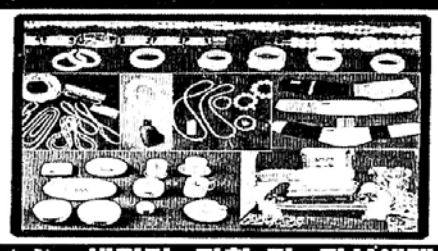
생활상품 '물걸레 청소기'



엎드려서 실내바닥을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 전기를 이용하여 서서 청소할 수 있는 '전자동 물걸레 청소기'가 나왔다. 이 제품은 2개의 모터 회전판이 서로 맞물려 부착돼 있어 회전 마찰력에 의한 먼지제거 및 광택효과 기능이 뛰어나다. 또 진공청소기 방식과 동일, 서서 사용하기 때문에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모터에 기어박스가 장착돼 있어 회전수를 감속해 주는 등 구조가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다. 가격은 6만8천원.
성광베스트(주) (02)3431-2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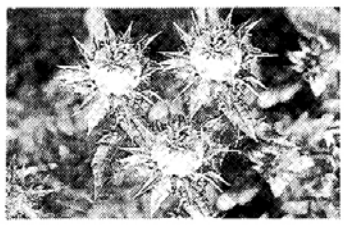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어느날의 외로움 -
슬픔 한조각
바다위로
홀로 떠가는 부표처럼
외롭게 가슴에 머물고
소리없이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
고독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소리 흔들리며
노 젖는 이
그림자 등 뒤로
소슬한 바람 맞는다

완장 이 영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순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라정이 촬밀히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옥복대, 베개, 반지 이렇게 하나씩 사용해 보세요! 모든 병이 호전됩니다.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핫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포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玉山家 옥만을 꼭찝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분점 습옥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가)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FAX 053)943-9371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시 론

폭로정국 '유감'

이 청명한 가을에 비자금 정국이 사람을 혼탁하게 한다. 연일 폭로가 거듭되고, 그에 대한 반박으로 날을 새운다. 정치집단들은 폭로에 따른 득실계산에 분주할 뿐, 그 폭로적 행태가 초래할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다. 무슨 짓을 하든 일단 이기고 보자는 야만적 경쟁앞에, 국민의 삶이 볼모로 잡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비전과 정책, 미래의 활로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생산적 논쟁은 발붙일 곳이 없다.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나의 관심은 이 경쟁을 통해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에 있지 않다. 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가장 확실한 감정은 문민개혁이란 말이 허구의 수사였다는 점이다. 독재와 민주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독재라 함은 모든 국가기구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기구가 독재자 1인 혹은 권력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가동되는 것이 독재의 핵심이다. 그런데 독재와 싸우면서 성립되었다는 문민정부가 해 온 짓은 독재정권의 방법을 답습해왔음이 입증되고 있다.



한 인 섭
〈서울대 법대 교수〉

모든 공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공직은 오직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때 그 권력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다. 공직에 기반한 대다수의 활동은 개인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배타성과 독점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만큼 공직행사에는 더욱 공평성과 엄정성이 요청된다. 자기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관의 제척, 기피제도는 그런 점에서 모든 공적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관행을 보면, 공직은 마치 그 개인과 가족, 그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일상적이었다.

그 두드러진 예가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정경유착과 권력형 범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권력형 비리와는 별개로 각종 생활형 비리, 뇌물수수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장 엄정해야 할 사법권에서도, 대통령과 각 정파는 자기 편리에 따라 사면, 형집행정지와 같은 조치로 사법권을 농단한다. 이제껏 이루어진 특별사면의 실태를 보면, 자기 수하를 풀어주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사면권을 행사해 왔음이 여실히 보인다. 대통령도 여야후보도 그 점에서 한치도 다를 바 없다.

독재시대에 권력의 도구로 지탄받던 기관들의 잘못된 관행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음이 이번의 비자금사태에서 분명해졌다. 정보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계좌들이 돌아다닌다. 정치적 반대자나 잠재적 반대자들을 겁주기 위한 각종 '파일'을 만드는데도 열심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공직자들이 국리민복이 아니라 당리당략을 위한 공작에 종사했음이 입증된 것이다.

국가공권력의 사유화는 국가를 군주의 사유물시하는 왕조시대의 산물이다. 독재시대가 끝났다는 지금에도 권력집단은 공권력을 제 주머니속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전혀 버리지 않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적 치부나 당리당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평무사하게 국리민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권력의 사유화 안된다

정보기관은 반대파의 비리를 수집하는데 드는 노력을 국가안전과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을 개인의 계좌를 뒷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의 투명성과 경제효율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성과 균형성을 가진 수사권행사의 전범을 창출해야 한다. 어떤 대통령, 어떤 정파도 정보의 돈과 사정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들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개별 국가기관들의 노력이 합쳐져 보다 바르고 강한 21세기 신국가를 꿈이라도 꿀 수 있을 것이다.

열린마당

대선후보 교계행사 참석

최근 교계가 주최하는 중·대형 행사장에는 어김없이 대선후보 혹은 정당 불자의원이 참석, 축사를 한다. 이른바 '불교표잡기'의 분주한 행보다. 어떤 행사에서는 대선후보나 그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축사가 서너차례씩 이어져 마치 정치행사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까지 자아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분주히 불교계를 찾아드는 정치인들을 보는 교계의 시각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않다. 교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 10일 봉행된 통도사 개산대제에 참석한 김대중, 주양자, 조순씨.

지선 〈백양사 주지〉

관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지도부들이 큰스님을 예방하고 각종 불교행사에 참석하는 빈도가 부쩍늘고 있다고 한다. 큰스님은 교계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어른이다.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평소에 큰스님을 찾아 가르침을 통해 정치철학 등을 배워야 마땅하다. 그러나 평소에는 안중에도 없다가 선거때만 되면 발걸음이 잦아지는 것은 한마디로 속보이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진정으로 불교를 위한다면 불교현안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불교계는 각 정당 지도부들이 불교행사에 참석 승가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으히려 교계는 불법선거 감시자로 나서야함이 마땅하다.

지성 〈태고종 총무부장〉

대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불교계 방문이 잦아지는 것은 우리 국민정서를 이루는 근간이 불교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심을 잡지 않고서는 당선되기 어렵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과 불교계로서는 이들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두 측면이 공존한다.

평소 절찾아 '정치철학' 배우길
종교편향 방지 기회 삼았으면
절은 "정치마당 아니다" 초청반대

후보들의 요청에 의한 불교계 방문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로부터 불교에 대한 견해를 듣고, 또 불교계의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그동안 불교가 받았던 종교편향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방문을 요청, 이를 이용하려는 행위는 마땅히 지양해야 한다.

종호 〈인천 능인사 주지〉

대선후보들의 불교행사 참여는 그야말로 표를 의식한 '얼굴내밀기'에 지나지 않음을 그동안의 많은 선례를 통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종교관에 의해 종교정책이 좌우됨으로써 파행된 문제들이 그 대표적 예이다.

타종교에 비해 특히 대선후보들의 불교행사 참여가 높은 이유를 다시한번 되짚어 보고, 불교방송·불교TV 등 방송사를 통한 종교정책 토론회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정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재일 〈동산불교대학 이사장〉

대선후보들이 사찰을 방문해 축사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 불교를 위한 선거공약과 정치적 대안없이 인사치레로 형식상 불자들에게 축사하는 것은 불교를 허술하게 보는 행동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사찰측도 대선후보들의 확고한 종교관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초청은 물론 방문도 정중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단호한 불자들의 의지표명만이 대권후보들에게 불교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행동이라 생각된다. 선거전후의 종교정책이 한결같기 위해선 맹목적 사찰 방문만을 환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야 하는가를 선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동혼 〈경불련 운영위원장〉

정치인이 종교지도자를 찾을 때는 혼란한 정국을 어떻게 풀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지혜를 겸허히 구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사찰에 잠깐 머물며 스님들과 인사하고 행사에 참여해 축사 등을 한다. 이것이 TV와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볼 때마다 불교행사가 정치마당이 되는 것은 아닌지 민망스럽다.

불교가 정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의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 여전히 불교는 우리사회의 정신과 문화의 정점에 있다. 우리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가 세워야 한다.

이상번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교계 각 행사 주최측이 위상이나 격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정치인들을 초청하고, 스님 또는 단체장들이 불교행사에서 특정 대선후보 지지발언을 하는 것 등은 종교인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일이다.

불교계가 자정해 대선후보들을 초청하고, 축사·내빈소개 등의 순서를 마련하는 것은 순수한 입장을 견지해야할 종교행사가 자칫 정치패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옳지 못하다.

고영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불교표밭 공략을 위한 대선주자들의 행보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주최측에서 자청해 정치인을 초청하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대선후보들의 정치적 배경을 이용해 주최측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다.

만약 정치인 초청이 불가피하다면 형평성 있는 정치인 대우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치논리로써 어느 후보에게는 갖가지 편의와 시간을 할애하면서 누구는 내빈 소개에 그친다던지, 아예 무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종교인의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대선후보 교계방문 일지

▲9월28일=조순 부산 사직체육관 대행스님 초청대법회 참석
▲9월30일=이인제 통도사 월하스님 예방
▲10월1일=김종필 통도사 월하스님 예방 및 부산 천태종 삼광사 방문
▲10월5일=이회창 통도사 월하스님 예방 / 김대중 동화사 무공스님 방문
▲10월7일=이회창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예방
▲10월10일=김대중 조순 이한동 주양자 통도사 개산대제 참석
▲10월12일=이회창 부산 을숙도연등대법회 참석
▲10월13일=김대중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예방
▲10월15일=이인제 월주스님 예방

대선후보 '불심잡기' 현황

최근 대선후보들의 불교계 행사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않고 행사식순에 축사등 기타 형태로 인사를 하기까지 한다. 대선후보들의 '불심 잡기'와 불교계의 '행사 광내기'가 손발이 맞아 대선후보 '얼굴 내밀기'가 줄을 잇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종정및 총무원장급 스님을 예방하는 이외에는 대부분 교계의 초청에 의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교계의 무분별한 대선후보 초청이 자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계 '행사 빛내기' 초청에 발길 분주
행사 무게따라 후보·불자의원 분담

각 후보들은 불교계의 초청장과 주요행사를 점검, 일정이 겹치거나 비중이 크지 않은 행사일 경우 불자의원들을 대신 참석시키는 등 행사규모와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 일정을 잡고 있다. 또한 각 후보들은 선거법으로 인해 黨불자회의 회비로 보시금을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비로 보시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 행사 일정은 대부분 각후보 비서실에서 잡고 있지만 법회참석시 연설문과 불교정책분야의 제시는 정책실 또는 직능국, 黨불자회가 맡고 있다.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의 경우 불교관련 일정은 총재비서실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불교현안 파악과 법회 연설문 작성, 행정 지원 등은 직능국 종교팀에서 맡고 있다. 불교계 주요행사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불자인 이한동대표와 당불자회 회장인 함종한의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의 불교계 일정은 당불자회인 연등회(회장 박상규의원)에서 짜고 있다. 법회 연설문은 연등회 부회장 조성준의원이 초안을 작성한다. 연등회 소속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불교계 행사를 챙기고 있다.

김종필 자민련 후보측은 일정과 법회 연설문을 종교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행사가 겹칠 경우는 주양자 부총재 등 黨불자회(회장 박철언의원) 소속의원 8명과 지역구 의원이 대신 참석하고 있다.

조순 민주당 후보의 불교관련 일정과 연설문은 대부분 총재비서실에서 맡고 있다. 다만 중요 불교정책과 관련될 경우 정책실 박원모 전문위원이 문안을 작성한다.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의 경우 일정과 연설문은 주로 반영준 종교담당특보(성신여대 교수)가 맡지만 주요사안의 경우 정책실에서 초안을 준비한다.

김재경 기자

소 향 원

자비동산 소향원은 노인복지시설로서 무료양로원입니다. 정월곡(관음불교회관장)님의 발원으로 설립된 저희 소향원은 1996년 11월 20일 (화순군 96-3) 개원 하였으며 호남지역 시설평가에서 제일 쾌적하고 안락하며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입소노인들의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입 소 안 내 ●

■ 입소자격 : 만65세 이상 남·여 생활보호대상자
■ 구비서류 : 주지스님 추천서

● 후 원 회 안 내 ●

여러분의 따스한 정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후원회 가입문의 :
(0612)73-6406

사회복지법인 **소 향 원**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495-1
전화 (0612)73-6406
FAX (0612)73-8767

법화경 특강(광주)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광주 전남지역 불교인구의 저변확대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화삼부경**〉 무료특강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0월 24일 오후 2시~4시
2. 장소 : 광주 안보회관 5층 대강당
3. 동참 : 불교정법에 관심있는 모든 분
4. 혜택 : 참석자 선착순 200명에는 법화삼부경 (싯가 3만원) 1권씩과 佛字·액자용 1점씩을 드립니다.

■ 연 락 처 ■
영광 진제암 : 0686-53-9121
011-621-6966 · 015-638-6966

UN · IAEWP · KOREA MONK ACADEMY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최 광 영 (공덕)
(053)952-8711 · 017-501-8711

南傳大藏經

南傳大藏經은 佛教 최초의 경전이자 부처님의 親說에 가장 가까운 經典으로서, 南方佛教, 즉 인도, 네팔, 스리랑카, 버마, 태국 등지에 전래된 경전입니다. 佛教經典은 최초로 인도의 고대 언어인 팔리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南傳大藏經은 바로 팔리어로 이루어진 최초의 佛典의 日本語譯版입니다.
南傳大藏經의 내용은 기타 대장경과는 수록경전이나 내용이 전혀 다를 뿐더러 중복되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전인 「숫타니파타」의 경우는 기타 경전에는 없고 이 남전대장경에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珠玉같은 경전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0년만에 再刊行되오니 이 기회에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① 南傳大藏經 全70券(목록 1권 별도)
② 하드카바 포크로스 최고급 양장, 80미색모조 사용
③ 예약가 : _____ 출간후 정가 : _____
④ 계약금(신청금) : 300,000원
⑤ 출간일 : 1997년 12월 5일 이전
⑥ 출간후에는 가격 대폭인상

· 국민은행 : 006-01-0713-358 정회운
· 농 협 : 053-01-193286 정회운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 : 735-7202, 738-6270

종단소식

조계종

고운사 대웅전 낙성

16교구본사 의성 고운사(주지 법조)는 29일 종합불사 낙성식 및 보살계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대둔사 본말사 주지연수

22교구본사 해남 대둔사(주지 천운)는 29일 본말사주지 연수회를 갖는다.

태고종

종조탄신 696주년 다례

10년 불사로 진행된 종합불사로 대웅전을 낙성하는 한편 사찰조경을 일제히 정비했다.

총무원(원장 인곡)은 22일 오전 11시 북한산 태고사 태고 고우국사 부도 앞에서 종조탄신 696주년 다례법요식을 봉행한다.

다례법요식에는 보성 종정스님을 비롯한 종단 원로대덕스님과 인곡 총무원장스님, 종단 간부, 김철회 전국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다.

영산대법회 國齊로

국민대화합과 평화통일기원을 위한 영산대법회가 21일 오전11시부터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봉행된다.

1부 법요식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제50호 지정 스님들과 교수·이수생들이 출연해 식전행사 법요식 대제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대회사(총무원장) 법어(종정)가 있다. 오후 2시부터 2부 영산대재가 펼쳐진다.

천태종

여주 성주사 관음전 낙성

경기 여주 성주사(주지 경혜)는 16일 관음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2년여 공사끝에 완공된 관음전은 1백50평 규모로 요사채도 함께 마련돼있다. 성주사는 낙성식에 앞서 봉불식을 가졌다. 경혜스님은 "관음전과 요사채를 한 건물로 지은 것은 신도들이 마음놓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지역 어린이 체육대회

총무원(원장 운덕)은 19일 경기 이천 장화사에서 제11회 중부지역 천태어린이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남북도 소재 30여개 말사 어린이회에서 모두 1천여명의 어린이가 참가했다.

체육대회는 팀별 응원전을 비롯해 선생님·부모와 함께하는 배구대회, 스님과 함께하는 깃발꽂기, 이어달리기, 합동줄넘기, 협동줄다리기, 부모와 물풍선 주고받기 등의 경기로 진행됐다.

진각종

정기종회 예산안 다뤄

제311회 정기종의회가 22일 오후 5시 종의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종의회 주요 안건은 진기51년도(97년) 세입·세출 및 추가경정 예산안과 진기5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다.

종조 열반 34주기 법회

통리원(원장 성초)은 16일 총인원 종조전에서 제34주기 종조열반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다도공양에 이어 종조법어 봉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성초 통리원장을 비롯한 종단간부 및 각 십인당 스승 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

성초 통리원장은 봉축사에서 "회당 대종사의 창종정신을 기려 종단발전에 더욱 매진하자"고 말했다.

보문종

보문사 탑전기도

총무원(원장 혜일)은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보문동 보문사에서 탑전기도를 봉행한다. 탑전기도에는 매년 연인원 3천여 불자들이 동참해 왔다.

이번 행사는 오대산 월정사 탑을 재현해 78년 보문사 경내에 세운 8각9층탑 건립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온 것으로, 8각9층탑에는 스리랑카로부터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봉안돼 있다.

조동종

정도사 지장보살 점안

충북 음성 정도사(주지 지흥)는 11일 대웅전 낙성식 및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대웅전은 60평 규모로 1년여 공사끝에 완공됐으며, 지장보살 점안법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봉행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참선으로 복지일꾼 키운다

원광보전大 '사회복지와 禪' 과목 개설

현대사회 물질지원보다 정신 맑게해야

좌선·요가 등 강의…"타계열학과로 확대"



◇원광보건전문대 '사회복지와 선' 강좌는 다른 학과 학생들의 수강이 이어질만큼 인기가 높다.

참선과 선체조를 응용하는 새로운 복지문화가 탄생될 전망이다.

원광보건전문대학 사회복지과(학과장 김인종교수)는 대학 특성화정책에 따라 이번 2학기부터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와 선(담당교수 이정숙)'이라는 전공과목을 신설했다.

매주 선실습실에서 2시간 교육하는 이 강의에는 2학년 40여명의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수강중이다. 강의내용은 인간의 선, 선문화와 복지, 기혈유통행선, 경행, 교정행선, 유법행선, 순환행선, 내력증강행선, 능력개발과 욕망줄이기, 의식행선, 자유행선 등 다양하다.

학생들은 선실에서 선체조로 몸을 정결하게 한 뒤 둥글게 모여앉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주의집중을 통하여 부드럽고 고요한 호흡을 하며 좌선에 든다. 맑고 밝은 따뜻한 정신을 일으키고 참선 중간중간에 요가도 곁들여 몸을 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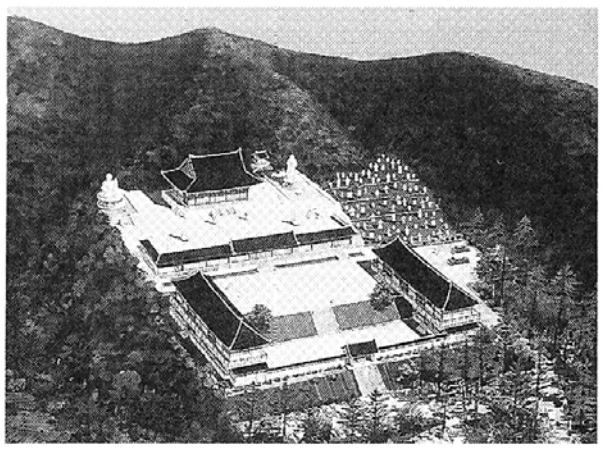
이정숙교수는 "바른자세 호흡 시·공을 초월한 마음을 닦음으로서 지혜를 열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복지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과거는 물질복지 였다면 현대는 문화복지와 정신복지 위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 "요즘의 사회복지가 물질위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속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맑게하는 복지가 절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불교의 참선과 선체조를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는 처음 시도했다"고 밝혔다.

생활참선과 선체조는 일선 복지관과 병원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응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주(사회복지과 2년, 원광대병원근무)양은 "선과 선체조는 재활의학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정신적 불안정상태를 해결해주는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회복지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열기가 의외로 높음에 따라 일반교양과목으로 전환, 전교생들에게도 개방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교수는 9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인도에서 참선·요가수행했고 혜원스님에게 108선체조를 수련해왔으며 국제선무학회(회장 김철교수. 원광대) 연구원으로 활동중이다.

익산=김원우 기자



◇삼보사는 청소년 법당부터 노후복지시설까지 갖춘 종합도량인 육지장사 기공식을 갖는 등 10년 포교불사에 나섰다. 사진은 2002년 완공될 육지장사 조감도.

삼보사 종합복지도량 건립

육지장사 내달기공…청소년회관·치매병원도

청소년법당부터 노후복지시설까지 갖춘 종합도량이 건립된다.

삼보사(주지 지원)가 10년 포교불사의 첫사업으로 11월 8일 기공식을 갖는 육지장사가 바로 그곳.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산 128-1번지 5천여평의 대지에 건립되는 육지장사는 대웅전, 설법전, 청소년법당 및 회관, 요사채 등을 갖추고 2002년 완공될 계획이다.

특히 육지장사는 청소년포교의 중심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청소년회관이 완공되면 효행학교를 개설, 참선수련, 환경세미나, 청소년지도교사 교육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운영, 일반신도 및 새싹불자포교법 개발 등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펼친다. 또 육지장사불사는 2차불사로 노후복지를 위한 노인치매병원도 건립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지원스님은 "갈수록 신도들의 신앙심이 엷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대생활에 맞는 포교방법을 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륵사 문화재 훼손우려

여주군 주변지역 '보존지구' 해제 추진

경기 여주군이 신륵사와 영릉 주변 일부를 문화재보존지구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여주군은 북내면 천송리 신륵사보존지구 52만㎡ 중 37만5천㎡와 능서면 왕대리 영릉보존지구 3백94만㎡ 중 19만1천4백㎡를 지구지정에서 해제시키는 도시계획변경안을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며 도시계획위는 이달안 현지조사를 거쳐 해제 유무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현지 향토사학자와 주민들은 이곳에는 보물 제180호 신륵사 조사당과 제226호 신륵사전탑, 사적 195호 영릉과 효릉 등 보물 및 사적 8종이 있어 자연녹지로 변경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과 건축으로 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영릉 일대 땅 19만1천4백㎡ 가운데 15만8천4백여㎡는 특정인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 마저 일고 있다.

비구·비구니 공동수행처

btn, 25일 '中 자운사' 탐방

불교TV의 다큐멘터리 '중국명찰순례'(25일 12시30분)는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수행하는 중국 유일의 시방총림 자운사를 찾아간다. 더 많은 중생을 거두겠다는 운암스님의 서원으로 전통적인 불교관습을 깨고 비구니와 비구 도량을 함께 안고 있는 자운사.

동서양을 접목한 형태로 서구건축양식이 두드러진 자운사는 중경에서 제일 큰 사찰로 자라가 목을 쑥 내민 모습을 하고 있는 건물과 기둥이 매우 화려해서 장엄미가 넘쳐난다.

대웅보전 중앙에는 높이 1.87미터, 넓이 1.43미터 무게 삼천근의 중국에서 현존하는 최대 옥불 중의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황성공원 체육관 짓지말라"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수회(회장 오출세)는 8일 경주황성공원에 건설중인 실내체육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황성공원은 4반세기동안 공원지구를 묶어온 도심내의 역사공원이다"며 "자연과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체육관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지난달 범시민연합에 가입하는 한편 교내에 공사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여론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관건립을 놓고 경주시와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올 1월부터 2백38억원을 들여 황성공원에 경주실내체육관 공사를 진행해왔다.

"모양없는 참사람 찾자"

진제스님 대구서 초청법회

조계종 제9교구 및 대구광역시신도회(회장 최동원)는 15일 대구 고려예식장에서 진제스님(동화사 조실) 초청 발심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명스님(대구사원련회장), 최동원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8백여명이 참석했다.

진제스님은 법어에서 "여러분 앞에 모양없는 참사람이 있어 출입이 자재하니 평소 생활속에서 이 참사람을 찾는 화두를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후보 종교정책 방송

대구BBS 20~24일

불교대구방송은 20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오후 6시에 97특별대담 '대선후보의 종교정책과 정당불자회 활동을 듣는다'를 방송한다.

법타스님(불교대구방송 지사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대담에는 신한국당 함종한 의원(신한국당 불자회 회장),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연등회 부회장), 자민련 박철언 의원(자민련 불자회 장), 민주당 권오을 의원(당 대변인), 국민신당(가칭) 반영준 교수(종교담당 특별보좌관, 성신여대) 등 각 정당 불자회 및 종교담당 의원들이 출연해 각 정당별 종교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실천가능성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이와함께 각 정당의 종교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이익을 대변할 불자회의 활동도 살펴볼 계획이다.

부처님조성·석탑·석등·석비·부도·불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허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불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성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사찰 법당 음향설비

● (상담역) 음향 연구가
무선설비기사: 김 문 화
아마추어 무선사 HL 1ACU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 뛰어난 소리가 보장되는 -
- 가장 경제적인 법당 음향시설

최고의 吸音力을 자랑하는
법당의 필수품

- 법당전용 시스템 앰프
- 방생법회, 휴대앰프
- 고성능 무선 핀-마이크

스페셜마이크



- 가장 멀리서 들어간다
- 자체에서 흡음력을 조절한다
- 어떤 앰프라도 상관없다
- 세계에 하나뿐인 특허품이다.

흡음력조절
음질전환



T - 7



DX-707
스페셜 마이크
가격 200,000원

초 고감동
유선핀 마이크
가격 50,000원

TM-108
염불전용 목걸이 마이크
■ 공급가 : 85,000원

Kim's 음향연구소
소장 김 문 화
전화 : (02) 601-8284~5

유 코 전 자
본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6-7
☎(02) 697-9976, 605-3235
FAX (02) 695-9676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4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쳇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0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7년 10월 13일 ~ 10월 30일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심장법사과정 ⊙ 영문불교성전강의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教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향토문화제 '봇물'

불교문화행사 포교 한몫
지역주민 · 관람객 '볼거리'

화순 운주축제 · 원주 치악문화제 · 공주 백제문화제 등

주민에게 볼거리 제공하고 포교도 하자. 10월을 맞아 지자체마다 향토문화제가 잇따르고 있어 향토문화제에서의 불교관련 행사는 포교의 장이 되고 있다.

향토문화제에서 교계가 참여하는 부문은 영산재, 승무, 탑돌이, 유등제, 제등행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석불제작 시연회, 점토부처만들기, 불교유물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지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30일부터 11월3일까지 제2회 화순운주축제를 개최한다. '천불천탑의 신비, 화순으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기간동안 불상제작 퍼포먼스, 석불제작시연, 점토부처만들기, 승무, 청자불상전시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화순군측은 "지역 축제인 만큼 지역특성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며 "군내 천불천탑 운주사가 있어 이번 축제에 불교소재를 담은 행사를 마련하게됐다"고 말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원주 치악문화예술제에서 처음으로 '교통안전 발원을 위한 영산대법회'가 선보여 예상외로 많은 시민들이 참석, 큰 호응을 보였다.

공주 백제문화제는 축제기간동안 제등행렬 금강변 관등선 띄우기 백제불교영산대재를, 인천 부평 늘푸른문화재는 불교유물전시회를, 충주 우륵문화제는 탑돌이 영산재 등 불교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하지만 이들 불교행사가 대부분 영산재, 제등행진, 탑돌이 등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가 전통종교이고 각종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개발에 노력한다면 지역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포교도 할 수 있는 실속있는 행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강원 철원을 비롯 몇몇 지자체에서는 타종교인들이 축제기간동안 환경정화활동, 행사안내 뿐만 아니라 선교까지 펼치고 있어 교계의 적극적인 행사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태다.

〈김중근 기자〉



◇기림사 대적광전(보물 833호) 해체복원불사가 16일 회향됐다.

장애인 법회안내 서비스
맑고향기…, 차량봉사 추진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법회나 불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맑고향기룹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은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 이동 봉사를 실시한다. 11월4일 길상사(주지 청학)창건기원 법회에서의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시범활동과 함께 봉사자교육을 펼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가동할 예정이다.

병원이나 관공서, 법회 등 외출하고 싶어도 타인의 도움없이는 단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 이들이 원하면 달려가 법회장까지 안내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장애인 불자들의 개인적인 일로인한 이동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맑고 향기롭게'는 장애인불자들의 손과 발이 돼줄 자원 봉사자를 찾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중증 장애인 이동 봉사에는 차량 운행이 가능한 분으로 장애인의 승하차 및 기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참할수 있다.

(02)741-4696

김주일 기자

기림사 대적광전 새 단장

16일 낙성…사부대중 1500명 참석

조계종 제11교구 함월산 기림사(경주시 양북면 · 주지 법일) 대적광전 해체복원 낙성식 및 석가모니부처님 봉불 점안식이 16일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96년 12월 6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착공, 10개월만에 완공을 보게된 同대적광전(보물 833호)은 정면5칸 총 61평 규모로 배흘림원주 5량가에 맞배지붕 형식을 하고 있다. 내부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을 봉안하고 있으며 노사나불은 지난 3월 복장유물을 도난당한바 있다. 기림사는 이번 불사에 별도로 1억5천여만원을 들여 대적광전과 박물관 등 모든 법당에 CCTV와 방범등을 설치하는 등 성보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주지 법일스님은 "조선 영조31년(1755)에 6번째 중창된후 2백42년만에 새롭게 대적광전을 단장하게돼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 〈경주=이윤호 기자〉

정수스님 14일 입적



학봉당 정수 대강백이 14일 오전 6시20분 주석해온 동화사 서별당에서 세수 89세 법랍 80세로 입적했다.

스님은 9세에 해인사로 동진출가해 21세에 금강산 유점사에서 첫 강의한 것을 시작으로 철원 심원사 해인사 은해사 동화사 강사로 후학들을 양성했다.

뉴스 & 뉴스

백담사 만해기념관 완공

만해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는 만해기념관(관장 전보삼)과 교육관(원장 김재홍)이 완공돼 11월 9일 오전11시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에서 개관식을 갖는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회장 명호근)는 이에 앞서 8일 오후6시 대한불교청년회 강원지회(회장 임철혁) 주최로 만해연구가이자 기념관 관장으로 위촉된 전보삼교수를 초청, '만해사상' 강연회를 개최한다.

만해기념관은 만해스님의 글씨 그림 도서 논문 등을 통해 사상사 역사 문화사적 자취를 체계적이고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설전시관이다.

北에 수수 1천톤 전달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스님)는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나진 · 선봉지역에 지정기탁한 수수 1천톤(약 1억5천만원)의 전달을 완료했다.

불교운동본부는 중국 현지의 옥수수 가격폭등으로 품목을 수수로 전환, 9월29일부터 7차례에 걸쳐 도문을 통해 남양으로 전달했다.

부산MBC 불교회 발기

부산MBC불교연구회는 지난 9일 창립발기인대회를 갖고 회장에 주흥식 심의국장 부회장에 안병율 · 박정용씨, 총무에 김종완씨를 선출했다.

同회는 고승초청법회 성지순례 등을 주요사업으로 벌이게 된다.

제비원석불앞 식당허가 물의

안동시가 제비원 석불(보물 115호) 주변에 허가한 식당은 적법하다고 밝혀 교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안동시는 9월29일 조계종 총무원이 보낸 '제비원 석불 주변 식당건축철회요청건'에 대한 답신에서 '국도사이에 시공돼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축시공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양평에 15만평 공원묘원 조성

보현원서 추진…대웅전 · 명부전 · 묘역등 99년 완공

경기도 양평 15만평에 불자들을 위한 현대시설의 공원묘원이 조성된다. 대한불교 보현원(이사장 도각스님)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심산리 15만평에 명부전 등 양평공원묘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것.〈관련기사 3면〉 이에 맞춰 보현원은 10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서흥빌딩(조계사 맞은편) 2층에 사무실 개원식을 가졌다. 이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 前총무원장 혜초,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원융종 종정 일공,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스님 등 교계지도자들이 참석했다.

99년 완공예정인 양평공원은 대웅전 묘역 명부전 요사체 상징탑 등이 들어서, 사찰에서 신심을 내면서 가족들이 묘소를 참배토록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위패 영정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지하1층 지상 2층의 명부전도 건립한다.

발산리 석등 · 석탑이전
군산-완주 마찰 심화

군산 발산리 석등(보물234호)과 5층석탑의 이전 문제가 제기돼 지역자치단체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 황토현문화연구소(소장 신정일)에 따르면 우리문화재 제자리찾기 운동 차원에서 일제에 의해 옮겨진 석등과 석탑을 본래 자리인 완주군 구산면 삼기리 봉림사지로 옮겨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군산시민들은 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문화재가 적고, 이 문화재가 일제시대 발산리에 옮겨진 후 60여년동안 관리돼 왔으며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보존위원회까지 구성해 관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전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는 "현재 봉림사는 폐허가 된 상태로 석탑과 석등의 본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이전이 된다 해도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당장 이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라사판 100권 델게판 213권 티벳대장경 반입

동국대 도서관 교학 · 티벳어 연구 중요자료



후기대승불교 관련 논 · 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라사 · 델게판 티벳대장경이 최근 국내에 반입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도서관이 이번에 입수한 티벳대장경은 라사판(經部) 1백권과 델게판(論疎部) 2백13권. 동국대는 이미 달라이 라마가 60년에 기증한 것을 비롯 여러 티벳대장경을 입수, 보존해 오고 있었으나 책자 형태로 된 영인본으로 글자가 너무 작아 연구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입수한 대장경은 티벳에서 만들어진 것과 형태가 똑같아 글자를 쉽게 판독할 수 있어 교학 및 티벳어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탁소리

북동포 옷보내기 유감

김 정 은 〈취재1부 기자〉

교계에서 북녘동포돕기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두 단체가 모두 동포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옷 보내기운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은 추위를 이기게 하는 두툼한 겨울코트처럼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인 북녘어린이들이 부실한 몸으로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무겁기만 하던 마음이 다소나마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운동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중소의류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겨울용 니트 2천여벌 기탁하기도 했고, '어떤 옷을 보내야 하는지', '오래된 옷인데 괜찮은지' 등을 문의하는 불자들의 관심은 의외로 크지만 옷을 보내기까지의 물류비용이 적지않게 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운송비가 만만치 않다. 전국에서 보내오는 옷을 쌓아 둘 장소도 없고, 서울에서 부산항까지의 운송도 차량대여 외에는 방법이 없다. 대략적인 추산에 따르면 보관, 포장, 운송까지 총 3백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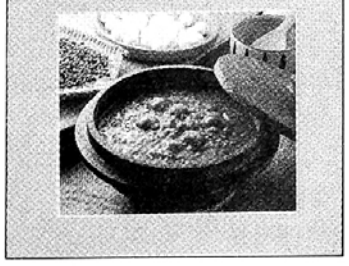
결국 한 단체는 막대한 물류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성금을 모아 중국에서 옷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겨울옷 보내기운동'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

물론 북녘동포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만 있다면야 어떤 방식이든 큰 문제가 될 수 없겠지만 깨끗하게 손질한 우리의 옷을 북녘으로 보내는 일이 갖는 그 상징적 의미를 생각할 때 중국에서 옷을 구입한다는 것은 왠지 우리의 도리를 빼앗기는 것 같아 섭섭하기만 하다.

'겨울옷 보내기운동'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서는 옷장 안의 묵은 옷을 꺼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옷을 깨끗이 손질하고 포장하여 북으로 떠나는 배에 신기까지 관심을 갖어야 한다. 이 운동은 바자회나 재활용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지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

동지와 무인년 이야기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동지 법어, 팥죽의 유래, 팥죽과 관련된 풍습, 동지와 불교, 동지에 얽힌 불교 설화, 호랑이 해에 생각하는 호랑이 이야기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동지 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 · 록 · 내 · 용

제1부 동지맞이 기원법회
동지 법어/동지 맞이 발원문

제2부 우리의 민속 명절, 동지
팥죽의 유래/팥죽과 관련된 풍습/동지와 농점(農占)/동지의 시절 음식
불교에서 본 동지의 유래/새롭게 보는 동지/선덕여왕과 지귀/팥죽과 나한님

제3부 민속과 불교
문화와 민속 문화/민속 불교/삿됨을 막아주는 색/신성한 색

제4부 아세(亞歲-동지)를 맞아 생각하는 무인년 사해
10간 12지로 나누어 본 무상한 세월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불교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 이야기

성도절 이야기
신국판 64페이지, 정가 1,500원
성도절 법회 법보시로 좋습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맨 뒷장에 법보시자및 법회안내 등을 넣어드립니다.
◈ 크기/4×6배판, 표지포함 52페이지 ※ 법보시 특가/1권당 1,500원

감로출판사 서울 ·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738-8682 (야간) 011-265-0923

불기 2542(무인년) 달력 보급 안내

동자승 (大 · 小)





산사의 향기 (大 · 小)





나한도 (小)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2년도 달력 **'산사의 향기**(大 · 小)-사진 안장헌', **'동자승**(大 · 小)', **'나한도**(小)'를 주문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단체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사찰명, 그리고 법회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 크기 : 小(26×26.5cm) 大(30×31cm)
■ 매수 : 표지 포함 13매
■ 특수고급제본
※ 견본이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 ·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738-8682
(야간) 011-265-0923

설악대불 북녘향해 '통일미소'

신흥사 통일청동대불 25일 점안



◇ 11년만에 설악에 나투신 원만구족한 석가모니 통일대불 상호.



◇복장유물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담는 사리병.





◇감은사지 동탑에서 출토된 사리함을 본떠 제작한 사리외함(사진 위)과 사리기(사진 아래).



◇통일을 바라보는 불자들의 염원이 담긴 신흥사 통일대불(총 높이 18.9m).

아파트 6층 높이…청동 108t 들어
진신사리 3과 봉안…11년만에 회향

설악에서 백두까지 한풍이 됐다. 민족 통일의 비원을 안은 청동 석가모니부처님이 설악에 나투어 대자비로 분단의 아픔을 끌어 안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금년 설악의 단풍은 유난히 아름답다.

속초 설악산 신흥사(주지 도후)는 11년간의 통일청동대불좌상 조성불사를 마치고 25일 점안대법회를 봉행한다. 좌정한 석가모니부처님을 형상화한 청동대불은 거불(巨佛)이다. 좌대 높이 4.3m, 대불높이 14.6m, 좌대직경 13m, 광배폭 14m, 아파트 6층높이에 1백8의 청동이 사용됐다. 8면 좌대에는 통일을 기원하는 16나한상이 섬세하게 조각돼 있다. 특히 지름 10㎝의 큐빅 1개, 8㎝짜리 8개로된 미간 백호는 중생계의 무명을 밝혀주듯 찬란한 광채를드러냈다. 이번 점안식에서는 92년 미얀마 정부기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 3과와 다라니경, 칠보 등 복장유물도 봉안된다.

20세기 불상양식으로 기록될 신흥사 통일대불은 불상의 대가인 황수영(前 동국대 총장), 故 홍정식(前 동국대 교수), 정영호(교원대 박물관장), 김정기씨(한림대 교수)가 자문했다. 불모(佛母) 김성호씨(불교미술관장)와 자문위원들은 수시로 만나 청동대불의 석고, 주물, 조립 등 모든 과정을 점검하며 제작에 몰두했다.

87년 8월 공사를 시작한 청동대불 불사는 4년 동안 석고로 불상원형을 만들었고 94년에는 주물작업을 끝냈다. 95년에는 청동조각 조립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11년간의 조성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30여만명이 동참해 무사봉안을 기원했다. 인종, 종교, 종파를 떠나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는 뜻이 불상조성에 함께 녹아 들었다. 특히 실향민이 많고 북한과 인접한 신흥사에 통일대불이 봉안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신흥사 주지 도후스님은 "통일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큰 원력과 신심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대작불사였다"며 "통일대불이 민족의 광화통일 기원하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늘 편안하고 자비가 충만한 통일기원도량으로 꾸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상은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 시대 장엄신으로 설악에 나투신 신흥사 통일대불은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예견한듯 자비로운 웃음을 보였다.

김중근 기자

인터뷰 통일대불 제작 김성호 관장



"다겁생에 걸쳐 서원을 다져왔음을 통일대불 불사기간 동안 거듭거듭 깨달았습니다."

신흥사 통일대불 점안식을 앞둔 김성호관장(59·불교미술전시관·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문회장). 김관장은 손꼽히는 불모(佛母)다. 금세기 최고의 불모가 되기 위해 자금까지 3만여개가 넘는 불상에 모든 혼을 담아 불자들앞에 내놓았다. 그러나 신흥사 통일대불 만큼은 그에게 특별하다.

작은 능력 부처님께 회향 "환희심"

김관장이 신흥사 통일대불 제작에 착수한 것은 86년. 그는 먼저 기도부터 시작했다. 평생 한번도 하기 어려운 대불조성은 신심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추만세(千秋萬歲)를 넘어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중생의 고난을 건져 줄 자비의 부처님을 만들겠다고 발원했다.

"설악산은 춘하추동 기온차가 높습니다. 최고 35℃일때 불상내부 온도는 80℃정도 달아오릅니다." 이같은 온도를 60%로 낮추기 위해 머리부분에 환기구를 만들었다. 또 1도가 올라갈때마다 청동은 약 3㎜정도 수축 팽창하기 때문에 청동두께를 1㎝로, 내부 빔과 청동과는 5㎝ 유격을 줬다. 그의 노력은 마침내 외부 33℃일 경우 불상내부는 22℃로 대성공이었다.

김성호관장이 가장 고심한 부분은 상호. 아무리 재질이 좋은 청동을 사용하고, 균열과 뒤틀림이 없더해도 상호가 원만구족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원만하고 자비로운 상호를 표현하기 위해 11년에 걸친 불사기간중 단 한순간도 자비광명상을 놓아 본적이 없다.

김관장은 "신흥사 부처님을 조성하려고 태어난 것 같다"라는 말로 대불 불사를 회향했다.

세계의 좌상대불

중국 능운사 마애대불



·713~803년 조성 ·높이 71m ·미륵불상 ·중국 최대의 마애대불 ·능운산 자체를 그대로 조성한 불상답게 푸른 이끼와 잡초, 나무와 어울려 마치 법의를 걸친 것처럼 신비스럽다.

홍콩 보련사(포린수도원) 대불



·높이 23m ·금동불상 ·란타우섬에 위치한 세계 최대 야외불상.

미얀마 쟈익푼사원 사면불



·1476년 ·담마제디왕이 공생 결혼하지 않고 수행하며 살겠다는 4명의 공주를 위해 4구의 부처님을 조성했다. ·높이 18m.

일본 동대사 좌불



·8세기초 ·높이 16.2m ·무게 452t ·얼굴길이 4.8m ·손길이 3m ·노사나불상 ·청동불상으로, 손바닥의 수평위에 약 16명의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규모 ·쇼무천왕이 불교에 의한 국가의 진호(鎭護)를 발원, 9년에 걸쳐 8차례의 주조 끝에 완성됐다.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모임

결 의 사 항

1. 97년 10월 15일까지 별도의 조처가 없을 경우 「국립공원입장료 분리징수문제를 야기하여 국민과 교단간에 불화를 조장한 집권 여당과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의 산문출입을 엄금한다.」 단 교구본사 주지는 위 내용을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10월 18일부터 본말사에 부착하고 이를 실시한다.

1.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한다.

1. 9월 22일 결의한 산문폐쇄 조치는 추이를 지켜본 뒤 10월 25일 열리는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모임에서 재논의한다.

1. 종단의 자주권 수호를 위하여 투쟁하는 속리산 법주사 주지 혜광 스님의 뜻에 적극 협력한다.

총무원 당국에 촉구한다.

1. 관람료분리징수 관련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코자할시에는 본사 주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1. 협상 대표단 구성시는 종법에 따라 관람료위원회에 임원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1. 9월 22일 발표한 총무원장 성명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민족 문화수호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모임에서는 적극 지지한다.

불기 2541년 10월 13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모임**